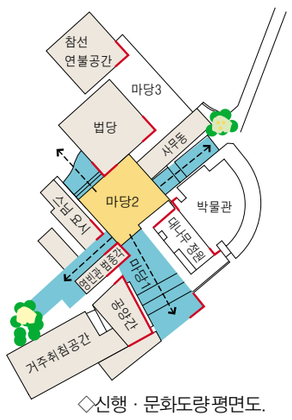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6월 25일 수요일 (주간) 제 427 호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해인사 문화도량 설계 당선작 '풍경의 집합체'



◇신행 · 문화도량 평면도.

신행 · 수행공간을 하나로

대법당과 10분거리 … 자연스런 연결 구조

총공사비 2백~3백억, 10월부터 공사 착수

수행과 신행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찰 문화'. 해인사가 마침내 그 밑그림을 마련했다.

해인사는 건축가 조성룡씨(조성룡도시건축 대표)와 프란시스코 사닌 교수(미국 시라큐스 건축대학)가 공동설계한 작품 '풍경의 집합체'를 '해인사 신행 · 문화도량' 설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인사는 신행 · 문화도량을 짓기 위해 설계경기를 열어 작품을 모집했었다.

해인사의 신행 · 문화도량은 재가불자들의 전용 도량으로 신행과 수행공간을 하나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찰 문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선작의 도면은 법당, 참선 · 염불공간, 체험관, 박물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행 · 문화도량에서 수행과 신행을 함께 할 수 있는 형태다. 게다가 이 신행 · 문화도량은 해인사 대법당과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스님들의 수행공간과 재가불자들의 신행공간이 분리돼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모든 사찰이 스님들의 수행공간과 재가자들의 수행 · 신행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새로운 시도다.

신행 · 문화도량은 이런 의미를 담으면서 전통적 사찰 건축 구조와 기법을 계승하고 21세기 현대적 사찰의 창조성을 가미한 형태로 건립된다.

조성룡씨는 "전통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설계의 특징"이라며 "전통사찰 구조를 현대적으로 변용해 자연과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이뤄내면서 모든 구조를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공사비만도 200~300억여 원이 투입될 이번 공사는 세부 설계지침을 완성된 뒤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경남도청 등 관계기관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착공될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3~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인사는 예상하고 있다.

건평만 2천여 평 규모로 옛 해인초등학교 자리에 건립될 신행 · 문화도량은 학술회의, 강연, 교육,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과 거주 및 편의시설 공간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팔만대장경 앞뒤를 실물 크기의 동판으로 복사한 16만장의 복사본 팔만대장경을 법당의 좌우 벽면에 보관할 계획이며, 법당 명칭도 '팔만대장경 법당'으로 이름붙일 방침이다.

신행 · 문화도량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원철스님은 "새 도량 건립은 사찰문화의 새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불자들과 일반인에 대해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신행 · 문화도량이 명실상부한 국민의 배움터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시험치르는 '영산재' 20일 서울 봉은사(주지 인공) 설법전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주최 '2003년 영산재 이수평가 시연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법무 분과에 도전한 미산 스님이 영산재 준보유자 구해 스님을 비롯 심사위원 앞에서 천수바라를 선보이는 모습. 관련기사 5면 사진=박재완 기자

정관개정 등 핵심 또 외면

동국학원 이사회 병원장 선임 · 직제개편 등 무산

동국학원이 이사회를 열면서 시급한 현안인 불교병원 정관개정의 건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교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동국학원(이사장 정대)은 18일 동국대 회의실에서 12명중 와병중인 서돈각 진흥원 이사장을 제외한 11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91회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불교병원 정관개정에는 또 실패했다.

이사회에서는 2002년 동국대 결산 통과에 이어 동국학원 정관 개정의 건의 상정되기전 법장, 녹원, 류주형 이사가 차례로 자리를 비우면서 9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논의자체가 중단됐다. 이로서 불교병원 개원과 관련 병원장 선임과 직원선발을 위한 병원직제개편, 불교병원 법적 근거조항 마련이 무산됐다. 또 정관개정안에 들어있는 총장 정년연장, 동국학원의 장례식장 운영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확대 등도 어렵게 됐다.

이밖에도 권노갑 이사 해임 및 동국대 총동문회 추천 이재창 전 동국대 교수 이사선임의 건은 차기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동국학원의 한 관계자는 "차기 이사회는 8월말이나 9월초 열릴 예정"이라고 밝혀 당분간 이사회가 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선학원, 교육분담금 전액 조계종 납부

행자교육 등 각종 교육 참여길 열려

조계종과 선학원이 지난해 3월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남아 있던 후속조치들을 모두 해결하고 양측이 한 뿌리임을 재확인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성관스님과 선학원 이사 동진스님은 19일 총무원에서 만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던 선학원의 2002 · 2003년도 교육분담금 전액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계종에 납부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선학원은 행자교육을 포함해 조계종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은 지난 4월 임시중앙종회에서 선학원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총무원법 조항을 개정했으며, 선학원도 이사회에서 지난달말 재단의 교육분담금을 조계종에 납부키로 하는 등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명우 기자

"병원 개원 빨라야 내년 가을께"

홍기삼 東大 총장 취임 100일 간담회

일산 불교병원이 빨라야 내년 가을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국대 홍기삼 총장은 17일 취임 100일(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가을이나 2005년 봄에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총장은 "불교병원을 하루빨리 개원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교계의 재정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총장은 또 8월 12일 동국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단 발대식 및 100주년 D-1000일 행사를 갖겠다고 밝혔다. 100주년 기념사업단에는 기획, 건학이념구현, 기념관 건립, 학술, 편찬, 행사, 모금 등 7개 분과를 둘 예정이다. 관련인터뷰 3면

김원우 기자

스리랑카 수재민돕기 조계종, 모금활동 나서

조계종 총무원이 사상 초유의 수해를 입은 스리랑카 수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전국본말사와 불교단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18일 발송했다.

스리랑카는 지난 5월 수해로 60만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성금은 국민은행(023501-04-004943) 또는 농협(053-01-255568)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는 (02)735-5864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동해 삼척:(033)521-6293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범어사의 종무원 친절교육

14일, 범어사 보제루에서는 표정관리, 인사하는 법, 전화 받는 법을 비롯 '서비스'와 '매너'의 개론을 아우르는 친절교육이 열렸다. 경비, 종무소, 원주실, 매표소 직원은 물론 산하 복지기관인 시니어클럽, 금정구사회복지관 등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업무 특성을 가진 직원 50여명이 교육대상이었다. 사찰이나 불교의 첫인상과 다름없는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인 '친절'에 대해 외부강사를 초청,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범어사 종무원은 물론 산하 복지기관의 직원 50여 명을 한자리에 모아 교육한 것이 처음인데다, 참배객과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친절교육을 사찰에서 실시했다는 점에서 신선함을 던져주고 있다.

이미 일반 기업체에서는 서비스를 목숨처럼 여긴다. 그러나 사찰이나 불교계 유관 단체는 '마음'만을 강조하며 서비스나 매너의 사각지대처럼 인식돼 온 현실이어서 이번 친절교육이 주는 의미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막연한 소양교육이 아닌 실질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교육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금정구 사회복지관 조수경과장의 말처럼 이번 친절교육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전환은 물론 구체적 행동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범어사는 자체 평가를 거쳐, 일년에 한두 차례 이 같은 교육을 정례화 할 예정이다. 특히 연관된 주제 하에 더욱 심화되고 체계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여서 '불교적 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착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천미희(부산 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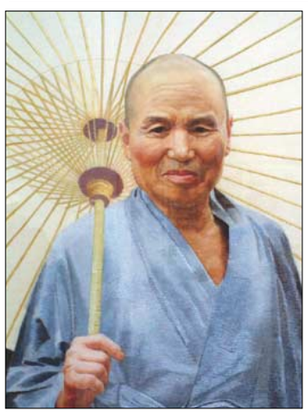
천년신비 '핸드 포토' 불교자수 간직하세요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

누구든 원하는 소재 · 크기로 만들어 드립니다

세계 최고 최대의 예술적 수준을 자랑하는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전통 손자수를 어떤 형태의 주문에도 만족하게 제작해드립니다.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지장보살)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우산녹의 스님)

불교자수 특징
* '단 하나뿐인 명품' 세계적 인정
* 명주실 · 천연염료 사용… 사진보다 더 사실감
* 예술적 가치높은 손자수… 시간 지날수록 진가 더해
* 법당 탱화 · 불화로 적격

용 도
* 불화(탱화, 불보살도)
* 불교인물화(역대고승, 종정등스님)
* 불교성보(탑, 종, 법당, 불상 등)
* 가족기념사진(결혼, 약혼, 회갑 등)
* 기업기념사진 (창업주초상, 승진, 당선축하외국인선물용등)
* 고급인테리어소품(호텔, 백화점, 공공건물, 가정집 등)
* 뜻깊은장면사진(역사적인장면, 기억에 새길경관 좋은 경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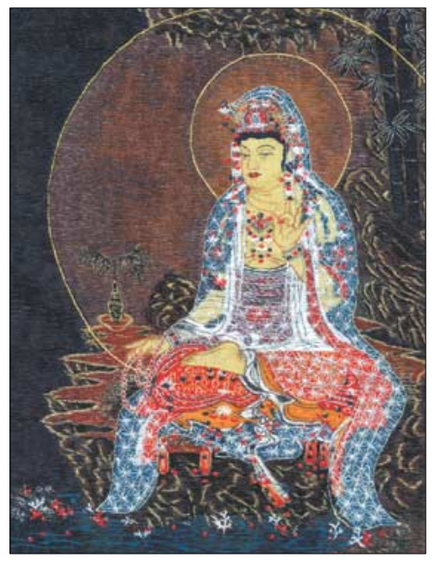
주문시 유의사항
* 머리카락, 눈동자의 동공과 눈썹까지 또렷이 표현된 세밀한 사진일수록 좋습니다.
* 옷의 질감이나 문양이 그대로 표현되므로, 독특한 질감의 의복이나 화려한 의상 일수록 작품이 더욱 돋보입니다.

주문안내
* 대형(60cm×80cm) * 중형(30cm×40cm)
* 소형(20cm×30cm)

특별보급 작품 (15×20cm)을 180,000원 특가로 판매합니다.
– 수월관음, 지장보살, 석굴암부처님 불두.
– 만공 · 한암 · 효봉 · 동산 · 청담 · 성철 스님 등 근세 고승 진영.

※ 소장용 · 선물용 모두 만족을 드립니다

주문 마하몰 전화 (02)732-1520 팩스 (02)727-0697 www.mahamall.co.kr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수월관음)

사 설

무책임한 동국학원 이사회

동국학원 제191회 이사회가 개최되었지만 현안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폐회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미국 LA에 있는 동국로열대 관련 문제, 이사 선임안, 불교병원 유관 정관개정안, 수익사업 추가안, 총장 정년 연장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산안만 처리하고 이사 3인이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성원미달로 나머지 안건은 논의 자체가 무산되었다.

동국학원은 현재 초유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산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원 날짜조차 불투명한 상태며, 5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다. 개원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자금이 적어도 600억원의 거금이라는 분석도 있다. 나아가 미국에 있는 동국로얄대도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교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안팎으로 봉착한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동국학원 이사회는 이사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90회 이사회도 성원미달로 유회된 바 있다. 그러나 동국학원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사들의 무책임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이사회가 몇 명 이사들의 이해다툼으로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한다면 있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위기는 구성원들의 단합과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방치하면 치료불가능한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명 경시' 더이상 안된다

사람 목숨이 너무 값없는 사회가 되는 것 같다. 신문과 방송을 보면 납치, 강도, 살인이 비일비재하다. 모두 욕망의 무절제와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귀가하는 여대생을 납치하여 살인하기, 장인이 진 빚을 사위에게 갚으라며 감금하여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만들기, 유아를 유괴하여 살인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카드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살해한 패륜아도 있다. '정녕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경찰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잘난 정치가도 많다. 그뿐인가? 수많은 시민운동가들이 좋은 사회, 밝은 사회를 만들려고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는 공짜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윤리의식의 결핍 때문이다. 상대적 박탈감에서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의 어두운 단면이 우리 사회에 너무 일찍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렇지만 근본은 인간의 양지(良知)를 찾는데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지키려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뜻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의 무의식을 교정하는 의식개혁 작업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다. 이 사회의 희망 만들기, 불교가 나서야 할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유승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재가불자 수행체계 재정립

조계종 7~9월 참선프로그램등 운영실태 조사

포교연구실·불학연·전문가로 '연구위'
사찰·단체 100여곳…연말까지 자료집

재가불자들의 수행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조사가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교육원 불학연구소와 함께 종단의 전통적 수행체계인 간화선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재가불자 수행프로그램 현황 조사'를 7월 1일부터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위해 포교원은 지난해부터 교육원 불학연구소, 총무원 기획실 등과 공동으로 기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논의해 왔으며, 수행법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는 등 사전 준비를 해 왔다.

이번 조사는 참선, 염불, 간경, 기도 등 전통적인 수행법과 위빠사나, 동사섭, 선무도, 아봐타, 요가 등 현대의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진행은 포교연구실과 불학연구소 실무자, 수행 연구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될 조사연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포교원은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100여 곳의 사찰과 단체의 재가불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수행현장 방문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0월중에는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고, 올 연말까지 조사 결과를 특징대로 분류, 운영 사찰(단체)별 진행 내용과 운영 전반에 따라 보편성·특수성을 가진 모델을 비교 분석해 자료집으로도 엮어 내기로 했다. 자료집은 향후 간화선의 체계화와 대중화를 위한 신도 수행 체계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포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행 흐름을 진단하고 수행법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가불자들의 수행체계를 바로 잡아 나가기로 했다. 또한 종단의 간화선 수행체계 확립과 수행풍토 조성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포교연구실 박희승 차장은 "수행프로그램과 운영 현황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자료가 구축되면 간담회와 세미나를 마련하여 각종 수행법의 장점과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영남지역 스님들 18일 DJ와 면담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을 비롯한 영남지역 스님들은 18일 서울 동교동 자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하고 남북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모임은 영남지역 스님들의 방문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 자리에는 세민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전 주지 흥교스님, 대한불교신문사 사장 겸 법연사 주지 조연스님, 양산 천불사 창건주 도봉스님, 영천 충효사 주지 혜공스님, 은해사 전 주지 법의스님이 참석했다.

혜공스님은 "대통령 재임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한데 대해 전 국민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혜공스님은 또 "김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면서 대화가 잘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한명우 기자



'6·15선언' 3돌…남북 동시법회 6·15 공동선언 3돌을 기념해 조국통일 기원 남북 불교도 동시법회가 14일 서울 조계사와 평양 광법사에서 봉행됐다. 남측 법회에서 참가자들은 공동발원문을 통해 △6·15선언 실천과 통일성취를 위한 정진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활동 전개 △남북 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을 다짐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남북종교교류 추진협의회 구성

문광부·주요종교·단체합의, 9월 2차회합

개별 종단별로 추진되던 남북종교교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조계종 사회부에 따르면, 문광부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국내 주요 종교단체들은 지난 5월16일 모임을 갖고 '남북종교교류추진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조계종,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민족종교협의회, 문광부가 참여하고 있다.

문광부 주도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통일을 위해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오는 9월 2차 협의회를 갖고 협의회의 역할과 사업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불자들 민원 '온라인' 해결 인기

'이제 웬만한 민원은 사찰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해결한다'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해 10월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마련한 '온라인민원' 코너가 스님과 불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총무원이 1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20일까지 제기된 87건의 민원 가운데 82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 96%의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이 코너를 통해 제기된 민원 건수는 한달 평균 50여건. 과거 총무원을 방문해서 담당자를 통해야만 알 수 있었던 사항들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주로 제기된 민원은 행정 절차나 법률상 문제와 관련된 것들. 이와함께 총무원은 행자등록이나 승적증명서 발급 등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힘입어 조계종 홈페이지는 10월 개편 이후 회원이 3천명 이상 늘었다. 현재 등록된 회원만도 4,820명. 또 포교원도 18일 인터넷을 통한 신행정보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등 조계종은 바야흐로 인터넷을 통한 종단 홍보 및 서비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한명우 기자

보문종 지연스님 입적
20일 보문사서 영결식

재단법인 보문원 이사 보정당 지연(普淨堂 智蓮) 스님이 18일 보문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77, 법랍 62세.

1927년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한 지연스님은 42년 보문종 종정 혜안스님을 은사로 득도,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57년 보문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수료했으며, 79년 재단법인 보문원 감사, 86년 법인 이사 등을 역임했다.

영결식은 20일 보문사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엄수됐다. 박봉영 기자

'현대'만평 심 민 섭



일붕 존자 법통수호와 유지보존 및 법인 허가 취소 촉구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 개최공고

= 일붕 존자 전국 7천 제자와 전국 일붕 종도들이여 다 같이 규탄대회에 동참하여 해종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종단을 정상화 합시다 =

귀의 삼보하옵고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법하의 존체 청안 하시옵고,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사가 부처님의 자은으로 원만하게 회향되실 기원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03년 6월 8일(음, 5.9) 경남 의령 봉황산 일붕사에서 봉행한 일붕 존자 원적 7주기 추모대재에 동참한 전국 2천여 일붕 존자 제자들과 종도들은 서울 신영동 임의종단(종정 장모스님 〈은상좌〉)측이 지난 2003.5.2-6일에 걸쳐 현대불교신문 등에 게재한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법인 허가 취소 촉구 결의문과 허위사실에 대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7천 일붕 제자들의 이름으로 진상규명과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 하였아오니 공사다망 하실 줄 사료되오나 한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시어 여법한 규탄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화합종단이 이룩되길 기원드립니다.

1. 전국 일붕 존자 7천 제자들과 종도들은 대 스승이신 일붕 존자께서 일붕선원 등 불교재산을 영구히 유지 보존하고 중생제도와 세계인류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8.9.16 창종한 종단을 활성화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991.9.27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설립하시어 석가세존의 혜명아래 종지종풍을 선양하고 법통을 수호하여 왔으나 지난 1996.6.25 저희들의 대 스승이신 일붕 존자께서 열반적정에 드신 후 종단을 탈취할 목적을 가진 불순세력의 사주에 의하여 종헌종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난 2000.5.2 중앙종회에서 재단법인을 삭제하고 공식명칭을 대한불교일붕선교종으로 의결하여 정상적인 종단이 일시에 마비되고 각급 종무기관의 기능이 중지되어 1천여 종도들이 흩어져 일붕 존자께서 평생 심력을 기울여 창종한 종단이 일시에 붕괴상태에 놓이게 되자

2. 종단을 두고만 볼수 없어 구종하고 애종하는 일붕 종도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법적인 신영동 임의종단(당시 총무원장 장모스님)측과 대처하다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지난 2000.7.18 신영동 93-1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전국 종도 4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전국 종도대회를 개최하고 법통수호대책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신영동 종단측에 종단 정상화를 촉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지지 의결로 지난 2000.12.11 서울 부암동 하림각에서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3세 종정 무찰 스님 추대와 제6대 총무원장 정동봉스님 등 각급 종무기관장 취임식을 불교계 각 종단 대덕 큰스님과 내외귀빈 1천 5백여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하고 강북구 수유리 440-27에 종단 사무실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1천여 종도들의 종무행정을 원만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신영동 임의종단(당시 총무원장 장모스님〈은상좌〉)측은 본 법인 및 종단을 상대로 2000년부터 3년여에 걸쳐 8건의 민형사 사건을 고발 또는 고소하여 전체 무혐의와 혐의없음, 기각 등으로 전체 패소되고 신영동 93-1 일붕선원 2층 총무원 사무실도 명도소송에 패소하여 지난 2003.2.20 법원으로부터 명도집행 된 것은 사필귀정일 것입니다.

4. 그리고 신영동 임의종단(종정 장모스님〈은상좌〉)측은 지난 2003.4.29 신문기자를 배석시켜 비상종단 출범과 법인허가취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2003.5.2 전국 불교계 신문 등에 게재하여 저희 7천 제자의 대 스승이신 일붕 존자께서 평생 이룩하신 명예와 업적과 재단법인 설립의 취지가 하루아침에 훼손되고 실추되었으며, 법통이 유명무실화되고 법인을 해체하여 재산을 임의종단에 귀속한다는 것은 재산을 갈취하려는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법인 허가 취소 결의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왜곡한 자들이 어찌 일붕 존자 은상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작태는 우리들의 대 스승이신 일붕 존자에 대한 불충일 뿐만 아니라 전국 7천여 일붕 문도 종도들에게도 반역행위요 불교계에도 씻을 수 과오일 것이다. 이러한 자들을 어찌 승이라 할 수 있겠는가? 타 종단에도 과거 분규로 전국이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의 은사스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파기 시키는 일은 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 전국 7천여 일붕 문도 종도들은 이 해종 행위한 자들에게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 규탄한다. 엄중히 경고하건데 해종 행위자들이나 뒤에서 사주한 자들은 신중님께서 내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루속히 한국 불교계에 참회하고 전국 7천여 일붕 문도앞에 무릅 꿇고 사죄하라.

5. 우리 전국 일붕 존자 7천 제자들과 전국 일붕 종도들은 화합 단결하여 일붕 존자의 유지와 사상을 계승하고 법통을 수호하여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의 위상을 높이고 종단의 종지종풍을 선양하고 일붕 선풍진작에 기여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고자 하오니 다 같이 본 대회에 동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기 2547(2003)년 6월 일

◎ 일 시 : 2003(불기 2547)년 6월 26일 (음. 5.27) 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서울 신영동(세검정) 일붕선원 3층 대법당
◎ 참가범위 : 전국 일붕존자 7천 제자 및 전국 종단 종도
◎ 연 락 처 : 전화 (02) 998-8161-2 / 팩스 (02) 998-8384

규탄결의대회 준비위원회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명예이사장 현붕해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이 사 장 김혜운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김무찰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정동봉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회의장 엄지공
전국 일붕 문도회 중앙회장 김도기
일붕 은상좌 문도회 대 표 이청암
일붕 은상좌 문도회 김동암
일붕존자 유지보존협의회 공동의장 홍학암
일붕 삼장 대학원 대학원장 원의범
(사) 대한불교호국법사단 이 사 장 정 철
일붕 법왕사상 연구소 이 사 장 이존영
일붕 서도연구보존회 회 장 최성기
일붕 법왕 장학회 회 장 정칠석

일붕존자 7천 제자 및 전국 종도 일동 합장 〈무순〉



취임 100일… 홍기삼 동국대 총장에게 듣는다

"개교 100주년, '제 2창학' 계기 만들 것"

동국대 홍기삼 총장은 17일 취임 100일(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산 불교병원 개원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불교생태학 특성화대학 모델, 부대사업 창출방안, 건학이념 구현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홍기삼 총장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불교생태학연구기반이 확립되고 있다"며 "8월 12일 2006년 동국대 개교 100주년기념사업단을 구성하고, D-1000일 행사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벌써 취임 100일 지났다. 그간의 활동은.

— 전국에 퍼져있는 대학기관을 방문해 업무를 파악하면서 동국대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속에서 지냈다. 2006년 개교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학은 앞으로 이상추구 성향인 강한 독일의 상아탑과 미국의 사회봉사 개념을 융합한 대학모델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반에서 2006년 개교 100주년, 불교생태학 특성화대학, 학내교육 내실화, 사업창출방안 등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전념했다.

▲불교병원 개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 빠르면 2004년 가을 늦어져도 2005년 봄으로 개원일정을 맞추고 있다. 되도록이면 불교병원을 빨리 개원해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지만 부채 500억원까지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불교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1000억원이 필요하다. 가용재원은 건축기금 20억, 발전기금 50억, 불교병원기금 60억원뿐이다. 학교에서는 자금조성을 위해 1500만평에 이르는 부동산의 활용방안 마련 등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중이다. 특히 동대 한방병원의 우황청심환과 편자환을 직접 제조하는 제약회사와 약초를 재배하여 가공 및 공급하는 식품회사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불교병원이 개원하기 위해서는 교계의 도움도 절실하다. 불교병원이 하루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병원 개원 자금위해 제약회사 설립 검토

▲불교병원을 앞당겨 개원할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는지.

— 불교병원의 무리한 개원은 학교의 교육환경 및 연구의 부실, 기존 의료원의 장비 미 교체로 인한 총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빠른 개원보다는 정확한 컨설팅을 통한 세밀한 컨셉을 가지고 병원의 이익창출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2006년 5월 8일은 동국대가 제 2의 창학을 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동국대 개교 100주년 D-1000일 행사를 8월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도약기원제, 100주년 기념사업단 발대식, 천인천배천등기원제, 1천명 테잎컷팅, 동문연예인 총출동 '다시 태어나는 동국' 콘서트, 남산일대 연등행렬이 예정돼 있다.

▲취임당시 발표한 불교생태학 연구를 통한 건학이념 구현방안은 어떻게 되가는지.

— 최근 세미나와 관련교수 연구모임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불교생태학의 가능성은 확실하다는 결론이다. 이제 불교생태학을 중심으로 동국대 전 학과가 협력, 불교생태학에 기반하여 부처님의 법을 온 인류에게 분명히 전달 할 수 있는 건학이념 구현의 학적체계를 세우고 있는 단계이다. 최근 교육부에 불교생태학에 기반한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을 신청했다.

▲교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동국대를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취임이후부터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건학이념의 구현도 결국은 교학을 발전시키고, 불교계에서 활동할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의 가장 큰 역할인 교육과 연구풍토 조성이 중요하다. 최근 전체교수모임에서 최대한 수업에 충실하고, 시간을 내서라도 학생들 개별 지도까지 하기로 했다. 불자들도 애정을 갖고 지켜보면서 학교발전을 위한 조언과 도움을 주기 바란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98년 멸빈자 처리 이견

98년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에 의해 마련된 '특별법'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98년 종단사태 멸빈 징계자 5명의 징계는 확정된 것인가, 아니면 계류 중인가?

조계종 호계원장 월서스님이 특별법에 의한 98년 멸빈 징계자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는 특별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로회의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뜻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원로회의와 법장스님, 호계원의 시각이 다르고, 또 종회 내에서도 상반된 시각이 맞서고 있어, 종헌 개정 불발 후 특별법으로 멸빈자 사면 문제를 풀겠다는 법장스님의 구상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들어 멸빈자 사면을 반대하는 괴문서가 나도는 등 종단 권력기구 뿐만 아니라 종도들 간에도 대립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자칫 종단이 심각한 불협화음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호계원장 월서스님은 최근 발표한 '특별법에 의한 멸빈 징계자 구제 논의에 대한 호계원의 입장'에서 "당시 특별심사위원회는 법률적 검토와 해석을 바탕으로 멸빈 징계자들을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들의 징계는 호계원의 최종 징계 결정에 따라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말은 이들 5명이 특별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 해당자의 심사 개시가 이뤄지지 않아 '심사 개시일로부터 심사 결정 때까지 징계효력이 유예된다'는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특별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기 전에 내려진 멸빈 징계가 그대로 유효하다는 뜻이다.

법장 스님 · 원로회의 특별법에 따라 해결
호계원장 월서 스님 종헌개정 해야 가능

월서스님은 또 "종헌 128조에는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서 멸빈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 전제하고 "하위법인 특별법은 상위법인 종헌규정을 위반할 수가 없다"며 특별법에 의한 98년 멸빈 징계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장스님과 원로회의의 시각은 다르다. 그 시각의 핵심은 특별법에 계류 중인 이상 심사 개시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특별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호계원의 초심과 재심 판결 이후 제기될 지도 모르는 징계결정 절차의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재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특별법의 취지를 이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시 말해, 특별법은 '징계절차'상의 문제를 확정짓기 위한 것이며, 종헌 128조는 사면의 '실시'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98년 징계자 문제는 '사면 사항'이 아닌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지에 대한 결정 사항'이라는 것이다. "특별법에 계류 중이라는 것은 아직 징계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논란 가운데 '특별법'의 적법성 여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종헌 · 종법 어느 조항에도 종단이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특별법을 제정 · 공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즉,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자체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총무원장 선거를 무리없이 치르기 위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법장스님과 원로회의는 월서스님의 특별법에 의한 처리 반대 입장에 대해 아직까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면 문제가 종단의 최대 현안임을 감안할 때 정치적 타협이 없는 한 법리적 해석을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올 여름방학 · 휴가 절에서 보내세요

50여 사찰 · 단체 수련회 '손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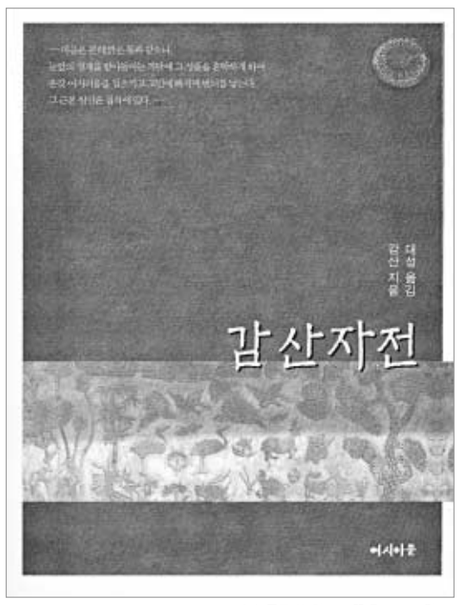
여름방학과 휴가를 앞두고 50여 사찰과 단체에서 150여 차례의 다양한 여름수련회가 준비돼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여름수련회를 진행한 100여회 보다 50%나 증가했다.

올 수련회의 특징은 예불, 참선수행, 독경, 108배, 발우공양 등 수행위주의 예년 프로그램과는 온 가족이 참여해 차를 마시고 산사를 돌아볼 수 있는 사찰체험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위빠사나와 명상 등 수행교육, 삶을 돌아보고 참회할 자기성찰 등의 기회가 늘었다는 점이다. 특히 사찰체험 프로그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실시된 템플스테이와 주말수련회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다. 8월 21일부터 11일간 열릴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한 템플스테이도 톡톡히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18일 신행정보센터(info.ibuddhism.org)를 개통, 여름수련법회와 사찰에서 이뤄지는 각종 신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6월 20일 현재 발표된 사찰의 수련회 일정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 찰	대 상	행사명	일정(회수)	문 의
금강선원	일반	참선수련회	7.13~8.7(3회)	(02)445-8484
마하선원	초교생	여름불교학교	7.19~22	(02)952-0666
길상사	초 · 중 · 고 · 일반	선수련회	7.24~8.14(4회)	(02)741-4696
삼보사	중고생 · 일반	건강수련회	7.25~8.3	(02)352-3262
불광사	중고 · 20~40세 미혼	횃불정진대회	7.5~8.11(2회)	(02)413-6060
능인선원	대학생 · 가족 · 일반	참나를 찾아가는 산사체험	7.17~8.17(4회)	(019)295-3840
진관사	초교생	여름불교학교	7.19~21	(02)359-8410
법장사	어린이 · 청소년	여름불교캠프	7.20~28(2회)	(02)971-0303
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학생	한국불교1600년대회	7.31~8.3	(02)732-0239
지장사	어린이 · 초중고생	단기출가, 한문서당	7.30~8.4(2회)	(02)856-1558
파라미타청소년협	청소년 · 학부모	문화재 모니터링, 생태기행	7.1~8.31(4회)	(02)723-6165
봉은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7.25~27	(02)3218-4815
용주사	어린이 · 청소년 · 일반	효행 참선수련회	7.21~8.1(3회)	(031)234-0040
봉선사	초 · 중고생 · 일반	신행출가, 숲속학교	7.19~8.11(3회)	(031)527-5974
대원정사	가족	여름수련회	7.24~27	(031)855-5503
신흥사(화성)	어린이 · 청소년 · 일반	수련법회	7.23~8.17(3회)	(031)357-2695
월정사	일반	여름수련회	7.28~8.5(2회)	(033)332-6661
신흥사(속초)	학생 · 일반	산사의하루	연 중	(033)636-7044
낙산사	가족	사찰문화체험	연 중	(033)672-2448
구룡사	어린이 · 일반	여름수련회	7.25~8.7(3회)	(033)732-4800
법주사	초교생 · 일반	여름수련회	7.17~8.3(4회)	(043)543-3615
갑사	어린이 · 일반	여름수련회	7.25~8.4(2회)	(041)857-8981
마곡사	초중등생 · 일반 · 상담교사	선수련회, 자비명상	7.10~8.16(6회)	(041)841-6221
수덕사	일반	선수련회	7.5~8.17(5회)	(041)337-6565
선덕사	어린이 · 일반	자기성장 수행학교	7.23~8.14(2회)	(062)263-4660
화엄사	일반	선수련회	7.22~8.15(4회)	(061)783-0038
미황사	어린이 · 중학생	한문학당	7.27~8.19(3회)	(061)533-3521
송광사	초 · 중고생 · 일반	여름수련회	7.13~8.13(6회)	(061)755-0107
백양사	일반	나는 누구인가	7.21~8.15(4회)	(061)392-0434
불회사	일반	관음대참회	7.13~8.28(7회)	(061)337-3440
제석사	일반	한국선 요가	매주 토요일	(061)835-9594
송광암	일반	참나를찾아 떠나는 참선여행	7.29~8.1	(061)843-8488
대흥사	초 · 중고 · 일반	숲속마을, 참선수련	7.15~8.8(5회)	(061)534-8877
금산사	초 · 중고 · 일반	여름수련회	7.20~8.17(4회)	(063)548-4440
범어사	초 · 일반	여름수련회	7.17~8.7(3회)	(051)508-3122
쌍계사	일반	여름수련회	7.24~8.1(2회)	(055)883-1901
해인사	청소년 · 일반	아름다운 인연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7.1~8.16(7회)	(055)932-7430
통도사	초 · 중고 · 일반	천년고찰에서 참나를 찾아서	7.13~8.9(6회)	(055)382-7182
서원사	일반	여름수련회	7.16~8.22(6회)	(055)291-6405
골굴사	청소년 · 일반	선무도 화랑수련회	7.1~8.31(수시)	(054)744-7689
부석사	누구나	산사예불체험	연 중	(054)633-3464
청암사	어린이 · 일반	7일 철야기도	6.30~7.20(2회)	(054)437-0038
대원사	어린이	수련법회	7.21~23	(054)858-2630
직지사	어린이 · 중고생 · 일반	단기출가	7.2~8.9(7회)	(054)436-6174
은해사	초 · 중고생 · 일반	산사수련회	7.21~8.3(3회)	(054)335-3318
관음사	어린이	여름불교캠프	7.25~27	(064)722-2829
원명선원	일반	수련회	7.23~8.17(3회)	(064)755-3322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지은이 **감산** (憨山, 1546~1623)스님은 운서 주굉,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효 실천의 날 행사 개최

현성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22일 혜명 양로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하는 효 실천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일주문



동국대 총동창회장 재취임

류주형 고려아연 대표는 13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 22대 총동창회장에 재추대됐다.



여름불교학교 특강 열어

정여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은 28일 부산불교회관 7층 선방에서 여름불교학교 특강을 실시한다.



동화사 화엄논강서 강의

해월 대구 동화사 승가대학 강주는 21일 동화사 화엄논강에서 '화엄경의 연기론'에 대해 강의했다.



전국노인생활체육대회

선상규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장은 18일 장충체육관에서 제14회 전국노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강화 보문사 주지 선임

석봉 前 봉선사 재무국장은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으로부터 강화 보문사 주지로 임명됐다.



요통 무료 세미나 개최

덕운 서울 덕운선원장은 28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요통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02)3487-2311



경내서 봉탑법요식 봉행

리선행 마음의 쉼터 죽림산사(이사장 이범균) 지도법사는 21일 경내에서 봉탑법요식을 봉행했다. (033)3456-008



삼존불 점안 · 개원법회

법광 인천 달마선원장은 15일 경내에서 삼존불 점안법회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032)541-7985



박물관 · 미술관 학예사 연수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23~2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박물관 · 미술관 학예사 실무연수'를 개최한다.



한국대학홍보협 회장 선출

신관호 동국대 홍보실장은 12일 제주 서귀포 풍림콘도에서 개최된 한국대학홍보협의회 2003년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때 그사람 지금은

'삼풍' 17일만에 구조된 ***박승현*** *씨*

"천수암서 봉사하며 아픈 기억 지워요"



"그때의 기억을 평생 잊진 못하겠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2명의 생명을 앗아간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17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최후의 생존자' 박승현(28 · 사진) 씨. 사고당시 삼풍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했던 박 씨는 '더 이상의 생존자는 없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을 깨고 기적처럼 구조돼 매스컴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산재근로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에 참석한 인연으로 96년부터 5년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박 씨는 요즘 서울 길동의 집 근처 천수암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간단한 법당 청소부터 몸 져 누운 신도를 간병하는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박 씨. "삼풍 사고 이후로도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는 그는 "요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며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벌써 8년이나 흘렀는데 가끔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 개인이 아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준 교훈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전쟁 · 기아문제 해결 함께 앞장서자"

서옹 스님, 신임 스리랑카 대사 접견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은 15일 방장실에서 신임 주한 스리랑카 비제야시리(Wijayasiri) 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서옹 스님은 "한국과 스리랑카 불자들이 전쟁과 기아 등 세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비제야시리 대사도 "스리랑카는 한국 불교계와의 교류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광태 한국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백양사 주지 두백 스님, 방장 서옹 스님, 지베야시리 스리랑카 대사, 호산 스님.

"불교계 기자 각자가 포교사 · 호법신장"

법장 스님, 불기협 연수회에 참석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원우)는 14~15일 경기도 광주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 수련원에서 연수회를 개최했다. 60여명이 참석한 연수회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법장 스님의 법문, 산행, 레크리에이션, 친교의 시간 등으로 이뤄졌다. 법장 스님은 "불교계 기자들은 불교를 알리는 포교사요 불교를 지키는 호법신장"이라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활인(活人)의 필봉을 당부한다"고 법문했다. 스님은 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법의 종단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용화사서 법홍 스님 100일재



지난 3월 10일 원적한 전 원효종 종정을 지낸 제10대 해동율사 법홍 스님의 100일재가 18일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에서 봉행됐다. 법홍 스님으로부터 율맥을 전수받은 수진 스님은 "해동율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100일재를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산정사 와불 기공 및 월인천강곡 발표



밀양 영산정사(조실 경우)는 15일 세계 최대와불 기공식과 월인청강곡 발표회를 가졌다.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기공식에서 경우 스님은 "120m 크기의 세계 최대 와불을 조성하는 불사는 불교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7개 불교시민단체 지원금 전달



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은 19일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불기 2547년 불교시민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7개 단체에 지원금을 전달했다. 법장 스님은 "불교의 대사회적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선정단체는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원회 등이다.

'서예의 線에 禪정신…' 윤상민 씨 첫 개인전

서도의 '선(線)'에 불교의 '선(禪)' 정신을 담는다는 평을 받고 있는 서예가 윤상민(왼쪽에서 다섯번째) 씨의 첫 개인전 '청우 윤상민 서전'이 19~25일 인사동 백악예원에서 열렸다. 19일 개막식에는 원로 서예가 김진화 씨(왼쪽에서 세번째)와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도자엔 지혜로운 화술 필수

'노무현 화술과…' 펴낸 이현정 아나운서



올해로 경력 15년차인 불교방송 이현정(41) 아나운서는 최근 이 시대 지도자층이 갖춰야 할 '올바르게 말하기' 조건과 테크닉을 담은 <노무현 화술과 화법을 통한 이미지 변화>(가림출판사)를 펴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 어떤 언변을 펼칠까, 그가 가진 화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이 책에서 이 씨는 노무현 대통령 화술의 장단점을 파헤쳐가며,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미술학도였던 이 씨는 한때 '말문을 닫고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혼 후 아나운서로 변신하면서 스스로 '말 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말을 잘 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신의 어법을 분석하는 일 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 씨는 "상대방이 내 생각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잘한 말'"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출신의 연구팀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대실 박사팀)이 황삼 EX를 개발하였습니다

항암효과 산삼보다 70배 높아

KBS(9.30 뉴스)



산삼 성분 만든다(2003. 04. 09)

皇參 황삼

특허출원 제 2000-59857호



산삼은 잊으십시오. 이젠, 황삼입니다!

천단 유전공학 및 효소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탄생시킨 **황삼**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과학기술이 이루어낸 생명공학의 쾌거입니다. 생명공학으로 캐낸 산삼 - **황삼**과 함께 건강 백세의 꿈을 이루십시오.

- 산삼능가하는 항암효과 "황삼 EX개발"(매일경제 3월 27일)
- 산삼능가하는 항암물질 개발(한국경제 3월 27일)
- 항암효과 "황삼 EX개발"(한국일보 4월8일)
- 산삼능가 항암효과물질 "황삼 EX개발"(연합뉴스 3월 27일)

산삼과 황삼 진세노사이드 비교

Rb_1(13배), Rg_1(16배), Rd(23배)

◆ 수술 전후 환자분 ◆ 원기회복
◆ 수험생 노약자 ◆ 직장인 스트레스 받는분
◆ 면역 증강이 필요하신분
◆ 건강 장수를 누리고 싶은분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생명공학으로 캐낸 산삼!!

ILDONG 02)455-6944(代) 제조원 : 일동제약 식품사업부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믿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오직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인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오가피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20여년을 하루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오가피를 키워온 성광수씨의 정성! 믿을 수 있는
수신토종오가피의 신념입니다.

기술이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신토종오가피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내유일의 정부출원 바이오전문연구기관)과
함께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인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에 대한 연구를 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태극전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1년전 온국민이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1년전 전세계가 대한민국에 감동했습니다.
월드컵 4강신화를 이뤄낸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오가피는
오직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사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전화주세요! (02) 446-4422

"한조각 향 정성으로 바치오니…"

봉원사서 영산재이수자 첫 평가 시연회

'봉헌일편향(奉獻一片香, 한 조각 향이오나 정성으로 바치오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영산재 이수자를 선정하는 첫 무대가 마련됐다.

20일 서울 봉원사(주지 인공)에서 열린 '2003년 영산재 이수평가 시연회'는 범패 분과(현수 · 현준 · 보운 · 정오 · 법안 · 와룡 · 청봉 · 효광 · 태허스님) 9명과 범무 분과(법우 · 미산스님) 2명 등 총 11명의 전수생들이 이수자가 되기 위해, 준보유자 구해스님을 비롯, 전수교육보조자 일운 · 기봉 · 송강스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자리였다.

시험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본이 되는 재인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 상단의식(上壇儀式) 할향(喝香) 중 봉헌일편향(奉獻一片香), 저승에 있는 10대왕에게 자비를 비는 의식인 시왕각배재(十王各拜齋) 개계(開啓) 중 비수(備水)소리, 국가의 안녕과 군인들의 무운장구 · 큰 단체나 죽은 자를 위한 영산재(靈山齋) 향화게(香花偈) 중 원차(願此)에서 출제됐다.

범패 9·범무 2명 등 스님 11명 참가
홋소리·화청등 갈고 닦은 기량 발휘

범패 분과에 도전한 전수생들은 홋소리와 짓소리, 화청 등을 섞어가며 그 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냈고, 범무 분과에 도전한 전수생들은 천수바라를 추며 녹록치 않은 기량을 선보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의 심사를 거쳐 이수자가 되면 문화재청의 기량조사와 평가를 받은 후 전수교육보유자 · 보유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수평가 시연회 결과는 올 가을 쯤 나올 예정.

행사에 앞서 영산재보존회 회장 인공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응스님의 입적으로 73년 영산재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된 이래 30년 동안 영산재 복원과 계승에 힘써온 '영산재 1세대'가 모두 역사 속에 묻혔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원형을 기억하고 있는 스님들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해 보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장(魚丈, 영상재 작법에 달통한 이를 이르는 말)이었던 일응스님이 올해 5월 11일 입적함에 따라 보유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전수교육보유자 4명, 이수자 18명만이 영산재의 명맥을 잇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혜성스님등 여성성직자 '새만금' 도보순례

혜성스님(대원사), 오영숙(새만금생명평화연대 집행위원장) · 김현옥 수녀(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사무국장) · 김근자 수녀(성심수녀회), 양영인 교무(유린교당), 박후임 목사(기독여민회 회장) 등 6명의 여성성직자들이 20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출발, 성남-논산-익산 등을 거쳐 7월 1일 오후 4시 해창갯벌에서 회향하는 도보기도순례에 나섰다. 사진=박재완 기자

북한산도로 공청회 무산됐다

고총리 "공정성 의문" 불교의견 수용 취소지시

19일 예정됐던 북한산 공청회가 객관성과 공정성 의혹으로 무산됐다.

17일 고건 국무총리를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객관성 없는 사회자 선임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장 불참 ▲현 노선 찬성자를 토론자로 섭외 ▲공청회 순서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경위 설명' 삽입에 따른 객관성 상실 등을 거론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불교계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노선재검토위의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청회 취소를 지시했다. 또 총리실 관계자는 대안으로 조계종이 제안한 '노선재검토 위원을 토론자로 하는 공개 토론회'와 이를 통한 여론 수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세영스님(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황현호 의정부참여연대 홍보국장, 목영대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지구당 위원장 등은 16일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실이 기존 안 대로 공청회를 추진한다면 어떤 결과도 승복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이와 관련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25일 오전 11시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남동우 기자

'김태복장군 사건' 새 국면

국방부, 군검찰에 재조사 지시

석탑 현물시주가 현금수수로 둔갑한 김태복 장군 건이 국방부가 재조사를 지시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유보선 국방부차관은 17일 김창해 법무관리관에게 김태복 장군 건과 관련, 유죄부분(2천만원 선고유예)에 대해 객관적 시각으로 군 검찰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태복 소장 명예회복 불교대책위원회 정산스님(조계종 교육부장)은 "군 당국이 유죄부분을 객관적으로 재조사를 지시한 것은 군이 민주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김태복 장군도 "불교계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이남기 전 공정위장 24일 선고공판 열어

19일로 예정됐던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검찰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2일 보강증거 제시 등을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이에따라 재판부(재판장 김병운)는 13일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24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열고 심리를 갖기로 결정했다.

김철우 기자

재가연대, 새 단체복무규정안 제시

육아휴직 '일반' · '시간제' 중 택일 매 2년마다 1개월 연구휴무 도입

영 · 유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생후 3년이 되는 날까지 5시간을 기본 단위로 2가지 유형(9시부터 14시까지, 14시부터 19시까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휴직기간에 급여의 70%를 받는다면?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가 불교계 단체의 복무규정의 새 안을 제시했다.

재가연대는 16일 열린 17차 집행위원회에 '사무처 복무규정(안)'을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 '일반제 육아휴직'과 '시간제 육아휴직'제도로 구분했다. 시간제 육아휴직의 경우 영 · 유아가 출생한 날부터 생후 3년이 되는 날까지 5시간을 기본단위로 2가지 유형(9시부터 14시까지, 14시부터 19시까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휴직기간에는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전문성 제고와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매 2년마다 1개월의 연구휴직 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연구휴직' 제도도 마련한다. 연구휴직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재직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휴직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영철 재가연대 사무처장은 "불교계의 사찰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의 현실을 감안해 활동가들의 복지표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목탁소리

법장스님과 e메일



한명우 (취재1부 차장)

18일 법장스님으로부터 기자에게 이메일이 배달됐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감없이 해달라"는 것이 요지였다.

법장스님은 최근 총무원 출입기자들과 종무원들에게 이메일 주소(bubjang@buddhism.or.kr)를 공개하고 종단 제반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법장스님은 또 총무원장 선거 당시 활용했던 개인 홈페이지를 개편, 이번 주 내로 개통해 본격적으로 종도들과 만날 계획이다. 총무원장과 종무원, 종도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대화하는 체제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렇게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듣겠다고 한 것은 종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과거 어느 총무원장도 종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기대가 크다.

총무원 밖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종단운영에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적 비방이나 무분별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종단의 건전한 기풍을 위협할 위험성도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홈페이지가 자유스런 '대화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함은 물론이고, 종도들도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문화재청 승격 9월 국회서 논의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에 대한 논의가 다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회기때 심의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의 고유권한인 만큼 행자부가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권형진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백 중 기 도

8월 12일(음 7월 15일)은 백중으로
불교계에서는 우란분절이라고도 하며 효사상을
일깨우는 뜻깊은 명절입니다.

백중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선망 혹은
현세 부모 등 조상을 위한 천도제를 비롯해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인연따라 꼭 동참하시어
다생겁래의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무진복락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우면산 청정 수원 관음도량 관 문 사
■ 주 지 : 변춘광 스님
■ 입 재 : 7월 6일(일) 오후 2시 (이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백 중 : 8월 12일(화) 오전 9시
■ 문 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02)3460-5300

대한불교조계종 정 각 사
■ 주 지 : 광우 스님
■ 입 재 : 양력 8월 4일(음력 7월 7일)
■ 백 중 : 양력 8월 12일(음력 7월 15일)
■ 문 의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02)742-1231

대한불교조계종 보 명 사
■ 주 지 : 상호 스님
■ 기도입재 : 2003년 6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 기도회향 : 2003년 8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 문 의 : 서울시 관악구 신림3동 610-281 02)855-2834

조상령천도 및 백중기도법회 봉행
■ 주 지 : 정영도 스님
■ 입 재 : 6월 22일(음 5월 23일) 오전 9시 30분 ■ 회 향 : 8월 10일(음 7월 13일)
■ 백 중(우란분절) 법회 봉행 8월 12일(음 7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 문 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033)682-8100~2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백중 49재 지장 천도기도
■ 주지 : 원경 스님
■ 6월 25일(음 5월 24일) 49일간 기도 입재 AM 11시
■ 8월 12일(음 7월 15일) 7재 천도법회
■ 문 의 : www.simgokam.org 02)914-8860
북한산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심속의 아름다운 절! 심 곡 암

한국불교태고종 능 하 사
■ 주 지 : 성연 스님
■ 백중 : 양력 8월 12일(음력 7월 15일)
■ 문 의 : 서울 마포구 공덕1동 118-4 02)701-7488

49일 백중기도
■ 주 지 : 가섭 스님
■ 입 재 : 양력 6월 25일(수)
■ 백 중 : 양력 8월 12일(화)
■ 문 의 : cafe.daum.net/kasup 031)719-0408
수미산 불 국 사

49일 백중기도
■ 백중기도 입재 : 2003년 6월 25일 ※ 1000일 지장기도 정진중
■ 문 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호
종무소 02)521-1415, 주지실 02)583-1080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사성암 서울포교원 보현정사

진각종, 지방교구청 역할 강화

통리원, 지방과 유기적 종무체계 형성

기획·총무·포교 관장 직무스승제도 도입

행정·재정 집행권 등 '지방청' 대폭 이관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이 지방 교구청을 활성화와 지역 포교방안 모색에 나선다.

진각종은 17일 서울 통리원 회의실에서 제217회 원의회를 열고 중앙과 지방 교구청의 유기적인 종무체계를 갖춰 나가기 위한 교구 직무스승 제도 시행 규정을 마련했다.

교구 직무스승 제도는 지방 교구청장 아래 기획, 총무, 포교 등 종무를 관장할 스승을 새롭게 두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진각종조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 사업으로 제시했던 지방 교구청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교구청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행정은 물론 포교, 재정 집행권까지 지방 교구청으로 이양한 점은 종단의 변화를 기대하는 종도들에게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원의회에서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중앙종무기관에 집중된 종무행정과 포교, 예산 등의 권한을 각 교구청으로 이관,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포교방안을 연구·개발하고 승단의 화합과 종단발전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직무스승은 6급 이상의 행계(법계)를 지닌 스승 가운데 지방 교구청장이 선발하고 통리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지방 교구청장과 통리원장에게 선발과 임명권을 별도로 부여해 적절한 인사 균형을 이루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경주, 포항 등 지역별로 교구청 실정에 맞는 직무를 신설해 인력을 배치한다. 또 통리원에서 일괄적으로 행사하던 재정의 집행권을 점진적으로 지방 교구청을 이양해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 교구청은 자율적인 인력·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포교, 교육 프로그램도 갖춰 나간다.

한편 진각종은 26~27일 경주 산내연수원에서 통리원과 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승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구 직무스승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각종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종단에서도 지방 교구청 역할 증대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종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으로 종단 발전과 밀교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교구청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성남 다목적복지회관

천태종 복지재단, 수탁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운덕)이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에 소재한 성남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어린이·장애인·노인 복지 분야에 참여해 왔던 천태종 복지재단은 청소년·여성으로 범위를 넓혀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7월 1일부로 위탁 운영을 맡게 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 대지 258평에 연면적 462평의 규모를 갖춘 복지시설이다. 1층에는 다목적실, 사무실, 주민쉼터가 마련돼 있으며, 2층은 인터넷방, 방과후 교실, 문화교실 등 청소년 복지시설이 구비됐다. 3층에는 컴퓨터 교육실, 문화교실, 유아보호실, 상담실 등 여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천태종 복지재단 정책실장 시용스님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불교와 종단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각종 창교 역사적 의의' 세미나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은 17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진각종 창교절 56돌 기념 밀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진각종 창교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김경집 진각종 종학연구실 연구원이 '창교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장익 위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가 '진각종학의 불교학적 기반'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경정 밀교문화연구원 원장은"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종조님의 참뜻을 더욱 받들고 스승님들에게는 배움의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동함사 대웅전 상량식 봉행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종정 무찰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인천 동함사는 18일 대웅전과 명부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무찰스님의 고희를 축하하는 법회를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동봉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무찰스님은 "종단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종도들이 뜻을 모아 불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VIYA 연합캠프 개최

비로자나청소년협, 27일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협회(회장 혜명)는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에 맞춰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경주 산내연수원에서 'VIYA 연합캠프'를 개최한다.

비로자나 청소년협회의 각 지부 회원을 비롯해 동아리 회원, 진각종 교구청 학생회 회원, 심인당 및 진각종 종립학교 청소년 등 250여 명의 청소년들과 5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가하게 될 이번 연합캠프는 경주 단석산을 찾아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공동체의식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춘천 삼운사는 종합불교회관 대불보전을 완공, 강원불교 포교의 새 지평을 열어간다.

춘천 종합불교회관 삼운사 완공

천태종, 법당·유치원·공연장등 갖춰

천태종 춘천 삼운사가 4년 6개월여의 불사를 마무리 하고 강원불교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간다.

춘천시 후평1동 590-18번지에 소재한 삼운사는 23일 종합불교회관 대불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대지 1,700여 평 지상 4층 연건평 2,000여평 규모의 삼운사 종합불교회관은 2,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법당(300평), 공연장, 유치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다도실, 강당 등은 춘천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대회의실, 세미나실 등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주지 월도스님은 "사찰은 불자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어야 한다"며 "어르신들에게는 즐거운 여생을, 장년층에게는 힘찬 활력을, 젊은이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는 사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춘천=박봉영 기자

종단소식

동방불교대 홈피 개통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혁)은 최근 학교 홍보와 사이버 포교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bang.org)를 개통했다. 홈페이지는 알림마당, 관련학과, 경전강좌, 불교문화, 불교사, 갤러리, 커뮤니티 등을 기본 콘텐츠로 구성됐다. 교학처장 법현스님은 "앞으로는 실시간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천태종 청년불자들의 모임 '청화'는 27일부터 29일까지 구미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5회째 진행되는 이번 봉사활동은 '사랑과 봉사로 아름다운 청화'라는 주제로 열린다. 회원들은 구미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과 구미 금룡사에서 관음정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각종 창교절 기념불사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14일 제56주년 창교절을 맞아 서울 총인원 탑주심인당 등 종단 산하 전국 심인당에서 기념불사를 봉행했다. 탑주심인당에서 열린 기념불사에서 효암 통리원장은 "진각종이 밀교 중흥종단으로 수행과 교법을 호지하고 사회적 실천행을 통해 밀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자"고 다짐했다. 한편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은 12일 진각종 창교절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게 시 판

행사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26일 상계동 사천왕사에서 제17회 자원봉사시민대학 수료식 및 불교자원봉사단 발족식을 갖는다. 또 2003년 가을학기 제18회 자원봉사시민대학은 오는 9월 1일 개강한다. (02)723-6258

▲답사기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29일 엄마와 함께 하는 교실 밖 역사공부를 강원도 철원 도피안사, 제2 땅굴, 철의 삼각전망대, 노동당사 등으로 떠난다. 출발은 당일 오전 7시 30분(지하철 3호선 양재역). 참가비 어른 3만8천원, 어린이 3만3천원. (02)725-1284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27~28일 이틀간 경기 양평밸리로 '여성장애인 가족 MT'를 떠난다.

모집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장애노인 그룹재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용대상은 은평구내 뇌졸중이나 장애어르신가족, 장애가족. 프로그램은 장애별 집단치료, 수동운동, 능동운동, 저항운동, 기능회복훈련 등이 진행된다. 시간은 격주토요일 오전 10시~12시. (02)385-1351

▲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여름방학 기간동안 경로당 어르신들과 여가체험을 함께 할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6월 28일까지. 대상은 중·고교생(선착순 32명)으로, 기간은 7월 28일~8월 22일(금). 활동 내용은 노인유사체험, 경로당 방문. 사전 교육은 7월 23일, 신청자 전원 필히 참석. (031)455-0551

▲서울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 입욕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정기적으로 봉사하실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녀. 활동시간은 여자 수요일 13:00~16:00, 남자 목요일 13:00~16:00 (02) 929-7950

구인 ▲태고종 총무원이 종무 직원을 채용한다. 모집 분야는 일반 종무직, 동방대교학처, 한국불교신문사 기자. 응시 자격은 25세 이상 35세 이하로, 대졸 학력 이상의 남자 불교 신도. 선발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02)745-2030

인사 ▲동국대 백경남(정치외교학과), 고유환(북학학과), 경기대 김재홍 교수는 18일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국가발전전략분과 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모입시다 젊은 禪僧들이여!

在來의 禪房 修行制度로는 앞길이 遙遠합니다.
一日不作이면 一日不食의 百丈스님의 淸規를 現代에 맞도록 고쳐가며
徹底한 修行이 몸에 배도록 고락을 3年 式만 나와 같이할 禪僧들을 모십니다.
期必코 修行의 탄탄한 大路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耕心會는
禪體驗에서 自由自在한 禪生活을 할 수 있는 禪僧 輩出의 目的을 두고있다.

耕心會 禪院의 指導要領
● 3年을 授業 年限으로 하고 어디에서든지 禪 修行을 할 수 이는 基本敎育指導
● 于先 宗敎와 哲學과 科學의 三位一體의 一元化 敎育指導
● 宗敎로서 佛敎信仰의 方法論
● 佛敎 空思想의 禪哲學 指導
● 禪修行의 實修法 指導
● 一擧一動이 禪 修行이 되도록 自給自足에 힘써서 一日不作이면 一日不食의 白丈스님의 淸規를 우리들 修行生活에 맞도록 指導해갈 方針 입니다.
● 健康生活과 禪修行이 一致되도록 健康管理도 깊이 생각하는 모임입니다.

耕心會 入房資格
● 資格審査選別로 合格者만 入房시킴, 于先10名 정도 募集하고, 앞으로의 動向은 紙面을 통해 알려 들리겠습니다.

耕心會 禪修行 指導法師 通度寺 侍塔殿 住錫 皓溟 老스님
(직통) ☎ 055-382-3225 (연락처) 017-565-0052
雲興寺 住持 兼 耕心會 禪院長 野 隱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련리 1699-1 ☎ 052-260-2317

HAMBAKJAE
함박재 가시오가피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 입니다.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자
강 훈 구 대표

함박재 농장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재배한
100% 국내산 입니다.

20년동안 국내산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함박재농장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산56)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다릅니다!
■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 가시오가피
러시아,중국에서도 국가에서 적극 보호하는 국가보호수입니다.
■ 진품을 구하기 힘든 가시오가피
미국 대체의학의 제1인자인 안드류 와일 박사는 가시오가피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 최고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국내산 가시오가피
독일 뮌헨대학의 천연물연구소 소장인 바그너박사는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유효성분이 러시아, 중국산보다 4~6배 많음을 발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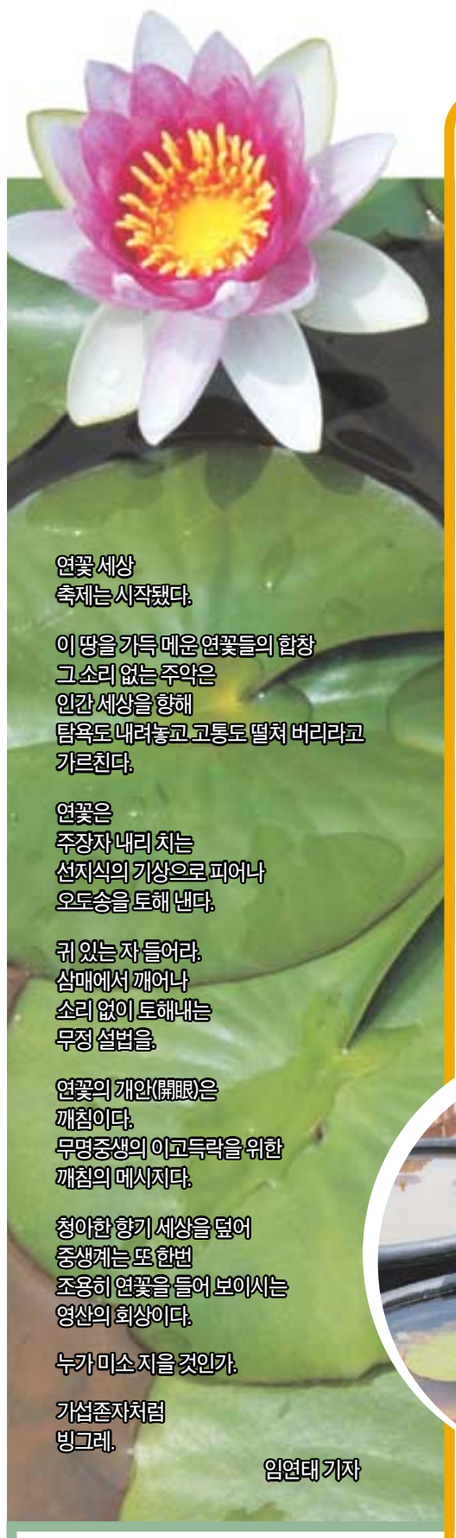
자매품 함박재 토종오가피
함박재농장에서 재배한 100% 국내산입니다.
1박스 100㎖ x 60포, 132,000원

2년 연속 으뜸상품 선정
한국표준협회, 으뜸상품 제3068호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02) 2274-2191

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연꽃 세상
축제는 시작됐다.

이 땅을 가득 메운 연꽃들의 합창
그 소리 없는 주악은
인간 세상을 향해
탐욕도 내려놓고 고통도 떨쳐 버리라고
가르친다.

연꽃은
주장자 내리 치는
선지식의 기상으로 피어나
오도송을 토해 낸다.

귀 있는 자 들어라.
삼매에서 깨어나
소리 없이 토해내는
무정 설법을.

연꽃의 개안(開眼)은
깨침이다.
무명중생의 이고득락을 위한
깨침의 메시지다.

청아한 향기 세상을 덮어
중생계는 또 한번
조용히 연꽃을 들어 보이시는
영산의 회상이다.

누가 미소 지을 것인가.

가섭존자처럼
빙그레.

임연태 기자

연꽃의 계절, 축제는 시작됐다

연꽃 축제 해마다 늘어 올 10곳 이상

전국의 연못과 연 밭이 설레고 있다. 짙푸른 잎과 줄기 사이사이로 연꽃의 만발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연못의 수련은 이미 앙증맞게 눈을 뜨고 7월의 햇살을 머금으며 드높은 향기를 뿌려대고 있다.

연꽃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길도 바쁘고 축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연 밭의 푸르른 설렘을 닮아 있다. 올여름 연꽃 축제가 열리는 곳은 10곳이 넘는다. 6월 말에 시작되는 연꽃 축제는 8월 말, 혹은 9월 말까지 계속된다. 해마다 늘어나는 연꽃 축제, 바로 연꽃의 아름다움과 그윽한 가르침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연꽃 축제는 백련과 황련, 청련, 홍련이 만발하는 연 밭이나 방죽에서 열리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수련을 수반에 담아 전시하며 각종 이벤트를 곁들이는 형식으로 열리기도 한다.

상록리조트 350종 선보이며 모종도 보급

천안 상록리조트가 마련하는 제1회 세계 연꽃 축제의 경우, 350종의 다양한 연꽃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며 각종 이벤트에도 동참할 수 있는 대규모 잔치마당이다. 수려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50만평 규모의 대형 국민 레저 시설인 상록리조트는 1200개의 수반을 공원의 중심부에 집중 배치해 두고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백련과 홍련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인공 연못도 만들었다.



전시되는 연꽃은 우리나라 자생연꽃 36종을 비롯 인도, 일본 등에서 들여와 재배에 성공한 각종 수련들이다. 공주대학교 서승연(생물학과)교수와 차기천 목사등 기독교 공주 원로원의 원로 목사들이 재배했다. 이미 5월 초부터 수반에 모종을 식재해 정성스럽게 가꾸어 6월 중순을 넘기며 연꽃들이 만개했다.

개막식은 6월 29일 오전 11시. 각 종단 대표와 지역 기관장, 천안 사암연합회 소속 사찰 스님과 신도, 충남종교인협의회 소속 성직자, 주민 등 2천여 명이 축제의 문을 여는 개막식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85일간 계속되는 이 축제에서는 연꽃 모종도 보급한다. 사찰과 집 정원의 연못이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쉽게 키울 수 있도록 상세한 재배법도 설명한다. 불교문화 상품코너에서는 각종 캐릭터 상품과 신행용품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또 축제 기간 중에는 연꽃 사진 전시회와 사진 찍기 대회, 연꽃 차 시음, 다도 시연 등 다양한 행사도 곁들여 진다. (041)560-9132

전국은 연꽃잔치 준비로 '들썩'

연꽃 축제는 전국에서 골고루 열리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가볼 수 있다.

신촌 봉원사의 경우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사찰 연꽃 축제다.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봉원사 대웅전 앞마당을 찾아가면 수반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연꽃과 연꽃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다. 주말에는 연산재 공연도 펼쳐진다. (02)392-3007

강화 선원사도 첫 연꽃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7월 16일부터 10일간 인근 연못에서 열리는 '논두렁 연꽃 축제'에서는 연잎과 연을 재료로 한 식품들도 맛볼 수 있다.(032)933-8234.

부산지역인재개발원이 마련하는 연꽃 박람회는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마련을 위한 잔치다. 7월 15일부터 9월30일까지 메가마트 남천점 옥외 광장과 사상 르네시뜨 6층 이벤트 홀에서 동시에 열린다.(051)247-7012. 대전 엑스포 공원에서는 엑스포 10주년을 기념하는 '한여름 세계 연꽃축제'가 6월 14일 시작돼 8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전북 정읍시는 8월 중순에 보물 289호인 피향정 앞 3천여평 연못에서 여섯 번째 연꽃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063)535-5141.

백련 보급의 원조인 아산 인취사도 8월 중 '백련 시사'를 열고 연 밭은 항시 공개한다. (041)542-6441. 김제 청운사는 6월 28일부터 연꽃 축제를 시작해 각종 전시회와 백련차 시음회를 곁들이고 주말 오후(4시)마다 음악회도 연다.(063)-542-8643. 전남 무안군도 제7회 무안백련대축제를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로 연꽃방죽에서 개최한다. 연꽃 수궁전 공연과 행다 시연 등 문화행사와 각종 먹거리 장터도 열린다.(061)450-5226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interview

상록리조트 김건회 사장



종교 초월 인간에 주는 교훈 무궁무진
종단협 공식후원, 법장스님 "성공기대"

레저 시설로서는 처음으로 연꽃을 주제로 하는 축제를 개최하는 천안 상록리조트. 350종의 연꽃을 1200개의 수반에 담아 전시하는 대규모 축제를 준비하는 직원들은 날마다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다. 식재한 연꽃의 발육 상태 점검에서 수반의 배치, 각종 행사 준비와 홍보 등 산더미 같은 일들을 감당해 내면서도 직원들은 늘 연꽃 같은 웃음이다.

상록리조트 김건회 사장은 "처음에는 우리 시설의 홍보와 연꽃의 수질 정화 기능 등 환경교육 차원에서 기획했는데 축제를 준비하면서 연꽃이 종교를 초월해 인간에게 주는 교훈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연꽃 축제가 환경교육과 깨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연꽃 축제를 기획하면서 최근 3개월 동안 그의 머리속에는 온통 연꽃에 대한 생각뿐이라고 한다. "연꽃축제로 인해 우리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 준비 사항을 체크 한다"는 것.

김 사장은 "올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부대행사를 대폭 늘리고 야생화전시회 등도 추가해 축제 규모를 키워 나갈 계획"이라며 불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축제를 만들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19일 오후 1시 김 사장은 불교종단협의회 상임 이사회에서 이번 축제를 설명했다. 종단협은 축제를 공식 후원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방문, 축제 준비상황을 보고 했다. 법장스님도 "좋은 축제를 위해 애쓰고 있는 만큼 보람도 있을 것"이라 격려하며 축제의 성공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약속 했다.

연꽃축제 기행 "함께 해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연꽃축제. 하루에 다 갈수는 없을까? 현대불교신문사가 3곳의 연꽃 축제를 하루에 기행 하는 테마 기행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스님의 법문이 함께 하는 연꽃 축제 기행, 올 여름 불자님의 신심에 연꽃향기를 가득 채워 드릴 것입니다.

기행 코스

김제 청운사
연 밭 6천 여 평을 가득 채운 백련 감상 및 연꽃 차 시음 및 구매

아산 인취사
백련 보급의 원조인 인취사 연 밭과 주지 혜민 스님의 '연꽃 법문'

상록리조트 제1회 세계연꽃 축제
350여 종 연꽃이 한자리에 모인 최대의 연꽃 축제 관람 및 연꽃 모종 구입

기행 일시 및 인원

7월 12일(토)오전6시~오후8시. 선착순 200명
7월 19일(토)오전6시~오후8시. 선착순 200명

참가비
4만 5천원(아침, 점심식대, 입장료 포함)

참가 방법
전화신청 (732-1520)→참가비 입금(농협 053-12-113210 예금주, 하동규)-입금 확인(본사에서 전화 드립니다)-좌석배정- **당일 오전 6시**까지 조계사 앞 집결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전문 불자복지사 양성 '발등의 불'

불교복지인력 현주소

불교복지가 그간 양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교적 마인드를 갖춘 사회복지사가 시급히 양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복지법인들이 사업방향을 자체 시설 건립으로 전환, 자기 프로그램 개발과 설립 이념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의 중점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주먹구구식의 인력양성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뜯어고쳐 불교복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선현장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불교사회복지사를 양성해야 하는가. 그 필요성과 불교복지 인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복지부 등록 전국 단위 종교복지법인

	불 교	천주교	개신교
전체시설 수	115곳	620곳	2,000여 곳
종사자 수	1,820여명	8,928명	30,000여 명
종사자 종교 일치율	48%	65.4%	8~90%

6개 대학서 연 100명 졸업 … 교계취업 50%

천주교 · 개신교 경우 61개 대학서 매년 3천여명 배출

대학 · 법인 · 종단 참여 인재풀 가동 바람직

◘ 수탁위주 사업, 인력양성 '필요성 못느낀다'

6월 현재 불교복지법인의 시설수탁의존률은 89.6%(103곳). 이는 개별 시설법인을 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단위 법인인 조계종 · 천태종 · 진각종 · 총지종의 산하시설 115곳에 대한 위탁시설 비율로, 이들 법인 절대 다수가 자기 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치다. 불교복지가 그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시설 위탁에 치중한 사업을 벌여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수탁위주의 불교복지 사업 전개는 불교복지 인력양성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했다. 대부분이 위탁 · 운영시설이다보니 불교복지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운용 자체도 힘들게 되고, 심지어 불자복지사를 채용할 필요성까지 못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교적인 자체 복지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아, 불교복지의 전문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턱없이 부족한 종립대 사회복지학과 수도 불교복지 인력양성에 제약이 되고 있다. 불교종립대에서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 곳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동국대 불교대학원 및 행정대학원, 위덕대, 중앙승가대, 올해 개교한 금강대 등 총 6곳. 이들 교육기관에서 매년 100여 명이 졸업, 6~70%의 취업율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이 중 불교복지시설로의 유입은 평균 50%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반면 천주교 11곳, 개신교 50여 곳의 대학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사회복지사는 무려 3천여 명으로, 이들 3명 중 2명이 천주교 · 개신교 복지시설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북 B복지관은 위탁 · 운영하고 있는 스님은 "수탁체인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나친 행정 간섭을 받고 있는 처지에 종사자까지 불자들을 우선시해서 채용한다면 인사문제가 생긴다"며 "어차피 불교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아예 지역사회의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종교와 관계없이 지방대학 출신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불교복지사, 왜 양성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불교복지 전문성 제고에 있다. 이는 불교사상에 근거한 복지사업을 충실히 펼칠 수 있는 불교복지 인력의 원활한 수급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불교복지의 정체성 확보에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불교복지사업이 단순한 '자선사업'이 아닌 불교사상에 입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구축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동력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는 불교복지시설 종사자의 불교신자 비율과 타종교 복지시설에서의 종사자 종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가 전국 단위 불교복지법인 4개의 산하시설 종사자들의 불교신자를 조사한 결과, 총 종사자 1,820여명 가운데 불자는 48%(87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산하 시설 620곳의 전체 종사자 8,928명 중 65.4%(3,093명)가, 개신교는 3만여 종사자 중 7~80% 정도가 신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카톨릭 사회복지법인 박중빈 총무부장은 "천주교 복지는 자체 건립 시설이 75.8%에 달해 설립 이념에 따른 자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종사자를 선발할 때 신자들을 우대해 뽑았기 때문에 천주교 신도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인력양성 순환시스템' 만들어야

대학, 법인, 종단 등이 참여하는 불교복지 인력 활용을 위한 인재풀이 가동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교육-채용-취업 알선' 등이 순환되는 불교복지 인력양성 시스템으로, 인적 자원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단계별 · 통합적 접근 방식이다. 그간 개별적인 이들 기관의 활동을 '예비 사회복지인력' 양성 차원에서 집중,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불교계 복지법인 가운데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진각복지재단이다. 복지인력 양성 3원 체제를 구축 시스템은 위덕대가 사회복지학과 커리큘럼에 불교사회복지론, 불교사회복지세미나 등 관련 과목 4강좌를 개설해 복지인력 양성 전 단계를 책임지고, 진각복지재단은 이들을 우대 채용하는 한편 진각종은 위덕대와 진각복지재단 사이에서 취업알선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종사자를 위한 불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3개월 과정의 불교기초강좌를 수강토록 배려하고 있고, 상주냉림복지관은 철야정진 법회를, 사회복지 승가원도 종사자 불교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호걸 총무부장은 "불교사회복지사 양성시스템 구축은 불교복지의 질적 ·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핵심이 되는 과제"라며 "시설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중간관리자급도 포함된 '불교복지인력은행'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학생(좌)이 개별 가정을 방문, 상담실습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고 있다.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김순연
곰두리네 집
총무

미움도, 성냄도 벗어놓고

모자라고 힘들게 해도 '필요한 짝'

부족한 부분 메워주며 서로 아껴



등나무 넝쿨이 푸른 그늘을 만들어 주는 빨간 벽돌의 단층집. 하루 종일 투명한 아크릴 천장 위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들여다보던 해가 슬그머니 서산마루로 물러서면 정신지체 1급인 '장하다'가 제일 먼저 통학 버스로 달려간다. 그러면 그에게 뒤지지 않을세라 또 다른 아이들이 불편한 다리를 이끌며 달려가고, 퉁탕거리며, 엎어지고 넘어지는 소리. 그 소리에 맞춰 곰두리네집 노란색 통학버스가 부르릉 시동을 건다. 곰두리네 집 하루의 문은 이렇게 시끌벅적한 소리로 닫힌다. 오늘도 무사했다는 소리이다. 가슴을 쓸어내려도 되는 시간이다.

어쩌다 손님이 방문하여 상담 때문에 잠시 현관문 잠그는 것을 잊으면 그새 '재민'이가 없어지고, '대원'이도 사라져 동사무소로 비상이 걸리고, 곰두리네 집 식구들은 골목골목 찾아다니며 마음이 새까맣게 타 들어간다. 장애인주간보호소인 곰두리네집 아이들은 모두 정신지체아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방심을 하면 거리로 뛰쳐나가기 일쑤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과 중에는 현관문을 잠그는 것인데, 우리 집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을 잠궈 놓고 뭐 하느냐'고 따져 묻는다. 마치 우리가 장애인 학대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는 눈초리다.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니 우리들이 받는 오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신지체아들이라고 해서 전혀 사회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가 질펀하게 싸놓은 똥을 지나가던 아이가 모르고 밟으면 선생님도, 친구도 때릴 듯이 달려든다. 그럴 때면 너는 훌륭한 아이라고 달래서 오히려 똥 싸는 아이와 짝을 지어주고, 화 잘 내는 아이에겐 반대로 말 잘 안 듣는 친구를 짝으로 지어 줘 인내심을 발휘하게 한다.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덜 부족한 부분으로 메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있을 자리에 언제나 있어야 하는 아이들. 똥 싸는 아이도 있어야 하고, 화 잘 내는 아이도 있어야 하고, 말 잘 안 듣는 아이도 있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짝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도 없으면 안 된다. 몸이 아파도 결석하는 아이가 있으면 곰두리네 집 팀웍은 곧 흐트러진다.

잠시도 조용한 순간이 없는 아비규환의 소란 속에서도 제짝의 신발을 신겨주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 내 가정의 자녀나 동생들에게 곰두리네 집 아동들에게 쏟는 정성 반만 들여도 대통령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미움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불심으로 뛰노는 아이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를 빌어본다.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안본」과 그「휴대용」발간 안내

■ 육임을 알때와 모를때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모를때 : 「… 무슨 일로 찾을꼬 -- ?」 알 때 : 「응, ( )일 때문에 왔구나!」	모를때 : 「… 왜 일이 꼬였을 꼬-- ?」 알 때 : 응, 전사귀(戰死鬼)가 침범해서 꼬이는 군!	모를때 : 「왜 병이 생겼을 꼬---?」 알 때 : 응, 사기 맞고 말을 못해 병이 되었구나!

■ 육임을 알면 이외 에도 지금 이 사람이 「무슨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무슨 부정빌미가 붙었는지」「누구 산소에서 탈이 났는지」「어떤 위해를 받아 병이 생겼는지」「지금 무슨 사정으로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미리 알게되고 해소법을 쓰게 됩니다.

■ 육임을 알면, 또 「어떤 방위로 떴 일날 이사 시켜야 형편이 펴질지」「묻는 목적사가 언제 이루어 질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게 됩니다.

■ 먼저 말해 줄 내용은 앞면에 20여가지로 그날 만나는(전화온)시간마다에 써져 있고, 묻는 항목은 24가지로 뒷면에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 이 책 나온지가 3년이고, 면밀히 수정보완되어 그 정확도가 검증되어 있으며, 日語版까지 나와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먼저 말할 수 있게 되려면 육임10년을 공부해야만 될 것이나, 공부하지 않아도 쉽게 정확한 말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책이어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 이 책을 써보면 그 효과가 아주 커서 여러 측면의 도움이 있다는 것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 활인 천역자가 꼭 구비해 두어야 할 보서(寶書)임을 알려 드리는 바 입니다.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 값 2,500,000원 | **계 좌 :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 **휴대용 : 값 310,000원(각 旬별 전 6권 150×105×20mm)**

- 육임래정비법 350,000원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2,500,000원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310,000원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일어판 272,000円
- 육임강의록 상 하 증보판 410,000원
- 육임 신수비결 300,000원
- 육임비요 형이상법 150,000원
- 육임운명 판단법 130,000원
- 육임세밀 정단법 100,000원
- 육임 비디오 강의(28개) 900,000원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CD(ARA21 제휴) 2,000,000원
-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 효사숙 강의 접수중 (현 제 6기) 1,500,000원**
- **▶ 등록후 3개월 수강하고 회원육임고급강의를 본인 의사에 따라 매주 수요일 마다 오후 5시부터 3시간씩 계속 무료 수강하게 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강호제현께 알리는 말씀

효사 본인과 록평 김상연 선생과 한때 작은 오해가 있었으나 우리 두사람은 그런 오해를 불식 하고 육임학의 발전을 위해 공동 헌신 노력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록평 선생은 사주(四柱)공부를 훌륭히 하시고 좋은 책을 많이 만들어 후학들에게 큰 공헌을 끼친 분이고, 나 역시 이분의 저서를 많이 본 후학으로서 존경심을 가져 왔다. 종교와 학문은 상호 대립속에서 발전 되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 것이다. 발전은 항상 기존의 인식를 달리하는 새로운 도전에 의해 선물 되어졌다.
김상연 선생도 그렇게 육임신단극비전 을 냈고 나도 그런 정신으로 육임래정비법을 썼다.
한 개인의 소명적 노력은 반드시 후학들에게 어떤 형태로이든 귀감을 얻게 해 준다는 점에 있어 나는 록평 김상연 선생께 크게 감사 드리는 바이다.

효 사

톡톡 튀는 포교아이템으로 회원 늘린다

직장불자회



직능불자회



그림/ 김영민

"튀어야 잡는다." 바쁜 업무에 시달리는 일터불자회가 새로운 포교아이템을 앞세워 신입 회원 모집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틀에 박힌 형식을 깨는 법회를 선보이는가 하면 톡톡 튀는 포교마케팅 기법으로 직장·직능인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승만부인회 중심 친목·동호회와 교류 확대
'홈피' 가입 네티즌에 축하메일·선물 제공

포교아이템 개발은 직장 단위 불자회가 주도하고 있다. 불자회 침체에 회원 감소까지 겹치자 신입 회원을 잡기 위한 눈에 띄는 아이디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직장불자회들은 법우회원 부인회 동원, 회사 내 동호회간 교류확대, 자체 홈피 가입 네티즌 축하선물 제공, 맞춤형 신행 프로그램 개발 등 획기적인 포교기법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는 업무에 쫓기는 직원 중심의 활동 한계성을 절감하고, 가족 중심으로 체제를 바꿔나가고 있다. 그래서 결성된 것이 '승만부인회'. 이들은 신입회원 확보방안은 물론, 가입한 회원들의 집을 방문해 신행상담과 친목을 다지는 등 법우회 활성화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회사 내 스포츠, 풍물, 산악회 등 10여개 동호회간 교류를 넓혀가고 있다.

마케팅 기법을 도입한 직장불자회도 있다. 한국전력본사 반야회는 사내 전산망 홈페이지에 가입한 네티즌 600여명 잡기에 묘책을 마련했다. 네티즌 중 30%이상이 잠재적인 불자인 점을 감안해 가입 축하 메일 보내기, 600명 돌파 기념 선물 제공 등 포교마케팅 기법을 선보이고 있다.

맞춤형 신행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회원 가입을 부담스러워하고 법회 참석을 꺼려하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 연중으로 사찰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 운불련, 친절무장·미소작전 주효
접하기 어려운 고승 대덕 초청 법문듣기

전문직 불자회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직 특성을 살린 사회봉사활동을 벌여왔던 전문직능 불자회가 이번에는 사이버 상에서의 회원 확보, 소속 신행단체의 전문성 강화, 고승대덕 스님 모시기 등에 나섰다.

무료 진료활동을 벌이고 있는 선재마을의료회는 사이버 상에 '특별한 의사'를 투입한다. OFF-LINE에서 가입한 신입회원들이 진료봉사 활동을 할 때 애로점을 게시판에 올리면, 즉각적인 답 글을 올려주고, 또 다른 자원봉사 활동처도 소개해 준다. 선재마을의료회의 이 같은 신입회원 확보 노력은 전체 회원 100여명 가운데 30% 정도를 이러한 방법으로 모집, 활발한 봉사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다.

소속 불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신입회원을 앉아서 받는 직능불자회도 있다.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는 '친절'로 무장된 서비스만으로도 이 지역 개인택시 기사들의 가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개인택시 1만여 명 130여 개 조합 가운데, 운불련 대구지역회는 회원 수 550여 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고승대덕 스님 모시기에 나서고 있는 전문직 불자회도 있다. 사법연수원 34기 다르마 법우회는 바쁜 연수원 생활로 접하기 어려운 스님을 초빙해 법문을 듣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서울·경기교사불자회 사찰순례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경인교사불자회(회장 이호영)는 21~22일 이틀간 인천 강화 선원사, 보문사, 적석사 등으로 사찰순례를 다녀왔다. 회원 40여명이 동참한 이날 순례에서는 보문사 새벽예불, 관음정진 기도 등 사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안양시청 공무원불자회 창립 법회

안양시청 공무원불자회(회장 김상문)는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지도법사 정락 스님(수원 용주사 주지)의 법문과 김상문 회장의 경과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단체장



'사경' 주제 허정 스님 법회

박재진 경찰청 불교회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 법당에서 경승 허정 스님에게 '사경'을 주제로 법문을 듣는다.



동화사서 연합법회 봉행

이인규 전력인불자연합회장은 13일 대구 동화사에서 선원장 지환 스님을 법사로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다음'에 카페 개설

백사인 전북 장수군청 불자회장은 최근 다음 카페에 '장수공무원불교모임'(cafe.daum.net/jangbul)을 개설했다.



용문사·신륵사 성지순례

김두식 서울 성북경찰서 불자회장은 29일 경기도 가평 용문사, 여주 신륵사 등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우리불자회는요

순천시청 공무원불자회

불자회 창립이 늦었습니다. 승보사찰 송광사, 태고종 본산 선암사를 비롯해 40여개의 크고 작은 사찰이 있는 우리 고장 순청시청의 불교세에 비한다면, 무척이나 뒤늦게 불자회가 생겨났습니다. 진작에 뭉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불교 고장'인 순천시인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우리 불자회가 더욱 분발할 수 있는 채찍이 되고 있으니까요.

사실 초창기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1,300여명 시청공무원 가운데 불자회원에 가입한 회원은 불과 40여명이었고, 그나마 법회 등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회원은 고작 15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법회를 계속 열어야 하나? 고민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좌절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불자회인데' 이를 악물고 법회를 열어갔습니다. 시청에서 처음으로 찬불가와 목탁소리가 울려 퍼졌던 창립법회 때를 상기하며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이면 정기법회를 꾸준히 열였습니다. 연중 분기별로는 1박2일의 수련회를 개최해 절하는 기초예절부터 불교기초 용어공부까지 그야말로 '불교의 ㄱ.ㄴ.ㄷ'를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이뿐이었던가요? 철야정진 기도는 물론 순천시내 사찰을 순회하며 지역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여러 스님들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무던히 노력해온 만큼 회원 수는 무려 200여 명으로 곱절이나 늘었고, 회원들은 주변 동료들에게 불교를 설명할 만큼 베테랑 불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불자회원들은 며칠 전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6월 10일 봉행했던 창립 2돌 기념법회였습니다. 바쁜 업무로 마음 찾는 공부를 마냥 미뤄왔던 자신의 참회하면서, 또 어느덧 2살이 된 불자회를 뿌듯해 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금을 있게 한 지역사찰과 신행단체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해야겠습니다. 창립2주년 법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도와 준 송광사, 홍선사, 대승사 스님과 신도님들, 전남 동부지역 불자연합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전남도청공무원불자연합회 등에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불자회는 올해부터 지역내 불교문화재를 보살피는 불교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올 가을에는 산사음악회를 기획해, 이 지역 문화포교에 나설 생각입니다. 또 인근 복지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등 봉사활동도 벌여 나가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데 자원봉사활동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나누는 기쁨을 야무지게 경험해보려고 합니다. 왕성하게 활동할 우리 불자회의 모습을 기대해 주십시오.

■나경륜 총무

늦깍이 불자회 어느덧 두돌… 회원 곱절
지역내 '불교문화재 지킴이' 활동 계획



◇올 6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순천시청 공무원불자회 창립2주년 기념법회. '卍'자 현수막이 인상적이다.

현대설법

설법이 살면 법회가 살고, 법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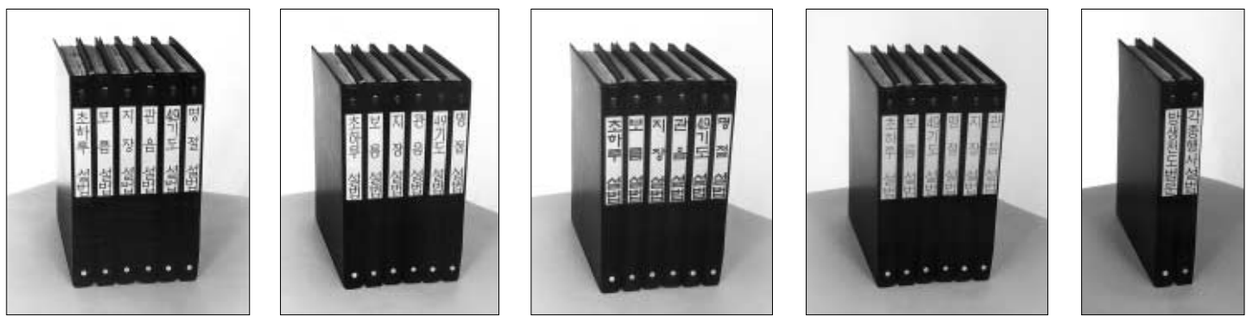
◆ 백중 49일 기도, 초하루, 보름, 지장, 관음, 명절, 방생, 영가천도, 특별행사, 교도소, 경찰서, 거사림회, 보살회, 각종 법회

있으신가요! 신도 조직에 활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포교 활동이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수행·정진만 있고 법회가 없습니까? 법회는 있는데 설법이 없습니까?

★ 설법준비 염려없습니다 ★

- 반드시 경전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 자유자재로 응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 같은 내용이 겹치지 않습니다
- 누구나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활자 크기
- 1편의 분량은 약 25분 소요
- 1편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섯 가지 이상 수록
- 1편씩 따로 떼어낼 수 있어서 책 한 권을 전부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음

붓다차리타 설법집(6권) 다르마 설법집(6권) 칸치푸람 설법집(6권) 아쉬바지트 설법집(6권) 특별설법집(2권)



설법은 딱딱한 지식 전달이나 가벼운 재담이 아닙니다. 경험담이나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설법은 재미없는 사설이나 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법은 헌공과 찬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된 감동입니다.

현 대 설 법 연 구 소 대표 전화 (031) 968-6663 경기도 고양시 화정달빛 401 안내책자발송중!

자연-연기 양립 가능하다

서대원 교수 발표

연기는 인연에 의해 드러나

도생 "불성이 외부조건에 감응 현상 이뤄"

심약 "因(자연)은 緣따라 천변만화 표출"

자연(自然)과 연기(緣起)는 양립이 가능한가? 특히 중국사상사상에서 불변의 궁극적 본체이며, 만물의 통일자로 여겨지는 자연설과 그 양립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불교의 연기설이 상호 융합되어 양립이 가능한 사상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위진남북조시대의 사상가들인 왕필과 곽상의 기초 위에 주세경, 석진관의 논란 과정을 거쳐 심약이 양자를 융합시킨 자연연기설을 완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심약의 자연연기설의 사유구조는 위대한 불교사상가 축도생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논문이 발표돼 주목 받고 있다.

한국도가학회에서 연세대 국학연구단 연구교수로 있는 서대원씨가 지난 6월 11일 발표한 이 논문에 따르면 축도생에 의해 자연과 연기(현상)의 양립이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발표자인 서대원씨는 위진남북조시기에 풍미했던 자연과 연기의 양립불가능에 대한 논란은 축도생의 출현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으며, 본체와 현상의 융합이란 차원에서 많은 사상가들의 관심 영역이었다고 진단했다. 이 시기의 사유 흔적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홍명집>에 나오는 주세경과 석진관의 논란, 그리고 심약에 의해 통합이 이것을 알려준다는 것. 그렇지만 심약이 양자를 통일한 사상가로 규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며, 그 전에 축도생이라는 사상가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심약(沈約:441-513)은 인연관을 정리하면서 "인간에게는 인연과 비인연의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인연은 연기이며, 비인연은 자연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은 비연기적이고, 인연은 비자연적인 요소이다. 심약은 이 둘을 통합하여 자연은 원인이 되며, 이 원인이 조건[緣]에 따라 천변만화하는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축도생은 일찍이 불성을 자연 내지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의 본유(本有)로 파악했다. 따라서 축도생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불성은 아무 이유 없이 이루어져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에는 이것이 깃들어 있다." 그렇지만 이 불성은 외부조건에 감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현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도생은 궁극적 본질과 현상이 어떻게 상호교섭하며, 통일될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무아사상은 대승불교의 전개와 함께 공무자성을 강조하는 반야사상으로 발전한다. 공무자성이란 연기설에 입각하여 궁극적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중국사상사에서 인도불교의 아트만과 같은 개념이 자연이다. 자연이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겨났으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道라고도 한다. 따라서 자연과 자생(自生), 道는 동일한 개념의 다른 표현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 역시 불교의 연기사상과는 상충된다. 불변의 실체를 인정한다면 연기설은 설 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도생과 심약에 의해 양자는 양립이 가능해진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불교연구원 '불교연구학회' 창립

27일 창립기념세미나 '보현학술상'도 제정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사진)은 불교 전문 학술모임인 '불교연구학회'를 창립하고 27일 오후 3시 연구원 법당에서 창립식 및 기념 학술 발표회를 개최한다.

불교연구학회는 앞으로 분기별 한 차례의 연구발표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젊은 신진학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지난 3월 불교연구학회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보현장학회를 설립했으며 창립 30주년이 되는 내년 4월에는 우수 논문을 선정해 '보현학술상'도 시상한다.

이사장 정병조 교수(동국대)는 "그동안 젊고 유능한 재목을 키우고 다듬는 인재불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늘 있었다"며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불교 응용학의 산실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불교심리학 개념 정립

선상담연구원 세미나

"불교 상담을 하려면 불교심리학의 개념부터 정립해야죠."

선상담연구원(원장 인경)이 28일 '상좌부 아비담마의 이해'라는 주제로 첫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원장 인경 스님은 "불교, 특히 초기불교의 명상과 선불교를 서구 상담심리학과 접목시킨 '불교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대부분 이론적 바탕은 서구 심리학"이라며 "불교 상담을 위해서는 '불교심리학'을 먼저 확정해야 하고 이번 학술발표회는 이를 위한 첫 번째 시도"라고 말했다.

임승택(동국대)씨와 이영진(동국대)씨가 상좌부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의 인식작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선상담연구원은 불교의 수행체계와 현대 심리학을 접목해 불교적 상담 기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문을 열었다.



◇고달사지의 중심 사역으로 보이는 나말여초의 대형 건물터(사진 위쪽)와 건물터 아래 토층에서 발견된 8~9세기 인화문 토기 조각(오른쪽).

여주 고달사 창건 의문 풀리나

8~9세기 토기 출토… 기록 뒷받침

기전문화재연구원 발굴

여주 고달사지(사적 382호)에서 8~9세기 유물이 출토돼 창건 당시 가람에 대한 귀중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원장 장경호)은 13일 지난해 8월부터 4차 발굴을 한 결과 고달사터에서 가장 오래 된 건물터로 추정되는 나말여초의 대형 장방형 건물터(전면 길이 42m) 아래 토층에서 8~9세기 인화문 토기조각이 소량 출토됐다고 밝혔다.

조사1팀 소상영 팀장은 "8세기 창건됐다는 문헌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라며 "대형 장방형 건물터가 있는 동쪽 아래 지역이 중심 사역이고, 사세가 커지면서 서쪽인 산 위 방향으로 사역이 확정돼 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달사는 신라 경덕왕 23년(764) 창건돼 9세기 때 한 차례 중창됐다가 고려 광종(949~975 재위) 이후 대가람으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 3차례 발굴조사에서는 10세기 이후 건물터만 발견됐었다.



절(11)

예술로 승화된 선·교종 만남

지눌, 송광사 가람배치에 선종·교종 융합

대웅전 일대 예배공간, 왼쪽 강당·요사채

송광사 하면 곧바로 승보(僧寶)를 떠올린다. 이 절은 부처님이나 경전보다는 스님들로 이름난 사찰이다. 고려 중기 보조국사 지눌부터 시작하여 200여 년에 걸쳐 쌓은 16국사들의 역사는 송광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승보사찰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물론 이분들 외에도 송광사에는 이름난 고승들이 많이 배출되었지만, 송광사의 근간이자 중심을 이룬 이들은 16국사인 것이다.

지눌(知訥)은 고려 중기에 활동한 선사이다. 당시는 불교계가 선종과 교종으로 갈라져 극단적으로 대립하던 때였다.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한 이가 바로 보조국사 지눌이다. 선종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선종과 교종의 접점을 찾은 이 깨우침은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한국불교사에서 한 획을 긋는 지침이 되었다. 송광사는 바로 지눌이 선종과 교종을 아우른 실천의 장인 것이다. 이러한 지눌의 뜻은 후세에 이어져 15국사를 연속하여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송광사 우화각. 송광사에서 가장 예술적 운치가 가득한 곳이다.

선종과 교종의 조화를 중요시한 지눌의 깨우침은 송광사의 가람배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중앙의 대웅전을 중심으로 그 뒤에 선종의 공간을 배치하였다. 축대를 쌓고 그것도 높은 담장으로 둘러쌓아 폐쇄적 공간을 마련한 것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공간과 분명하게 구분 짓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이 구역은 송광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보물 263호로 지정된 하사당은 조선초기의 작고 간소한 살림집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선방이다. 이 건물은 소박한 외양을 띠고 있지만 그곳에서는 선(禪)적인 격조가 피어나고 있다. 선의 폭은 매우 길게 전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송광사의 운치는 입구에서 맛볼 수 있다. 키가 우뚝한 측백나무 숲을 지나 일주문을 들어서면 사찰이라고 믿기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운 정원이 전개된다. 조계산의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계곡을 따라 가다가 왼쪽으로 무지개다리와 지붕이 있는 전각인 우화각을 통해 건너게 되어 있다. 이 절경은 많은 시인묵객의 마음을 움직여 우화각 천장에 많은 시문의 현판을 남겼다. 또한 이 다리를 건너면 좌우에 누각이 있는데 왼쪽에는 물과 다리의 경치를 감상하게 꾸민 임경당이 있고 오른쪽에는 목련극과 팔상극을 공연할 수 있는 침계루가 있다. 이 구역만큼 예술적 향기로 가득한 사찰도 드물 것이다. 지눌이 지향한 선종과 교종의 만남은 이러한 예술적 향기와 운치를 통해서 하나로 융화된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논산 / 위치 : 대구 / 위치 : 경남
- 법당 : 20평 / 법당 : 30평 / 법당 : 27평
- 요사 : 100평 / 요사 : 40평 / 요사 : 27평
- 부지 : 713평 / 부지 : 420평 / 부지 : 555평
- 가액 : 3억5천 / 가액 : 7억5천 / 가액 : 3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천도재, 점안식,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진구 5거리 코너
- 평수 : 75평. 3층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 120만원 보증금 + 시설비 : 6천5백만원
- ※ 삼존불 + 약사여래 + 지장보살 10년이상 포교지
- 법당 요사채 분리형
- 도시가스 시설완비

02)444-3957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024-4843
02)3391-484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인접 APT단지 밀집지역
- 4층 건물중 2층
- 가액 : 5천 2백만원(시설 깨끗함)

051)524-8108
011)597-6700

민속불교백화점 (체인점도 모집합니다)
금불상, 목불상, 옥불상, 금탱화, 서적
승복, 신복, 유기, 도자기, 농악복일절
북, 장구, 재징, 매구, 민속국악기일절
전국 어디든 체인점 개설을 지원합니다.
노후 생활에 최고의 사업을 원하십니까.
년 1조원시장에 달하는 불교 / 무속용품 체인점
사업본부에 문의바랍니다.
전화 : 031)480-4848, 031)417-4848
팩스 : 031)480-8549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 위치 : 강원도 문막
- 부지 : 1000평 / 부지 : 500평
- 법당 : 8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00평 / 요사 : 70평
- 양도가 : 40억 / 양도가 : 4억
- 주차시설 및 산세좋음 / 계곡 및 산세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시내버스 종점 뒤에는 산
- 대지 500평
- 법당, 찜질방 1개, 방 2개
- 가액 : 1천 5백만원

017)854-242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성남 남한산성 전철역부근 3층 건물중 2층
- 법당 20평, 방1, 도시가스
- 삼존불, 부처님 3분, 후불, 신중
-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7백만원

031)732-0471
016)265-2762

사찰 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특징 : 잘 지은 절
- 가액 : 3억 3천만원

011)226-288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창선
- 대지 : 500평
- 법당 1, 요사채 1
- 가액 : 8천만원

055)854-2195
055)854-6365
011)579-4166

스님·불자님 고민 삼환이 해결해 드립니다
임법당, 요사채, 신축 및 보수, 조립식 부속건물 신축,
동기와, 토기와, 비새고, 허물어진 토굴,
칼라성형강판으로 교체, 70년 보장. A/S 확실
전국 어느 곳이나 무료견적 시공 상담.
삼환 주택 개량 공사
경북 사무소 : 054-292-7613
울산 사무소 : 052-262-0601
휴 대 폰 : 011-9307-0609

秘傳 大六壬 역학 전수반 모집
인간사 길흉 적중률에서 神의 경지인 역학위의 최고 역학!
미국 하버드대학 동양학 연구소에서도 연구중인 六壬學
집중 책임지도(기초에서 고급활용까지)
고려육임학회
- 서울지회 : 02)826-0179
- 대구지회 : 011-530-6652
- 대전지회 : 042)525-3880 (011-558-5496)
- 인천(부천)지회 : 032)655-7853
- 부산지회 : 051)783-6049

각 지역은 가까운지회에 연락요망

사찰 안내
- 위치 : 산청군 황매산 서편
- 부지 : 약 2000평 밤산 군유지 2만평
- 건물 : 단청한 법당 30평 요사채 2동, 그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봉 안대 동양화같은 최고명당 비구니선원 적합
- 가액 : 2억 7천만원

011)531-1334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주군 상북면 언양터미널에서 7분거리
- 대지 181평, 농지 200평, 총 400평
- 임법당30평, 요사채 20평 1동
- 건물 완공 2년
- 특징 : 수려한 야산에 정남향 8m도로접, 교통 편리함
- 가액 : 2억 6천만원 불교집기및 생활집기 포함

011)9544-0997

포교당 안내
- 부산 금정구 장전2동 588-19(식물원 앞)
- 평수 : 40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2700만원

051)516-3374
011)598-8673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진인동 (앞 갓바위)
- 건물(조립식 2층) : 법당 13평 요사채 40평
- 대지 : 513평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조용한 곳

011)807-2355
053)983-3889

사찰수련원양도 안내
- 대구 동구 송정동 당정마을(팔공산 파계사 西3km)동대구역 20분 2차선 포장도, 주변 30-40대 주차가능
- 토지 : 대지 210. 채소밭110. 합 320
- 건물 : 목조형 기와, 철근 콘크리트조. 2002년 11월 준공
  1층 - 객실방3칸, 큰거실, 중앙계단실, 응접실, 내실, 주방, 부엌, 욕실, 보일러실(심야전기, 기름보일러 겸용)
  2층-법당, 수련실, 복도, 주지실 방2칸, 거실, 욕실
- 특징 : 요산요수, 수려한 자연환경, 앞에시냇물. 뒤는 竹林병풍. 확트인남향. 한폭의 동양화.
- 가액 : 현장답사후 결정(개인사정상 부득양도)

053)983-9933 / 016-875-9833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법회 기도

육신의 영생법 저자
뇌출혈이나 심장마비,기타 사고사등으로 갑자기 죽은 영혼들, 여러차례천도를 했으나 아직도 천도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49일 만에 속시원히 천도해 드리며, 잘되고 않됨을 거의 확인 시켜 드립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가위눌림이 있는 분도 해결해 드립니다.
▷포천군 관인면 냉정1리
031)532-6661

구인 구직

산세수려한 사찰입니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052)254-5125

기도하실스님 모십니다
▷신라 도선국사 기도터임
※ 상황버섯을 필요하신분 문의 바람
011-9055-2440

비구니 스님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천일을 기도하실 스님)
▷52세 이하
▷용천사
016)521-0003
054)975-0003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한전승인업체 설계시공 A/S 상담
남강기전 02) 338-0400

공양주 모십니다
▷ 충주 호암사 진여원
043)851-6013

사찰과 부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읍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 주 시
011-692-5630
064)756-3130

봉고기사 구합니다
▷ 숙식하실분
051)542-4630

산사에서 함께 지낼 공양주보살(2人), 처사님(1人)모십니다
▷강원도
011-361-5055

노후만 보장되면 부처님 시봉하면서 스님과 함께 암자를 운영하실 보살님 찾습니다
031)532-6661

행 자 모 십 니 다
▷ 고졸이상, 40세미만
▷ 타종단스님 개종환영
▷ 대학, 대학원까지 책임후원함
02)917-3363

철학에 자신있는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서울포교원
02)2201-0796
011)204-2522

역학 수강생 모집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등
■ 30년 전통의 청운 엄윤문 선생 직접 강의
※교재는 이석영선생 저서 〈사주첩경〉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 / 011)9638-8229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부전 소임 원합니다
▷ 43세 비구
032)511-497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경남 고성
011)9507-9892

비구입니다 부전(노전)스님을 필요로 하는 사찰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1-580-8480

행자와 공양주 구합니다
공양주는 62세 이상 노후를 같이 할 분
041)546-8346
016-506-5311

공양주보살님 (급)구합니다
▷ 서 울
▷50대 중반~60대초
02)386-092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세까지
▷월 보시 80만원
(목욕비 지급, 월 3박4일 휴가)
▷경북 청송
▷대한불교 조계종
054)872-4183
011-810-0698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易 수강생 모집
무료 공개 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듣기만 해도 암기됨, 감명비법공개
★사주프로그램 공급 ☞ 신살 암기 안해도 됨
◆ 초보, 전문, 속성반 ◆ 명리, 육효, 성명, 택일...
◆ 사주로 영가찾는 법, 개운법 (흉을 길하게)등
※ 창업,취업,전화상담 가능, 자격증 발급
효천역리학당 ☎(02)2236-2284

운전기사 모집
사찰에서 거주하면서 가족같이 불심으로 같이 있으실 분
▷50~60세이하
02)577-0007
031)673-5502
032)422-0778

행 자 님 모 십 니 다
017-476-0506

중국 초능력 기공사
각종 성인병,우울증, 중풍,요통,관절염 출장 치료
011-9714-7067

소승은 연령관계상 장래사찰운영이 걱정되어 사심없고 진실된 비구니스님에게 사찰을 인계코저 하오니 연락바랍니다.
▷ 자격 : 40대 비구니로서 동양철학에 관심있는분
※ 참고 : 재정이 건실하고 재산은 약 10억정도
041)337-6348

사 암 침 술 강 좌
▶과정 : 고급과정-월 50만원(교재비)무료
▶일시 : 7월 2일부터 매주 수 · 목요일(주 2회) 2개월과정
▶모집 : 주 · 야간반
▶강의내용 : 황제내경, 맥진법, 맥조절방법, 사암침술법, 처방요령, 장부의 허실증 판단, 즉효요법, 정골법, 60개 질병 종합실습. 책임 지도
사암침술학회 02)355-8312. 011-307-2975

역 학 강 의
사주(초급,감정반),육임,육효,관상,풍수
사주를 공부하고도 감정에 자신이 없는분 확실히 지도함
· 저렴한 비용,확실한 교육, 수료증, 자격증 수여, 개업시 월간역학에 홍보해줌
· 인터넷으로도 동영상 강의를 들을수 있으며,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인터넷강의 3개월, 7만원)
인터넷 동영상 www.kbs.cc
월간역학교육원 (02)2264-0258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 · 사주 · 관상 · 풍수지리 등 역학과 유 · 불 · 선의 심오한 이론을 알기쉽게 다루는 국내 유일의 14년된 잡지입니다

명리학 강좌
⊙ 사주, 궁합, 작명, 매화역수
⊙ 주 · 야간반 모집
⊙ 7월1일부터 매주 월 · 화요일 (주 2회) 3개월과정
⊙ 교재무료 제공
⊙ 책임 지도
사 암 침 술 학 회
02)355-8312 / 011-307-2975

불교의식(범음범패)학인모집
♥ 강의내용
1. 기초반 (3개월) : 사물 (목탁, 요령, 태징, 광쇠, 쇠, 북) 다루는법
2. 중급반(6개월) : 불공, 재사, 49제, 구병시식, 다비편
3.작법반 및 어산(1년) : 천수바라, 나비춤, 화청, 각어산
♥ 강사 : 도진스님, 일각스님
영남불교 범음회 051)554-1518

수인작법 사주팔자
강의와 교육으로만 성취되었던 수인작법이 수수리 수인작법 책으로 발간되어 나왔습니다
■ 자신과 인연된 모든 수치에 대해 여러분들은 이 책 한권으로 인해 눈밝은 이로 다시 성장될 것입니다
■ 우주의 조화를 풀고있는 천리도수
■ 천기로만 묻혀있던 신비의 수치세계를 열어보입니다
※공부를 원하거나 책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예금주: 이광래 (국민 093-21-0592-051) 031)633-1517. 016-213-5451

다 슬 기
지방간 · 간경화 · 눈의출혈 · 신장



● 특 징
강원도 동강인근의 맑은 물에서 채취한 다슬기만 선별하였습니다.
전통적 항아리 제조법으로 다슬기 자체의 냄새를 최소화하여 다슬기 자체의 성분을 유지
<항아리에서 직접내린 다슬기>
※ 직접 방문 환영합니다.
033)747-4830 치악산 유정암

대체의학 氣치료전수안내
※ 병원과 약물 치료로도 잘 낳지 않는 각종병 기적의 치료비법을 전수하고져 합니다
※대상 : 환자 치유에 관심있는 남 · 여
※각종 질병 상담환영
해 동 암 041)942-9599

풍수지리 수강생 모집
이제는 성공하세요!
사업실패, 되는일이 없는분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풍수를 배워 그 원인을 찾자!
♦접수일 : 6월 30일까지 예약할것 (좌석 8명 한정)
♦개강일 : 7월 1일
◆ 강좌 내용
① 사업실패, 가정파탄 원인을 분석하고
② 조상산소, 가옥감정등 성공 비결을 말해준다
◆ 강사 : 산수지리서 음 · 양택 저자 李峞 직강
※ 강사저서 〈산수지리서 음 · 양택〉 구입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서울 종로 조계사 부근 산수지리 연구소
02)725-9636 / 018-325-1405

이화기와공장
청기와. 한식기와
세멘기와. 칼라함석
041)554-0112 / 011-9820-0112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옆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성남, 광주
● 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가액 : 4억3천
● 위치 : 용인
● 부지 : 25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가액 : 9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원 양도안내
● 현재 보살이 운영중, 양도하실 분을 모십니다
● 위치 : 서울 중랑구 중화1동 단독주택 1층
● 큰방(법당)1, 작은방1, 거실, 주방, 화장실
● 즉시 양도 가능
● 보증금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7백만원(절충 가능)
011)9024-4843
02)3391-4845

사찰터 안내
● 위치 : 충북 단양에서 영월사이
● 산좋고 물좋고 경치좋은 소백산 밑
● 대지 : 780평, 전답 : 1570평. 합 2350평
● 평당 가액 : 38000원
● 사철터까지 도로 진입 가
● 주인보살 직접. 답사후 절충가능
043)648-6422
011)9408-6422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390
● 대지 : 400평, 밭 700평
● 임야 : 약 200평, 총 9900평
● 법당 1개(기와), 아랫채 2동
● 가액 : 1억(가격 절충)
055)366-1619
054)833-4789(안내)

포교당 안내
● 청주시내 위치 좋음
● 3층 건물 중 2층, 실평 50평
● 법당, 큰방3, 거실, 주방, 샤워실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 1천7백만원(시설완벽)
043)272-0147

사찰건립 기금조성
경북 안동시 시청서 5분거리
부지 3천평에 사찰 건립중인 스님입니다
창건 건립 기금 조성에 동참하실 스님 및 불자님 인연 기다립니다
절 완공후 본 사찰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011)9677-2411

사 찰 안 내
● 위 치 : 양산 웅상
● 부 지 : 3,400평
● 법 당 : 25평
● 요사채 : 45평
● 가 액 : 6억5천
※버스↔서창 버스정류장
● 위 치 : 경주건천
● 대 지 : 2200평
● 법 당 : 27평
● 요사채 : 45평
● 가 액 : 2억8천
※ 분위기있는 시골암자
● 위 치 : 부산
● 대 지 : 206평
● 법 당 : 20평
● 요사채 : 59평
● 가 액 : 6억
※ 여법한 도심사찰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걸어서 10분거리)
● 대지 : 200평
● 법당 30평(콘크리트, 슬라브지붕. 기와)● 요사채 : 30평
● 산신각 : 7평 2층(1층은 스님방)
● 공양간 : 15평(현대식 입식)
※ 주방 별도로 있음
● 가액 : 1억 3천만원
052)294-7025
052)293-7025
019)292-7025

사찰 양도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 장호원 소재 5분거리
● 대지 : 527평
● 건평 : 113평, 법당 (27평)
● 사무실, 요사, 주방, 고시원, 방 18개 운영
● 가액 : 답사후 결정
● 교통좋은 산을 낀 취락지정 시가지의 요충지
031)643-9051
019)375-9051

토굴 안내
● 위치 : 강원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84
● 대지 : 282평, 전 66평
● 임법당50평 (대웅전 터 따로 있음)
● 원덕읍내에서 자동차로 3분 도보로 30분
● 가액 : 7천만원
033)574-9970

건전하고 진실한 정신으로 고아원 또는 양로원등 복지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불교인으로서 땅이 필요한 분에게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땅 2,000평을 드리겠습니다.
011)9859-7425

사찰 최적 토지 안내
● 익산시 함라산 동남향 웅덩이 모양
● 면적 : 약 2만 8천평
● 지목 : 임야
● 번지내까지 차량 진입가능 자연경관 최상
● 사찰, 실버타운,종교, 납골묘원등등 가능 지역임
● 평당 : 2만~3만원

건물 대지 안내
● 사찰, 암자, 종 교단체 휴양시설 적합한 건물 및 토지매매
● 고개정상의 민가와 떨어진 수행장소 최상
● 통나무집 4채 대지 1,129평 건평 110평
● 연락처 :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063)855-2005
016)605-0074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산 국립공원문화재보호구역내 소재 웅장한 바위와 빼어난 산세,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매
● 평수 : 총면적 3천평(허가필,등기필), 종교용지 1600평, 임야 1400평, 법당 30여평, 요사채 40평, 기타 10여평
● 교구본사,사찰,연수원,수련원,기도터,기타종교시설.
● 주차장완비. 시내와 5분거리
● 가액 : 4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613-1775 / 016)838-9394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 하남시
● 평수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방4개
● 보증금 3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1)715-6333

사찰 안내
● 위치 : 칠곡IC에서 7분거리 서대구IC에서 12분거리 진입로 확장되어 있음
● 대지 : 889평방미터
● 법당 51.68평방미터 요사채 25.62평방미터 삼성각 12.6평방미터
● 등기완료
● 가액 : 2억(절충가능)
011)9052-6015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대지 : 500평. 실평수 약 천평
● 임법당 30평, 목조황토기와. 2002년 11월 완공
● 계곡과 산세가 수려함. 온양 15분거리.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IC 5km 지점 2006년 완공예정
● 가액 : 2억 8천만원(절충가능) 집기일체포함
017)479-7879
041)857-9056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 임야 17,600평중 준농림지 4,300평
● 특징 : 계곡물이 흐르고 2차선도로접. 용문산 자락임
● 가액 : 평당 3만원
019)486-6951

사찰 및 주택 겸용 안내
● 위치 : 수원도심 ● 대지 61평. 2층 건물
● 법당 25평 2층, 요사채 25평 1층
● 도심속의 포교의 전당. 아늑하고 조용한 주택단지
● 가액 : 1억 5천만원(조금받고 양도할 생각입니다)
031)252-5659 (정심행 보살 사찰)



◇신라하대 부도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인 대낭 혜화상 백월보랑탑비(국보 제8호).



◇금당과 충문사이 일직선상에 위치한 오층석탑(보물 제19호).



◇금당지 뒷편에똑같은 모양의 3층석탑 3기가 놓여있는 성주사지. 사진=고영배 기자



페사지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보령 성주사지

옛 절터라고 하여 모두 쓸쓸하고 허전한 것만은 아니다. 산경문전(山景紋塼). 보령 성주사지처럼 절도 없고, 인적도 없으나 외지지 않고 마냥 편안한 곳도 있다. 어디선가 금방이라도 닭 울음소리가 들릴 듯 하고, 송림 사이로는 학의 날개 짓이 떠오를 듯 하다. 전돌에 희미하게나마 그 풍치를 남겨놓지 않았다면 두고두고 한이 되었을 백제 사람들의 심정이 헤아려지는 구도이다. 산언덕의 듬성듬성한 소나무 숲.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저녁노을. 빈 절터를 빼곡히 메운 토끼풀은 세월이 무정하여 '산경무늬전돌'에 다 못 새겨 넣은 여백의 풍경이다.

반도 땅 곳곳이 척박하기는 하여도 끈질기게 불법을 싹틔울 성지는 성지인가 보다. 후미진 산자락, 굽이치는 강어귀. 그 어디를 뒤져도 부처 꽃 뿌리가 있거나 그 향기가 남아있다. 차령산맥 끝자락, 한 때는 무연탄광으로 석탄재 가루가 날리던 보령 땅 성주산 발치에도 옛 가람자리가 깨진 연적처럼 놓여있는 것을 보면 이 곳 또한 옹골차게 불법을 꽃 피울 토양은 토양인가 보다.

척박한 땅에 불법 꽃 피운

구산선문 聖住寺파 본찰

당유학 신라 무염국사 선풍 크게 진작

1탑 1금당식 배치·전각규모 960여간

다른 절선 보기힘든 세쌍둥이 탑 눈길

보령 땅은 옥석이 뒤섞인 곳이다. 겉으로는 태연스레 아미산, 성주산 '산경무늬전돌' 같은 풍치를 만들지만, 그 내면에는 크고 작은 옥석이 뒤섞여 애도 끓이고 속도 태운다. 보령의 웅천과 남포에서는 오랫동안 이 땅 곳곳에 오석(烏石)과 벼루를 댔다. 그래서 성주사의 창건 명이 오합사가 되었다. 보령의 토질이 여물고 차진 것은 오랜 세월 이 곳에 배인 민생들의 피와 땀이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마한의 영토에서 통일신라의 선풍이 깃들기까지, 백제의 오합사에서 임진왜란의 전쟁터까지, 무수한 말밥굽이 달렸을 것이고, 비바람이 성주산 솔가지를 흔들었을 것이다.

부처 꽃은 잡초더미 속에서도 잘 자란다. 무너진 절터의 돌담 밑이나 외양간 두엄더미에서도 어김없이 자리를 잡고 꽃을 피운다. 부처 꽃은 율무가 되기도 한다. 순하고 어질어 배곯고 등 시린 이 땅의 백성들에게 곡식은 아닐지언정 허기를 때우는 양식이 되고자 한다. 깨어진 틈새로 부처 꽃향기가 스며드는 성주사 터에서 모처럼 폐허가 주는 충만함을 만끽하는 것은 홀로 나선 답사 길이 해방감을 안겨주기 때문일 것이다.

부여의 대표적 폐사지인 정림사 터를 돌아 나오며 가슴 한 켠에 먼지처럼 쌓였던 아쉬움이 성주사 터에 이르자 어느새 풀 향기로 채워진다. 폐사지도 역시 절집의 흔적이므로 소음으로 뒤범벅된 도심보다는 물소리 한적한 산그늘이 제격이다. 성주탄광이 폐광된 지 몇 년이 지난 탓인지 성주천 물길도 이젠 땟물을 많이 벗었다. 분진을 털어버린 솔가지들도 싱그러움으로 몸단장을 하고 있었다. 세월이란 참으로 무상한 것이다. 한때는 바랑을 걸머진 수행자들이 줄을 잇던 골짜기가 또 다른 시절 인연을 만나서는 석탄을 실은 차들로 붐볐고, 이제는 다시 돌아온 토종 물고기 마냥 옛 것을 찾는 길손들의 호흡이 가쁜 것이다. 성주사 터는 무려 천오백년의 세월을 이렇게 윤회하며 성주산 대중을 맞이했다. 목탁을 든 대중이든 곡괭이를 든 대중이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세월 잡지 않았다.

백제 법왕이 이곳에 오합사를 세우고 전쟁에서 숨진 병사들의 원혼을 달래려 한 것은 599년의 일이었다. 그 때야 말로 성주산 송화가루는 서해까지 흘러갔을 것이고, 백제의 왕실은 관솔불을 대낮처럼 밝힌 채 지성으로 유주무주 고혼들을 달랬을 것이다. 백제의 오합사가 지금의 성주사로 사명이 고쳐진 것은 통일신라의 대표적 고승인 무염국사(無染國師, 801~888)에 의해서이다. 무염국사는 무열왕의 8세손으로 그 시호는 낭혜(郎慧)이다. 그는 25년 간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와 웅천(보령의 옛 지명)의 호족 김양의 권고로 이곳에 와 크게 선풍을 진작했다. 무염은 당시 사회의 모순을 직시한 몇 안 되는 성인 중의 성인이요, 선지식이었다. 그리하여 이곳은 성인이 머무는곳, 즉 성주사(聖住寺)로 불렸던 것이다. 그가 성주사에 자리를 잡고 '무설토론(無說吐論)'을 주창하자 그를 따르는 제자는 수천 여명에 달했고, 전각은 960여 간에 이르러 당시의 선문 가운데 가장 번성했으며, 곧 구산선문의 최대파인 성주산문을 이뤘다.

진성여왕 2년 88세로 무염이 입적하자 왕은 시호와 탑호를 내리고 부도비를 세웠다. 이 비가 절터 서북쪽 전각 안에 남아있는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大郎慧和尙白月寶光塔碑, 국보 제8호)이다. 물론 이 부도비의 재질은 이곳 성주산이 주산지인 남포오석이다. 문장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인 최치원이 지었으며, 글씨는 그의 사촌 동생 최인곤이 썼다. 이 비는 신라 부도비 중 규모, 조각, 문장 등 모든 것이 빼어나 신라 하대 부도비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손꼽히는 것이다.

성주사지는 1968년과 1974년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을 실시하여 금당지, 삼천불전지, 회랑지, 중문지 등의 건물 윤곽이 드러났다. 성주산을 배산으로 동서를 장축으로 동향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을 기본 축으로 하여 남쪽에 중문, 탑, 금당이 일직선상으로 배치된 1탑 1금당식의 가람배치를 기본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성주사지에는 중앙의 오층석탑(보물 제19호) 외에도 금당지 뒷편으로 똑같은 모양의 3기의 삼층탑이 나란히 서 있는데, 이는 다른 절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구성이다. 이처럼 세 쌍둥이 탑이 함께 서 있는 것은 달리 알려진 바가 없으나, 성주사지에 낭혜화상의 비문만 있지 정작 부도가 발견되지 않아 이 삼층석탑이 탑의 형태로 지어진 부도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부도밭이 법당 뒤편에 나란히 줄선 예가 없고, 부도비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1974년에 밝혀진 '숭암산 성주사 사적'에는 이 세탑이 정광(定光), 약사(藥師), 가섭(迦葉)의 세 여래 사리탑이라고 적혀 있어 그 신비감을 더해준다. 서탑과 중앙의 탑은 각각 보물 제47호와 제20호이고, 동탑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6호 지정되어 있다.

발굴 이후 잘 정돈된 9천여 평의 대지에는 석물들과 몇 그루 배롱나무들이 각자 제 위치들을 지키고 있다. 나무의 습성은 무엇인가. 제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돌의 습성은 무엇인가. 잘 닳지 않고 깨지지 않는 것이다. 나무와 돌의 습성에 인연을 맺어 탑이 되고 비가 된 이 땅의 원력들 또한 무정물들과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윤회의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익산 미륵사지 편

성주사지 가는길

서울에서 서해 고속도로를 타고 대천에서 내려 보령시로 향하면 된다. 성주터널과 성주초등학교를 지나 성주천을 따라 3백여 m 올라가면 성주사 터 드넓은 공터가 나온다. 부여에서는 40번 도로를 따라 보령 방향으로 25㎞ 정도 달리면 석탄박물관이 나오고, 성주삼거리를 지나면 성주사지 팻말이 보인다.

사찰(토굴)안내
●위치 : 신림동 ●부지 : 60평 ●법당 : 20평 ●요사 : 32평 ●가액 : 5억5천
●위치 : 서울 ●부지 : 1800평 ●법당 : 25평 ●요사 : 60평 ●가액 : 6억5천
●위치 : 경북고령 ●부지 : 200평 ●법당 : 36평 ●요사 : 170평 ●가액 : 4억2천
※ 사찰(토굴)양도 · 양수 상담 환영
서방불사 011)9851-5952

포교원 안내
●위치 : 서울 송파구 마천동 2층의 2층
●평수 : 40평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권리금 : 절충(집기 일체)
011)356-6946

토굴(포교원) 안내
●소승의 수행일정변화로 (토굴수행) 포교원 맡을 분을 찾습니다
●법당 20평, 공양간 4평, 승방1. 증축 가능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조건 : 1)완전인수 2)책임운영
●주택 밀집지역, 교통 편리 주차 공간. 대로변 주차장 2층
011)9541-8538

사찰 안내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서당골 산과 계곡 접
●대지 60평, 건평 55평
●목재 한옥, 임법당, 단청필
●방6개, 화장실2, 욕실1, 주방2
●보증금 4천만원, 월50만원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도보 50m
●교통 최고. 시내버스 종점 생활도구 일체제공. 몸만즉시
011)9357-5677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창녕읍 7분거리
●대지 150평
●법당(목조토기와) 11평
●요사채 25평
●교통편리. 도로 접
●가액 : 1억 5천만원
016)652-754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00평
● 임야 : 2000평
● 가액 : 10억원
※ 소개업자 일체 사절
011)9207-9436

사찰안내
● 위 치 : 전북 남원시 소재
● 부 지 : 약 600평(종교용지)
● 법 당 : 30평(목조, 단청)
● 요 사 : 30평의 황토방 1동
● 기 타 : 석탑, 석등
● 가 액 : 4억 5천만원
● 특징 : 지방문화재(석불)있는 사찰로 기도도량으로 좋으며, 도심 인근에 있어 포교지로 좋습니다.

포교당안내
●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 법 당 : 40평, 사무실 15평(지하)
● 가 액 : 보증금 700만원(월 15만원)
● 시설비 : 2천3백만원
● 특징 : 도심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A급 아주 좋은 포교당

좋은 인연됩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82-5504
H·P 018)689-0455

포교당안내
●위치 : 경기 안양 4층 건물중 3층
●평수 : 30평
●법당 18평, 상담실, 대기실, 주방, 방1
●보증금 1500만원, 월 65만원
●권리금 : 2천5백만원 (시설비 포함)
031)425-7987
011)754-7987

사찰터 안내
●위치 : 경남 합천군 가회면 도탄리 24-25번지. 황매산 입구
●도로옆 야산
●준농림지 850평
●가액 : 2500만원
054)335-5347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 대지 : 106평
● 법당 15평, 주방 7평
● 요사채 20평
● 가액 : 4700만원
054)534-786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 부지 600평(평지), 대웅전 25평 (삼포, 목조, 단청), 요사채 50평
● 노송이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하고 시내인접. 지하수 풍부. 산신각, 용왕각 모셔져 있음
● 가액 : 1억 7천만원
055)673-6996
011)832-0374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큰대로변 4층 건물중 3층
● 평수 : 37평
● 시설 : 법당, 산신각, 방, 주방, 창고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6)288-5896
02)995-5896

사찰기도터(급)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지방도 지정 문화재 미륵마애불이 옆자리에 위치한 기도터입니다.
현재(종교부지) 건축허가 나있습니다.
소납이 사정상 정리하려고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고 왕림하셔서 불사를 이루시 길 바랍니다
011)742-5925 / 043)422-1666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부항면 마을 종점
● 임법당 한옥 목조 370평
● 가액 : 9천만원
054)437-185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용인시 용인IC에서 5분거리
● 3층 건물중 2층. 35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시설 특 A급)
031)322-2646
011)9227-2646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북부방면 번화한거리
● 원미시장 입구 4거리. 도로입구 아파트부근
● 상가건물 5층 중 2층 독채.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권리금 1500만원(상담후 결정)
● 꼭 오실분만 전화주십시오
032)612-6917
016)368-6917

용품점(급)안내
오산 불교 용품점
독점상권
급매 7천만원
※서울 포교원 공양주 구함
017)409-9599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대로변 4층 건물중 3층
● 평수 :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2천 5백만원
● 시설 : 법당, 부엌, 방2, 욕실
011)9239-1369

목어

병(病)과 사귀기



김 징 자
언론인

불행할 때, 정신적인 괴로움으로 방황할 때 우리의 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스스로 '아프기', 즉 육체적인 통증을 선택한다는 새로운 현대병이 있는 모양이다. 얼마 전 번역 출간된 <섬유근육통> 이란 책은 이유 없이 그야말로 꾀병과도 같은 '온몸의 통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분명 몸의 통증은 당사자에게 괴로움 하나를 더하는 것이겠으나 몸이 스스로 통증을 선택한데는 어쩌면 정신적 고통을 육체적 고통으로 바꿔 치유해 보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경험으로 보아도 육체적 통증은 사람의 마음을 그 통증에 집중케 함으로써 쉽게 '마음의 통증'을 잊게 해 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섬유근육통'의 통증은 그 원인인 '마음의 통증'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는 일로, 통증 속에 약이 있다고나 할까. 아니면 '마음의 통증'을 잊게 해주는 '친구'처럼 찾아 온 것은 아닐까. 이 또한 육체의 신비 중 하나일 것이며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를 입증해 준다 하겠다.

앞의 예가 아니더라도 의학에서는 통증을 위기예방을 위한 일종의 경고, 어떤 질병에 대한 예고로 받아들인다.

누구나 일단 병이 들면 완치를 목표로 삼고 그 완치목표는 발병이전의 상태 아니면 그보다 더 건강이 향상된 상태로 잡기 쉽다. 하지만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병이 들면 그 이전 건강했던 상태로의 회복은 바랄 수 없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체력은 하루하루 쇠퇴해 가는 것이 자연현상이니 '그 이전'으로의 회귀란 꿈에 불과하다.

병을 친구처럼 사귀어 보는 방법은 없을까. 분명 병에는 우리들에게 친구의 역할을 맡는 일면이 있기도 하다.

동·서양 화합 기원 에펠탑 탑돌이

충남 천안의 중견화가이자 행위예술가인 변영환(47)씨가 18일 프랑스 파리 에펠탑광장에서 가로, 세로 각각 10m의 한지를 펼쳐놓고 먹으로 석가탑을 그린 다음 그 한지를 몸에 두른 채 에펠탑 주위를 도는 1인 탑돌이 퍼포먼스를 했다. 변씨는 "과학 발달의 산물인 하늘을 찌르는 에펠탑과 불교 진리를 담은 아담한 석가탑이 대조적인 모습이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장군죽비

불교국가 부탄 "TV가 뭐기에…"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에서 범죄가 들끓는 나라로…." 작은 불교국가 부탄에 TV가 불러온 변화를 이르는 말이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1999년 TV 시청 허용 이후 서양의 상업방송을 즐겨본 부탄인들이 현실과 TV를 구별하지 못해 모방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불교교리에 따라 살아온 부탄인들은 곤충을 죽이거나 과음하는 것을 큰 죄로 알 정도였다고 한다.

남북한이 지난 14일 동서 양쪽의 군사분계선에서 경의선 · 동해선 철도 연결식을 열었다. 경의선의 재개통은 1906년 개통 이래 한국전쟁 중인 1951년 6월 12일 운행이 중단된 지 52년만이다. 동해선 역시 1937년 안변~양양간 192Km 개통 이래 한국전쟁 중 중단됐었다. 북한핵문제로 한반도의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열린 철도 연결식은 한국전쟁의 상흔을 딛고 민족의 혈맥을 연결시킨 대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철도 연결은 지난 2000년 제1차 장관급회담과 지난 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합의 이후 5차례에 걸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수많은 난관을 뚫고 실현되었다. 그러나 반세기만의 철도 연결은 현재 완료가 아닌 걸음마 단계이다. 아직 남북이 추가공사를 해야 할 구간이 상당 부분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의선의 경우 북측이 개성공단까지 13.1Km에, 동해선의 경우 남북이 저진부터 북측 온정리까지 27Km에 철로를 깔아야 한다. 급격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경의선은 오는 9월 말쯤, 동해선은 연말쯤 완공될 것이다. 또한 두 노선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북한 구간 전체에 대한 개량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불자 세상보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경의선의 꿈' 유럽까지

이를 통해 우리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을 목도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허브 국가로서의 기능은 바로 철도 연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왜 이토록 우리는 철도 연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것은 첫째, 철도 연결이 정치적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중요한 완충장치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대단히 불안정하다. 북한 핵 문제로 북미, 북일 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을 관통하는 철도가 연결됨으로써 협력 분위기는 고조되고 정치적 긴장이 약화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둘째, 철도 연결이 갖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당장 남북간 물류비용이 해상 수송에 비해 6배 정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종단철도가 완성되면 가깝게는 한반도와 만주지역까지, 멀리는 중 · 일간 물동량의 상당부분을 담당할 것이다. 해저터널을 통해 일본과 연결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감히 상상키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다.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한반도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획기적이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 철도의 발달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적 차원의 수많은 변화를 동반해 왔다. 인적 교류의 증대, 문화적 동질성의 확대 등이 철도의 발달과 궤를 같이해 온 것이다. 한반도 철도 재연결 역시 남북한의 이질적인 사회문화를 통일시키고,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넷째, 거시적 차원에서 인류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 연결은 동북아시아 대륙과 서태평양의 완전한 연결을 의미한다. 나아가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토대가 되기에 아시아와 유럽의 완전한 만남을 가능케 한다. 남북 철도 연결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우리는 서울에서 유라시아특급열차를 타고 파리까지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의미를 살리기 위해 두 철도는 하루바삐 완전히 연결되어야 한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가 아니라 달려야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불교언론인회 '불교와 언론' 포럼

사회문제 불교적 대안제시 필요

불교와 언론이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공종원)가 본격적인 토론의 장을 처음 마련했다.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불교와 언론'이란 주제로 열린 불교포럼에서 토론자들은 '한국불교의 피해의식 탈피'와 '언론의 선정적 보도자세 지양'이 올바른 관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이은윤-대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중요
2. 이선민-안정을 넘어 새로운 도약 필요
3. 김재일-불교폄하, 매도 여전히 심각
4. 박경훈-언론 스스로 호법정신 가져야

▧이은윤(전 중앙일보 종교 대기자)

모든 종교의 수행과 포교는 자기 내적 또는 대외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뤄진다. 불교에서는 참선 수행을 통해 내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중생제도를 통해 대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룬다.

내적 커뮤니케이션은 자신과 자기 내부 불성간의 소통이며 견성을 위한 필수과정이다. 대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역시 중요하다. 포교라는 본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안거(安居)에 남녀 신도를 대거 수용하는 '개방형 선방'을 제시해 본다. 이와 함께 언론의 불교기사 보도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이선민(조선일보 문화부 차장)

불교계의 현주소를 압축해 '안정'이라 표현하려 한다. 종책 대결로 승부했던 총무원장 선거를 비롯해 승려 교육제도의 정비와 지역 실정에 맞는 포교활동, 생태공동체의 실험 등은 안정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변화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안정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꿈꿔야 한다. 불교는 타종교, 특히 기독교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대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제1 종교다운 당당함과 여유로움을 보여주자. 또 사회 당면 문제와 관련, 불교적 관점의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재일(보리방송 모니터회 대표)

방송의 불교에 대한 역기능은 편파, 왜곡, 폄하 등으로 나타난다. 불교 왜곡사례도 기정사실이나 진실을 허위, 과장, 축소하는 경우 등으로 드러난다.

94년과 98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싼 종단의 내분을 '난투극', '전쟁터', '공방전' 등으로 묘사한 것은 알권리 차원을 넘어선 방송폭력이었다. 이 보도는 언론이 종단사태를 보는 역사적 안목 없이 그저 종권을 둘러싼 폭력사태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불교 관련 TV 문화 프로그램이 주로 전통문화에 관련된 것만 다루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일부 방송작가들의 불교 폄하와 의도적 불교 매도 역시 심각한 문제이며, 방송위원 인사도 종교편향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박경훈(전 법보신문 주필)

불교계는 TV와 라디오 등의 전파매체와 150여종의 정기 · 부정기 간행물을 갖고 있어 언론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교 언론의 불확실한 미래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유사종교는 불교언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불교 언론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이비 · 유사불교나 빠지는 밀레니어니즘에 현혹되는 세태와 경향을 감시하고 경종을 울리는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이비 · 유사종교로부터 부처님의 정법이 침해받지 않고 중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교 언론이 호법정신으로 무장돼 있어야 한다.

독자투고

죽림산사에서

안개 속에서도
강원도의 산빛은 달랐다.
푸르름 속에 먼 길을 달려
고향의 품인 듯 속속 안겨들었다.

오랜 반가움으로 가슴 적시며
긴 사연 대신 따신 손 마주잡는다.

백발 성성한 나이에 외쳐보는 삼대강령
"우리는 진리의 벗, 참다운 구도자가 되련다!"
삼심 성상(星霜)을 뛰어넘는 젊은 외침이어라.

어둠이 내려 산사의 적막이 짙어갈 때까지도
오롯한 한 마음, 그 열정 식을 줄 몰라라.

깊은 밤
가만가만 잰 걸음으로 오는 비
검은 그림자 길게 드리운 뜨락 나무 아래선
이름 모를 풀벌레 밤을 새워 우는데

불빛 찾아 몇 번이고 낙상(落傷)하는 나방이를 보며
언제 놓았는지조차 모를 심우(尋牛)의 끈을 찾아
이 밤도 다소곳이 머리를 조아린다.

이 글은 5월 24일 횡성 죽림산사에서 열린 대불련 총동문회 수련대회에 다녀온 7기 부회장 이자옥(광장중) 교사가 본지와 대불련총동문회가 벌이는 동문 찾기 캠페인 시작을 기념하여 보내온 글이다.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하계 수련회 안내

이뭣고?
참사람의 향기가 묻어나는 도량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여름 수행의 장을 마련합니다.
하루 밤의 꿈과 같은 인생살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사람의 수행을 통해서 나와 남의 분별과 집착이 없는 깨달음을 향해 대자유인이 되는 길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찻 수	기 간	정 원	대 상
36차	7월 21일(월) - 7월 25일(금)	50명 (남:25, 여:25)	20세 - 60세 일 반 인
37차	7월 28일(월) - 8월 1일(금)	50명 (남:25, 여:25)	
38차	8월 4일(월) - 8월 8일(금)	50명 (남:25, 여:25)	
39차	8월 11일(월) - 8월 15일(금)	50명 (남:25, 여:25)	유 경 험 자

1. **참가자격** : 20세이상 60세미만 (정원관계로 신청자중 소정의 심사로 선발)
2. **접수기간** : 7월 10일 오후 5시까지 (미리 예약 접수)
3. **접수방법** : 신청서류 전형, 신청서류 작성
4. **접 수 처** : ●백양사 종무소 전화 : (061) 392 - 7502 / 팩스 392 - 2081
   ●백양사 참사람 수행원 전화 : (061) 392 - 0434 / 팩스 392 - 0435
   ●백양사 홈페이지 (www.baekyangsa.org) → 참사람 수행원 → 수련회 신청서 작성
5. **수련회비** : 9만원(4박 5일)
6. **준 비 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운동화지참(수련복 지급, 수련후 반납)

백양사 종무소 061)392-7502 수련회담당자 : 장세실

하안거 단기출가(산사체험) 안내



歸鄕! 수행속으로…

귀향은
자기 자신의 근원(本來面目)으로의
돌아감(回歸)이요,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산사의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심신을 맑히는 수행속으로…

수련회 일정
- 제1차 7. 2 - 5(일반)
- 제2차 7. 9 - 12(일반)
- 제3차 7. 16 - 19(일반)
- 제4차 7. 24 - 26(중고생)
- 제5차 7. 28 - 30(어린이)
- 제6차 8. 1 - 4(일반)
- 제7차 8. 6 - 9(일반)

수련회비
- 일 반 : 80,000원
- 중고생 : 50,000원
- 어린이 : 20,000원

계좌번호
- 우체국-예금주 : 직지사 702829-01-000591
- 농 협-예금주 : 직지사 737081-51-014041

직지사 종무소 : 054-436-6174, 6013 홈페이지 : www.jikjisa.or.kr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 지 사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 자원봉사자들이 15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했다.

"따뜻한 대접 너무 기분 좋습니다"

조계종 부산경남봉사단 방글라데시 노동자 60명 초청 식사제공

"너무 고맙습니다. 따뜻한 대접을 받으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5일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지부장 이기표)가 부산시내 모부페에서 마련한 식사에 초청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은 서툰 발음으로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대부분이 산업 연수생으로 타국생활의 외로움에 힘들어하던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은 한끼 식사대접에도 기쁨을 감출 줄 몰랐다. 부산, 양산, 김해 등의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60여명이 함께 한 이날 행사는 지난 5월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가 마련한 첫 행사여서 더욱 뜻깊었다.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과 인연은 지난해 아시안게임과 아태장애인게임으로 거슬러간다. 부산경남지부의 봉사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던 부산보현의 집이 방글라데시 선수들을 서포터즈한 인연의 끈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과 훈훈한 정을 나누는 자리로 이어진 것이다. 앞으로 매월 한차례 식사 초대와 함께 통도사, 범어사 등 사찰 순례, 한국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8월 중순에는 통도사를 방문해 암자순례, 사찰 음식 맛보기, 차 마시기, 등 한국문화체험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기표 부산경남지부장은 "한끼 식사는 곧 사랑"이라며 "생활용품, 음식, 현금 지원 등 다양한 후원과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506-0146

매월 1회 통도사 등 순례 · 사찰음식 맛보기 등 문화체험행사

천미희 기자

대구불자들 '환경지킴이' 나섰다

동화사 · 대구경북포교사단 환경보존실천위원회 결성

사찰환경과 수행환경보전을 위해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나섰다.

동화사(주지 지성)와 대구경북포교사단(단장 권대자)은 29일 오후 3시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대구불교 환경보전실천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대구지역 환경보호를 위해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지역에서 불교계 환경운동단체가 창립되기는 이번이 처음. 환경보전실천위원회는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이 상임고문을, 동화사 사회국장 덕현스님이 위원장을 맡아 대구경북포교사단 환경팀 소속 포교사들과 함께 지역 불교성지인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지에서 다양한 환경보전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환경보전실천위원회 위원장 덕현스님(동화사 사회국장)은 "제2의 남산이라고 불리는 팔공산이 현재 무분별하게 지어진 러브호텔 등에서 나오는 폐수와 관광객들의 버리고 간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전실천위원회는 앞으로 동화사 주변의 환경정화운동과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실천하는 환경운동을 펼치는 환경지킴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팔공산 순환로에 야생화 '꽃길'

참나리 · 원추리 등 시민들에 볼거리

갓바위-동화사-파계사로 이어지는 팔공산 순환도로에 야생화 꽃길이 조성돼 이곳을 찾는 불자와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갓바위에서 파계사까지 16.3km에 이르는 팔공산 '야생화거리'에는 참나리, 원추리, 꽃창포, 옥잠화, 맥문동 등 초여름의 전령사들이 이미 만개해 불자와 시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은 물론 자연학습장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야생화 거리'에는 모두 30여만본의 야생화들이 심어져 있으며, 팔공산 관리사무소가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월 완료했다. 박원구 기자

삼보사찰, 새 수련풍토 조성

3寺 포교국장, "문화 · 수행 · 참선으로 특화"

통도사 정법 스님, 해인사 현진 스님, 송광사 월서 스님 등 삼보사찰 포교국장스님들이 12일 해인사 청화당에 모여 수련회 운영에 관한 정보교환과 함께 의견을 공유했다.

스님들은 이 자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련회를 운영해 온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삼보사찰이 먼저 모범을 보여 다양한 포교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스님들은 이를 위해 통도사는 다양한 불교문화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수련회로, 해인사는 스님들의 일과를 따라해 보는 수행위주로, 송광사는 선을 중심으로 하는 수련회로 각각 특색 있는 수련문화를 창조해 나간다는 큰 틀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수련동문회 등의 활성화를 통해 수련생들이 수련회 이후에도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박원구 기자

경주 남산일대 새위치 표지판

앞으로는 경주 남산을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게 됐다.

경주소방서는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경주 남산의 119구조 표지판을 새로 설치했다.

새로 설치된 표지판은 신라인의 미소와 당모양으로 남산 8개 등산로에 모두 50개가 설치됐으며,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어 조난을 당했을 때 이 번호를 알려주면 쉽게 구조가 가능하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새 표지판 설치로 구조시간을 단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원구 기자

특수분야 교원연수기관 통도사 성보박물관 선정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2003년 특수분야교원 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통문화관련 과목 담당 교사, 전통문화관련 특기적성교육 및 특별활동 지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초, 중등교원 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은 전국 초, 중등교원 40명을 대상으로 8월 4일부터 5일간 열린다. 신청은 30일부터 7월 16일까지 받는다. 문의 (055)384-0010 천미희 기자

강서예술촌 개촌 2주년 '다구와 그 주변展' 열어

예술인 30여명이 입촌해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부산 강서예술촌(촌장 강세우)이 개원 2주년을 기념하며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시실에서 '다구와 그 주변전'을 연다.

1천3백여평 규모의 폐교에 예술촌 갤러리, 작업장, 야외공연장,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춘 강서예술촌은 일반인과 학생들이 꾸준히 찾는 지역 문화공간이다. 천미희 기자

도자기 성덕대왕 신종 관광기념품 경진 대상

경상북도가 주최한 제7회 관광기념품 경진대회에서 거푸집을 사용하는 기법을 응용한 경북 칠곡 김재철 씨의 '도자기 성덕대왕 신종'이 대상을 차지했다.

경상북도는 "도자기의 맑은 소리가 성덕대왕 신종의 울림을 연상케 하고 있다"고 대상선정이유를 밝혔다. 박원구 기자

"선불교 중심 한국중세불교사 연구 미륵신앙중심 정토사상 고려돼야"

영남대서 학술대회

"나말여초를 고대에서 중세사회로의 전환기로 파악하여 교학불교 특히 화엄사상을 고대사회의 보수적 이데올로기로, 선사상을 중세불교의 지표인 변혁사상으로 인식한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오류가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와 한국중세사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13~14일 영남대 국제관에서 열린 '한국 중세 불교사의 재조명' 전국 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부산대 채상식교수는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시대구분 논의에 있어 선사상을 중세사회의 지표로 삼아 기존 교학불교와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선불교 중심의 중세불교사 연구에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한 정토사상, 불교의례와 직접 연결되는 밀교적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당시 선사상이 불교의 실천성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시기 사회변동을 추동한 사회세력의 신앙적 기반은 궁예가 민중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미륵불을 자처한 사실과 지방 촌주들의 신앙형태를 살펴보면 정토신앙이 주류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영남대 김호동교수도 "불교사 연구는 사실적 해명과 함께 비판적 차원의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지금까지 불교사 연구는 고승들에 대한 사상해설에만 급급해 대중들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편 학술대회에는 강원대 김흥삼교수, 전남대 변동명교수, 일본 구택대 조명제교수, 동국대 채인환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박원구 기자

미륵 제일성지 금산사 여름 수련회 안내

백재 법왕 원년에 창건하고 통일신라 진표 율사께서 중창한, 고즈넉하고 아늑한 모악산 금산사에서 금번 단기출가체험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짧은 인생 노정(路程)에 있어 참 행복과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참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수행기반을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불기 2547(2003)년 여름 수련회 일정표

순차	기 간	대상자	인 원	동참금	비 고
1	7월 20일(일)~7월 22일(화)	어린이	100명	20,000원	초등학교 3학년이상
2	7월 25일(금)~7월 27일(일)	청소년	300명	30,000원	중 · 고등학생
3	8월 01일(금)~8월 04일(월)	일반1	80명	70,000원	20세~60세
4	8월 14일(목)~8월 17일(일)	일반2	80명	70,000원	20세~60세

여명의 새아침 일주문에서부터 금산사 중창주이신 진표율사가 세우신 방등계단까지 삼보일배로 정진하여 미륵십선수계식을 엄숙하게 봉행합니다.

- 장 소 : 금산사 보제루(2층 누각)
- 도착시간 : 어린이(오전 10시), 청소년 일반 1/2(오후 2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구, 세면도구, 고무신(운동화), 손전등, 간소복, 여벌옷
- 접 수 : 선착순 마감
- 수련회비 납부처 : 우체국 400473-01-000707 (예금주 금산사)
  농 협 525133-51-000481 (예금주 금산사)
  입금 후 전화 연락 요망(수련회 불참 시 수련회비 반납불가)

※ 자세한 연락 및 문의처

종무소 전화 063)548-4440~2 / 팩스 063)548-1390

불교회관 전화 063)277-3497, 251-4942 / 팩스 063)275-0108

금산사 홈페이지 http://www.geumasansa.org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보현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보현스님

새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보현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엣된 여승을 바랑을 질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을 전하고 그들의 찌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줄곳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 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만 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안양의 00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고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현사 보현스님 합장

宗門第一書 碧巖錄 懸吐 法徹一愚 譯解

泰華淨圓 平心寺의 정원스님이 毛筆로 手書한

벽암록의 영인본



역해본 원본

碧巖錄

卅餘年前初學時	삼십여년전 처음 배울 때
黑底字兮白底紙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더니
譯解書刊將十載	역해(譯解)해 써서 간행한 지 거의 십년에
有求索人付意味	구색(求索)하는 사람이 있음에 의미를 부여할까나.
杲師燒却疲學語	고사(杲師)가 소각함은 말을 배움을 경계했음이니
至今流通一場愁	지금토록 유통(流通)하니 한바탕 근심일런가
抹底何嘗限碧巖	지울 것이 어찌 벽암록에 한할 뿐이랴
看他本師涅槃時	저 본사(本師)의 열반하실 때를 보아라.
無所說已多語	설한 바가 없음이라 함도 이미 말이 많음이니
倚天太阿不容擬	하늘에 기댄 태아검이 헤아림을 용납하지 않느니라.

- 泰華淨圓 -

300질 한정판 / 정가 140,000원

도서출판 수미산 02)3672-4276

현대불교 구독 · 광고 문의

02 · 737 · 8881



목판인쇄 하던 청주 원흥사터 지킨다

사진제공=청주생태교육연구소터

직지 72년 전<금강경> 인쇄한 곳

개발반대 10만 서명운동 전개

토지공 충북지사 17일 시굴조사

조선왕조실록에 목판 금강경 인쇄지로 기록된 청주 원흥사지가 시굴조사된다. 이는 최근 충북지역 45개 시민단체가 "청주가 세계문화유산인 금속활자 직지심경을 탄생시켜 고인쇄문화의 시원이 된 것은 그보다 72년 앞서 고려 목판본 금강경이 인쇄된 원흥사에서 기반하는 만큼 사지의 발굴 · 보존이 시급하다"는 성명과 함께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청주시 산남3지구를 청주지방검찰청과 아파트 단지 예정지로 지정한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는 17일 문화재청에 원흥이 방죽 북서쪽 구룡산 기슭 1만여평의 시굴조사(표본조사)를 신청했다. 이달 안으로 시굴조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토지공사 충북지사는 원흥이 방죽 일대가 원흥사지라는 증거나 유물이 나오면 토지이용 계획을 수정하고, 문화재 현장 보존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청주 원흥사는 현재 자세한 사적기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다. 다만 '조선왕조실록'과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조선 초기까지 현재의 원흥사 터에 규모가 크고 목판 금강경등을 출판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서대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원흥사가 법주사와 함께 고려시대 교종을 대표하는 법상종의 사찰이었음을 밝혀주는 자료도 있다. 법주사의 미수대사 비에 법상종(法相宗)의 고승이었던 자정국존 미수대사가 원흥사에 주석 중이던 종연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

최근에는 부산시에 사는 박모씨가 소장중인 금강반야바라밀경의 간기(刊記)에 고려 충렬왕 31년인 1305년에 육구거사 박지요 등의 발원으로 청주목에 있는 원흥사에서 책을 간행 했다는 기록이 발견됐다. 간기에 나오는 '원흥'이라는 지명은 청주에서 산남지구 안 원흥이 방죽 밖에 없고, 주민들도 이 일대를 원흥사지로 알고 있으며, 구룡산 자락에서 주춧돌과 탑부재, 고려토기 등이 다수 발견되는 상황이다.

한편, 생태교육연구소 터 등 충북지역 45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원흥이 방죽 두꺼비마을 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원회와 직지포럼은 공동으로는 19일 청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원흥사와 흥덕사-목판과 금속활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승환 충북민예총 회장과 토론자인 박종룡시의원 이국흠 충북문화재 연구관 등은 "목판 금강경을 인쇄한 원흥사 주위에 철 제련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흥사에서 인쇄된 목판은 금속활자 직지 인쇄의 선행단계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책위는 원흥사가 금속활자본 '직지'를 인쇄한 인근 흥덕사의 본찰이었을 것으로 보고 택지개발 계획 인가의 전면 유보를 충북도에 촉구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무안 연꽃방죽 세계 기네스북 오른다

국내 최대 백련 서식지로 내년 결정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마을 연꽃방죽이 국내 최대 백련(白蓮)서식지로 기네스북에 오른다.

무안군은 15일 회산마을 일대 33만㎡(10만여평) 연꽃방죽이 국내 최대 백련서식지로 인정돼 최근 기네스북 국내 사업권자인 ㈜한국기네스로 부터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기네스로부터 인증서를 받음에 따라 회산 연꽃방죽의 세계 기네스북 등재 여부는 인증기관인 영국 월드레코드사의 확인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군은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연꽃과 관련이 깊은 스님과 불자들의 의견을 들어 자연친화적인 생태 학습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원우기자

예산 수덕사 30일 능인선원 상량법회

10억여원 들여 중창불사, 올 가을 완공

덕숭총림 예산 수덕사(주지 법정)는 30일 오전 10시 산내암자 정혜사 능인선원 상량법회를 개최한다.

10억여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대대적인 중창불사에 들어가 올해 가을 완공예정인 정혜사 능인선원은 선방(40평) 개조, 전통양식의 요사채(60평), 목욕탕(30평), 우물, 해우소(화장실)가 건립중이다.

정혜사 능인선원은 근대 한국불교의 지주와 동량이 되었던 경허, 만공스님을 비롯 전강, 금오, 춘성, 청담, 혜암, 벽초 스님 등 수많은 눈 푸른 납자들이 용맹정진했던 곳이다.

599년 지명법사가 창건한 정혜사 능인선원은 불사를 위해 지난해 동안거부터 잠정폐쇄된 상태다.

문의 041) 337~6565. 김원우기자

강남 봉은사, 서산·사명 장학회 설립

장학금 전달 등 인재양성에 나서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가 15일 서산 · 사명 장학회 현판식을 갖고, 불교인재양성에 나선다.

임진왜란당시 승병을 지휘했던 서산스님과 사명스님의 유지를 받든다는 취지에서 명명된 서산 · 사명 장학회는 앞으로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과 명성여중 학생,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원우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삶이 기도로 이어지는 날까지

부산 미타암 진여심보살

부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인 용두산 공원을 오르다보면 계단 오른쪽으로 미타암이 있다. 부산 남포동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미타암에는 그 계단을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내리는 보살이 있다. 진여심(49.배정심)이라는 법명을 가진 그 보살은 일년 전까지만 해도 '막갈리다'라는 세례명으로 불리던 천주교 신자였다.

"집안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무언가 내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받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 절을 찾게 되었다"는 진여심 보살은 그렇게 10년 동안 다니던 성당과의 인연을 끊고 미타암에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것이 지난해 가을경이다. 어머니, 할머니를 따라 갔던 절에서 곁눈질로 배웠던 인사법으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린지 2달 후, 진여심 보살은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남들보다 늦은 출발이었기에 좀더 철저하게 해보자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100일기도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미타암 계단을 오르게

10년 천주교 신자
1년전 불현듯
절 찾게 돼
늦깍이 극복위해
1080배 기도 참여등 열심

했다. 미타암과 가까운 곳에서 피부미용실을 하고 있는 진여심보살은 손님예약이 없는 날이면 사시예불에도 참여해 기도를 이어갔다.

"처음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동생 때문에 고통을 받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어요." 얘기 끝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기도 후 스스로의 마음이 편안해진 것은 물론이고 동생이 한고비를 넘기고 미타암의 공양주가 되어 한창 진행중인 불사와 사중 대소사를 챙기게 되면서 지금은 세 번째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삶이 곧 기도로 이어지는 게 목표지요." 새벽마다 피곤한 몸을 일으키는 고단함을 감수하는 이유다. 건강을 염려하며 기도를 만류하던 남편 신정환(50) 거사도 거사법회에 빠짐없이 나오는 도반이 되었다. 늦깎이 불자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수요일 금강경반, 매월 열리는 1080배기도 등에 적극 참여하다 보니, 제법 마음의 중심이 섰다.



◇매일 미타암을 찾아 기도하는 진여심 보살.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진여심 보살의 기도는 이제 미타암 불사 원만회향의 원력으로 승화되고 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중심을 제대로 세워 정진하고 싶다"는 진여심 보살의 초발심은 타성에 젖은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채찍이 되고 있다.

천미희기자



추천의 말

도경스님 미타암 주지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등 포교사 될 것

초심자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신심이 깊고 한결같이 기도에 임하는 모습에 많은 신도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8월 중순경 시민선방을 갖춘 도심도량의 면모를 갖추면 미타선원으로 사명을 바꾸고 본격적인 도심포교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동생과 남편까지 불연을 맺게 한 진여심 보살은 앞으로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찰의 일등 포교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 3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어린이를 부처님처럼...』(신나고 재나는 우리절 짱!)

1. 일 시 : 불기2547년 6월 21일(土) 오후2시 ~ 22일(日) 오후 3시
2. 장 소 : 봉은사 보우당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02-511-6070
【교통편 안내】 지 하 철 : 2호선 삼성역 하차(6번 출구) 도보 10분
3. 교육내용 Sing in Game
찬불가 I - 권장 찬불가로 불교학교를...
찬불가 II - 신 찬불가와 율동
풍선장식
몸풀기 체조 및 Rec Dance
Game(New Sports)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촛불의식
4. 참 가 비 : 일반 40,000원 / 회원 30,000원 / 군종 및 제주도(도서벽지) 20,000원
5. 접 수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온라인 구좌 : 국민은행 006-01-0801-770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농 협 053-02-177171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6. 문의 및 접수 : ☎ 02-738-7860(代), 739-4967(본회 사무국) FAX. 02-738-7863
http://cafe.daum.net/burec (본회 다음 카페)
※ 준비물 : 이불(큰타올), 필기도구, 세면도구 등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기도처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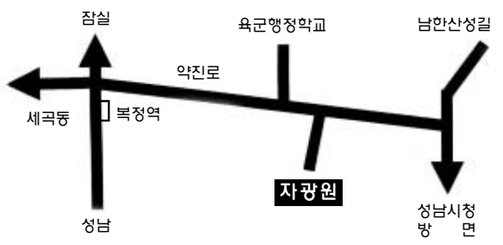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 ~ 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5평) 24실 (각실 인토폰 설치)
→ 오락실, 체련실, 제1물리치료실,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법당, 식당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승속 혼연일체 대승불교운동 전개

한국불교-종단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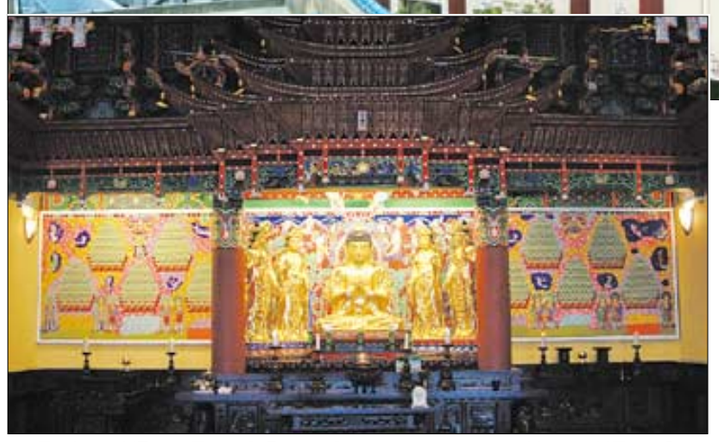
대한불교 관음종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 등 유사명칭 사용 종단이 대폭 늘어나면서 불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기성 종단들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종단난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난 7월 11일자로 종교법인 인 · 허가 관련 협조를 정부, 광역시, 도청 등 자치 단체에 요청하여 전통불교의 위상에 걸맞는 종단설립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종단불교의 특성을 지닌 한국불교 종단 가운데 한국불교의 공식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 종단 25개를 대상으로 종지, 종풍, 교세 등을 살펴, 종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여 정법 포교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열독을 바랍니다.

■후원=(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6월7일 대불보전을 낙성, 총본산으로 사격을 완비한 묘각사 전경.



◇묘각사 대불보전 내부모습. 금어 만봉스님이 직접 제작한 후불탱화등 보물급 성보로 가득하다.

사찰수 600여개 ·신도 1백만의 거대종단

65년 불입종 창종, 88년 관음종으로 개명

원로회의 · 호법원 · 중앙종회 · 교육원 · 포교원 갖춰

종단현황

대한불교관음종은 태허 홍선(太虛 泓宣) 대종사에 의해 1965년 불입종이라는 종명으로 창종했다. 57년 법화경의 보살실천사상을 중심으로 일승불교현정회를 창립한 지 8년여 만의 일이었다. 관음종이라는 종명은 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자 법인으로 개편하면서 사용하게 됐다.

관음종은 600여 소속 사찰과 1백만 신도를 거느린 불교 주요종단이다. '불지지견 개시오입(佛之知見 開示悟入)'의 법화사상을 정혜(定慧) 겸수로서 체득하여 관세음보살의 제세원력을 구현할 것을 종지로 봉대하고 있다. 특히 관음종 개산조인 태허 홍선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 현대사에 우뚝 선 종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태허 홍선 대종사는 1905년 출생해 28년 경상예비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26세 때인 30년 순천 선암사에서 경운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전국 사찰의 제방선원과 중국 산서성 사찰을 돌며 구법참구하여 고승들의 가르침을 사사했으며, 현재 관음종 총본산인 묘각사를 창건했다. 57년에는 종단의 모태가 된 일승불교현정회를 창립, 제자들을 가르치며 포교에 진력해 관음종을 불교 주요종단으로 우뚝 세웠다. 또한 일찍이 국제 불교교류에 눈 떠 한일불교친선회 고문으로서 역할을 다했으며, 청(소)년포교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마하불교학생회 등을 창립하기도 했다. 이렇게 온 국민에게 법화사상과 관음종의 포교에 힘쓰던 스님은 79년 6월 세수 74세 법랍 50년의 생애를 마치고 묘각사에서 열반했다.

관음종은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총무원을 비롯해 원로회의, 호법원, 중앙종회, 교육원, 포교원의 조직을 거느리고, 총무원 산하에 총무부, 교무부, 재무부, 사회부, 감찰부를 두어 종무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신도조직인 시도종무원 신도회, 각 사원신도회를 총괄하는 중앙신도회를 두어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관음종
www.Kwanum.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78-3
(02)763-0054, 763-3345

총본산 묘각사

30년 태허 대종사 창건…관음종 발원지

7년 불사 대불보전·원통보전·선방 낙성

관음종 총본산 묘각사는 1930년 5월 태허 홍선 대종사가 창건, 두차례의 중창을 거치며 법화사상을 펼치는 도량으로 자리잡았다. 창건 이래 <법화경>을 중심으로 수행과 대중불교 운동을 지향한 법화신앙의 중심사찰의 역할을 다했으며, 도심에 위치한 서울시민의 안심입명의 귀의처로서의 역할을 다한 관음성지로 거듭났다.

97년 2월 화재로 법당과 범종각, 요사가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던 총본산 묘각사는 관음종 모든 종도들과 불자들의 관심 어린 후원으로 7년여의 불사 끝에 지난 6월 7일 대불보전과 원통보전, 시민선방을 낙성했다. 새롭게 복원된 묘각사는 대지 530여평에 지상 3층 연건평 500여평 규모를 자랑하는 웅장한 모습으로 총본산의 사격을 갖췄다. 대불보전 내 후불탱화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48호로 지정된 금어 만봉스님의 작품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북한 만수대에서 자수로 제작한 수월관음도가 자리해 눈길을 끈다.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낙성식에서 "지금까지 합심하여 복원 불사를 이루었듯이 총본산 복원을 종단 발전의 전기로 삼아, 더욱 더 애종심을 발휘하고 신심을 증진시켜 불교발전을 선도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겠다"고 서원했다.

이에 따라 관음종은 시민선방, 강원을 마련해 불자와 시민들에게 묘각사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청년불자들의 신행 · 기도 공간으로 제공해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종단의 총무원과 각종 중앙종무기관을 입주시키는 한편 승려연수교육과 종도들의 정신적 귀의처의 위상을 되찾아 총본산으로서의 기능도 되살려 나갈 방침이다.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묘각사 복원불사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한 사찰을 복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관음종과 한국불교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며 "종단의 전법도량이면서, 아울러 불교와 종단 발전을 이끌 도량으로 가꿔 나가기 위해 모든 종도들과 불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원불사에 기여한 법성화 보살의 공덕비.



◇관음종은 6월7일 3천5백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중앙종회 의장 법륜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인천 흥륜사.

시민 안식처로 만들어 나갈것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서울 종로구 숭인동 낙산에 소재한 총본산 묘각사를 바라보는 홍파스님(총무원장 · 사진)의 감회는 남달랐다. 화재로 사찰의 대부분이 소실된 지 7년 만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묘각사는 1930년대에 조그만 암자로 창건됐습니다. 해방 이후 불교계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태허 대종사는 독자적인 불교운동을 전개하자는 인식을 가지고 관음종을 창종했습니다. 묘각사는 관음종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죠."

묘각사는 창건이래 '법화경'을 중심으로 수행과 대중불교 운동을 지향한 법화 신앙의 중심사찰로서, 현 위치에 절을 세우면 서울이 편안하고 시민생활에 안정을 가져온다는 풍수지리설에 의해 터를 잡았다고 전해진다. 또 석굴암의 불상은 모두 북쪽으로 향해 있는데, 이는 북녘동포의 안녕과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

1988년 재단법인으로 자리 잡게 된 관음종은 묘각사를 중심으로 '불교아학운동'과 '불교사원화운동' 등 대중불교와 생활불교 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다 97년 2월 총본산이던 묘각사가 화재로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잠시 주춤했다.

화재 당시를 떠올리던 홍파스님은 "관음종의 스님들은 묘각사를 정점으로 포교활동을 해왔는데 갑작스런 화재로 대웅전과 종각 등이 소실되면서 포교활동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 후 7년간의 재건 노력 끝에 총본산 묘각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7일 열린 낙성식에는 불교종단협의회장 법장스님(조계종 총무원장),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스님,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천5백여명이 참석해 묘각사의 재건립을 축하했다.

불교 사회 · 대중화 운동 새 차원서 추진

홍파스님은 "열린 시대를 맞아 사찰도 스님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안식처가 돼야 한다"며 "법당과 강당 등 100평 남짓한 공간에 '시민선방'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스님은 또 "대중이 찾아오고 대중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불교사회운동, 불교대중화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각도의 법화 화엄사상의 불교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종단발전 기반조성에 힘쓸터

관음종 중앙종회의장 법륜스님



"중앙종회는 종단의 교육체계와 위계질서를 바로 잡고 종풍을 선양하기 위해 종도들의 민의를 하나로 모으고 총무원의 각종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교계 중심 종단으로 우뚝 서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중앙종회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관음종 중앙종회 의장 법륜스님(인천 흥륜사 · 사진)은 종단 발전의 기반 조성에 중앙종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종도와 불자들의 뜻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강조했다.

법륜스님은 7년여의 불사 끝에 지난 6월 7일 낙성한 총본산 묘각사를 이같은 의지를 실현하는 중심도량으로 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낙성식이 끝난 뒤 법륜스님은 "종도들과 불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원불사를 추진한 결과 묘각사가 총본산, 법화신앙의 중심사찰로서의 사격을 갖춘 도량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묘각사 복원을 계기로 종도들이 종단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총무원장 홍파스님을 중심으로 종단 중흥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님은 "원로의장, 총무원장 등 7인으로 종정추대위원회를 구성해 새 종정을 추대해 총본산과 큰 어르신인 종정을 중심으로 종단과 불교의 발전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륜스님은 대중속으로 파고들어 가는 종단, 사회에 참여하는 종단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심에 중앙종회가 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스님은 "복지예산을 늘리는 등 종단에서도 사회 속에 함께 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예산 확대 등 시민사회에 동참

법륜스님은 89년 초대 포교원장을 거쳐 90년 중앙종회 의장에 취임, 종풍 선양에 힘써 오는 한편 40여년간 인천지역에서 포교와 복지사업에 매진해 종단의 위상을 높여왔다. 특히 인천시불교연합회장, 인천지방경찰청 경승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종단을 초월한 포교활동으로 지역민들의 존경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명칭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덕적도 핵폐기장 백자화운동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고 수인선 전철 조기착공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인천 녹색연합 공동대표 등을 맡아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만다라 문화원
진품 만다라 친견 · 감상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02)3673-3881



◇송광사에 온 관광객들에게 벽화를 설명하는 곽종형 거사. 산사에서의 삶이 즐거워서 일까. 71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활기차다.

경로당, 공원벤치의 삶 'NO'

'OPAL족'

(Old People with Active Life)

절에서 빛나네

'사오정' '오륙도'란 말을 아시나요?
손오공이나 부산을 연상하면 헛짚은 것입니다. 바로 퇴직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직장인들의 자조섞인 유행어랍니다. 사오정은 '45세에 정년을 맞는 남자'를, 오륙도는 '56세까지 회사에 남아있으면 도둑'이란 의미랍니다.

관광객들에게 불교 알리는 일 즐거워 "퇴임 불자교수들, 포교 적극 나서세요"

30년 직장 퇴직후 길상사 근무 자처 사찰 일이라면 밤,낮 구분 없어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수명이 72세(2000년 통계청 발표)이고 2010년에는 76세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년은 빨라지는데 수명은 늘어나니 인생 후반의 삶이 길어지는 것이지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준비가 미처 되어 있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년들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지요. 그러나 요사이는 경로당이나 공원 벤치에서의 삶을 거부하는 노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활동과 여행으로 활기찬 삶을 살고자 하는 노인들, 이른바 '오팔족(OPAL-Old People with Active Life)'이 고령화사회의 새로운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불교계에는 '다른 의미의 오팔족'이 있습니다.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하고난 후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절에 들어가 봉사도 하고 수행도 하며 의미있는 노년을 보내는 불자들 말입니다. 은행, 정부기관, 교직 등의 직장생활 경험을 살려 사찰 행정을 돕고, 사찰정비, 신도 · 재정 관리, 수련회 준비 등 대 소사를 돌봅니다. 먹고 사느라고 바빠 그동안 소홀했던 불교 수행도 열심히 합니다. 정년을 맞고 다시 사찰을 새로운 근무처(?)로 삼아 수행과 봉사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오팔족'의 선두주자가 곽종형 · 이만성 거사입니다.

'송광사 가이드' *곽종형* 씨

부처님들의 이름은 왜 다를까? 벽화의 내용은? 절에 가보면 궁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요.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사실 불자라고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특히 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절에 들어갔는데 문화재 안내 간판만 읽고 나오면 왠지 허전합니다. 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승보종찰 순천 송광사에 가면 이러한 갈증이 풀려요. 곽종형거사(71)로 인해서지요. 지난 99년 진주 경상대 축산학 교수직에서 정년퇴직한 곽거사는 바로 송광사로 들어왔습니다. 송광사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대표적인 고찰입니다. 학생들 수학여행의 단골코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르르 몰려와서는 건물이나 대충 보고 사진이나 찍고 가는게 고작입니다.

곽종형거사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송광사의 역사와 특색, 문화재 소개 등을 자세히 해줍니다. 불교 지식도 해박하니 자연스럽게 불교포교도 하고 있는 셈이지요.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오는 일요일엔 더 바쁘지만, '송광사 가이드' 역할에 자부심이 생기는 때도 그런 때입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지부가 있는 송광사 불일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불일회의 크고 작은 일과, 템플스테이, 수련회 일도 처리하고, 설법도 합니다. 불국사 자원봉사자들, 광주 전남 관광가이드들에게 안내기법에 대한 연수를 시켜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지요. 1969년 구산스님이 방장으로 있을 때 불일회 진주지회장을 맡고부터 송광사와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루 세 번 예불에 참석하고, 감로암이나 불일암까지 걸으며 사색하고, 참선하며, 불서를 보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는 그는 "대숲 바람소리를 들을 때는 내 마음도 대처럼 비워지는 것 같다"고 흐뭇함을 토로합니다. 나이가 들면 심신이 위축되기 쉬운데 조계산의 넉넉함을 닮아가는 것 같아 나날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이라면서요.

곽종형 거사가 두번 세 번 "퇴임 불자교수들은 포교를 위해 할 일이 많다"고 강조합니다. "전문지식인이고 구변(口辯)도 좋을 수 밖에 없는 교수들이 퇴임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 일을 하며 동시에 자신의 수행을 깊게 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여생이 행복하고 보람있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길상사 도량정비사' *이만성* 씨

<무소유>의 법정스님이 회주로 있는 서울 성북동 길상사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7천여평 곳곳에 나무가 우거지고 꽃들이 만발해 있지요. 도량이 유난히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도영거사'라 불리는 이만성거사(65)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7년, 30여년 근무했던 제일은행을 정년퇴직한 이거사는 그해 10월 길상사 근무를 자처했습니다. 가까운 삼선교 근처에 사는 이거사는 새벽 3시면 길상사에 도착합니다. 예불을 봉행한 후 어김없이 빗자루를 들지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거나 겨울에 눈이라도 풍성히 내린다면 이거사의 옷은 몇 번이나 땀으로 흠뻑 젖곤 합니다. 도량 청소 · 보수, 시장보기, 심부름 등 구석구석 찾아서 일합니다. 빗자루로 쓸며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화초에 물을 주면서 주력(呪力)을 합니다.

제일은행 불교회의 산파 노릇도 했던 이만성 거사는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다른 직원들에게 전해 주는 일을 즐겨했을 정도로 독실한 불자입니다. 사찰에서 온종일 생활하는 것이 즐겁기만 하답니다. 길상사 주지 덕조스님은 "심성이 착하고 부지런하며, 절에서 봉사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 분이라 도영거사의 신행생활은 다른 신도들의 귀감이 된다"며, 지난 2001년에는 사찰종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일치된 추천으로 표창까지 받았다고 귀띔했습니다.

길상사 관리장 이종인 거사도 "사찰일이라면 밤중에라도 뛰쳐나오는 분"이라며 무슨 일이든 철저하며 완벽하게 하는 모습에서 존경심이 우러난다고 말하네요.

"일요일에는 도봉산 원통사에 같이 올라가곤 합니다. 1시간여 걸리는데 걸어 올라가는 동안 빗자루를 들고 길을 쓸며 가는 사람이 도영거사입니다. 새 먹이도 항상 준비해 도영거사만 나타나면 새들이 반가워 해요."

감원이다, 명퇴다 불안해 하는 직장인들에게 이만성 거사가 한마디 하겠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오로지 쥐를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하잖아요. 또 쥐도 고양이를 본다면 이 위험을 어떻게 모면할까 그것만 생각하지요. 그렇게 오로지 일념(一念)으로 일하세요. 대충대충 시간만 보내지 마세요. 1인 2역 3역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 그 어느 곳에 있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이만성 거사가 길상사의 나무와 꽃에게 물을 주고 있다. 수행을 게을리 않는 이 거사는 일을 하면서도 늘 염불 · 주력을 한다.

글=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모기기피방향제

스님,
무더운 여름이 찾아 왔습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영원한 불청객 모기들도 찾아옵니다.

스님 어떻하죠?
모기약을 뿌려도 그때뿐이고
절 전체를 모기장으로 둘러 칠 수도 없고
그런데 더 고민되는 것은
모기도 생명인데 무조건 죽일 수도 없다는 것 아닐까요?

이제 돌려보내세요.
지긋지긋한 모기를 돌려보내세요.
"우리 절은 너희가 올 곳이 아니다"라고 넌지시 충고를 하면 모기가 간답니다.
그 모기를 향한 충고, 바로 써브라임이 책임집니다.

써브라임은 모기들은 싫어하고 사람에게는 좋은 친환경 기능성 생활용품입니다.
그래서 써브라임을 사찰의 방이나 마루에 놓으면 모기는 도망가고 좋은 냄새만 남는답니다.

스님! 써브라임으로 올 여름 모기를 살생해야 하는 걱정은 훌훌 털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에서 개발한 자연주의 모기 기피 용품이 있으니까요.
제품의 확실한 효능은 카다록을 참고 하시고 신뢰가 가시면얼른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요.

이상품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에서 개발한 물질로 써브라임과 산학공동개발 한 상품입니다.



홈쇼핑 절찬 판매중

특별보급가 ₩39,800

상품구성
* 방향제 6pcs + 향초 2pcs + 스프레이(100ml) 1pcs

모기기피방향제
* 규격 : 35g(30일용 - 1일12시간 사용기준)
* 천연 모기기피 물질을 사용
* 無전원코드, 자연발향상태를 이용
* 원료특허물질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와 산학공동개발제품
* 無알콜, 無살충제 제품
* 집안, 차안, 텐트안, 화장실 등에 사용 가능
* 2002년 국민일보, 일간스포츠 상반기 히트상품 선정

모기기피향초
* 규격 : 35g(약10시간/개당)
* 천연물질 사용
* 원료특허물질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와 산학공동개발제품
* 無알콜, 無살충제 제품
* 천연팜유 사용으로 장시간 사용가능
* 그을음이 없다

모기기피 코팅제
* 규격 : 100ml(약700회 분무가능)
* 천연 모기기피물질 사용
* 無알콜, 無살충제, 無GAS
* 수용성 마이크로캡슐로 전환하여 향의 지속성 유지/장시간 모기기피 효과
* 원료특허물질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와 산학공동개발제품
* 실내사용 : 창문, 커튼, 벽, 문, 침구등에 사용
* 실외사용 : 텐트, 배낭, 등산회, 낚시터주변, 의류등에 4-5회 도포 사용

설치방법 및 모기특성
* 출입문 입구나 창문쪽 보다는 바람의 흐름이 가장 적은 곳에 두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 모기가 좋아하는 냄새는 사람의 피부에서 발산되는 땀냄새, 화장품냄새 등이며 신체내부의 운동량이 활발하여 발산되어 나오는 이산화탄소(CO2)나 유아 · 아동의 젖산냄새, 노약자의 냄새 등도 모기의 주된접근 대상이 됩니다.

상 품 구 매 처
마하몰 (www.mahamall.co.kr)
☎ 02)732-1520

릴레이 수행일기 〈上〉



정명자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 교수

남해의 바다위로 새벽이 열릴 때 나의 기도는 밤새 무엇을 소망했었는지 모른 체 3.000 배를 마치고 나는 낮은 사람으로 푸르게 열리는 새벽을 맞았다.

갈애를 실감한다.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나를 끊임없이 몰고 다녔던 그 어떤 것, 늘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먼길 돌아왔던 20년 그것이 바로 '무지(無知)' 였음을 어느 날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있었다.

3년전 직장도 공부도 잠시 쉬어갈 요량으로 마음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일년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인터넷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처음으로 '위빠사나'라는 말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들었던 어떤 것과도 다른 살아있는 말씀들이었기에 경이와 흥분, 기쁨과 호기심이 일었고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도 했다.

여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사이트에 올려진 글들을 몇 번씩 다시 읽은 후 답글을 썼다. 감사하게 잘 읽었다고.

어쩌면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옛길로 안내하는 그 길이 거기에 있을 것 같았다.

통화를 하고 그 후로도 한 달쯤 후에 스님을 뵐 수 있었는데 나의 안과 밖을 지금의 모습으

'위빠사나' 접한후 내 삶의 스승만나

책, CD, 비디오테잎 등으로 공부 시작

싯다르타가 강가를 걷고 있을 때 그곳에 서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강물에 몸을 씻으면 하늘에 갈 수 있다."

싯다르타는 그들의 무지함에 분노한다.

"그러면 물고기와 거북이 가장먼저 하늘에 가게 될 거요."

내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스무 살 때. 부처님 뵈러 무작정 찾아갔던 조계사. 마침 조계사청년회 법회가 있었고 안내를 받아 조계사 청년회 회원이 되었다. 화·토요일에 법회가 있었는데 나는 내 삶의 이벤트인양 기쁘게 법회에 참석했다.

그 때부터 20년간을 법회 가고, 법문 듣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천도제 지장제,

금강경독송 부처님의 품안에서 감사하게 보낸 나날들이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일며, 늘 나는 또 다른 부처님을

로 바꾸어 주신 분이 연방죽선원의 법주 스님이시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바른 법 만나기는 더욱 어다는 것을 실감한다.

처음 본 사람을 오래 보아왔던 사람처럼 낯설지 않게 대해 주셨고, 그렇게 나의 구법(求法)은 시작되었다. 나는 하얀 백지였고 어쩌면 형태도 없는 그림들도 가득 메워져 지우느라 더 많은 애를 쓰신 지도 모른다.

스님께서는 "자신이 무지한 상태에서 옳다고 받아들인 것을 진리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부처님 모습을 그려가기 시작했다.

책을 추천해주시고, 오며가며 차에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태잎과 CD , 비디오테잎 등 내가 소화 할 수 있겠다 싶은 자료는 모두 챙겨주시며 부처님과 담마를 바로 알기를 바라셨던 스님. 참으로 중생구제를 실천하고 계셨다. (계속)

"더럽히지 않는게 진정한 수행"

선수련회 28년째 여는 원명선원 대효스님

76년부터 28년간 매년 여름 및 겨울 '삼매체험 선수련회'를 열고 있는 제주 원명선원 회주 대효스님(60). 수련회라는 이름조차 없던 시기부터 재가 불자를 대상으로 수련회를 직접 지도해 온 스님은 4박5일간의 짧은 수련회이지만, 참가자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의미있는 수련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대효스님은 일방적인 교육 보다는 문답식 법문으로 모든 현상에 대한 이해와 발심을 촉발시키는 수련회를 운영하고 있다. 즉 수련생이 문답을 통해 스스로 기복적인 맹목적 삶에서 탈피토록 해 '직관(直觀) 수행'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직관수행이란 업장과 지혜의 유무에 상관없이 곧바로 마음에서 보고 듣고 활동하며, 밝고 맑은 자리를 수용하여 당처를 벗어나지 않는 수행이며 삶이다.

원명선원 수련회는 새벽 3시30분 기상에서부터 9시 취침까지 도량석, 예불, 독송, 행선, 좌선, 요가, 염송 등으로 꽉 짜여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답식 법문과 지도점검이다. 청법(聽法: 법문 듣기)과 문답(問答)을 통한 교육이 조사선 수행전통에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즉 스승의 설법과 직지인심(直指人心: 마음을 알고자 하는 학인에게 그 마음을 바로 가리켜 주는 스승의 행위), 이에 대한 학인의 법문 듣기와 질문 및 선지식의 대답에 대한 참구는 조사선의 기본 참구방법이다.

물론 이 때의 청법과 문답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수인증과(修因證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효 스님은 "청법과 문답은 어디까지나 학인 스스로가 회광반조(廻光返照)하여 자신의 본래면목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위일 뿐 깨닫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은 아니다"고 말한다. 오히려 조사선의 수행법이 좌선관법 등 특별한 능력의 습득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교육법인 문답법이라는데, 보편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대효스님의 이러한 지도방침은 하루 아침에 얻어진 게 아니다. 무수한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수련회를 통해 경험을 축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년간 420여명, 28년간 1만2천여명의 수련생을 교육시킨 결과, 수련생 가운데 세 명이나 출가자를 배출하는 등 좋은 결과도 얻고 있다. 수련후 평상심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수련생도

문답식 법문·지도점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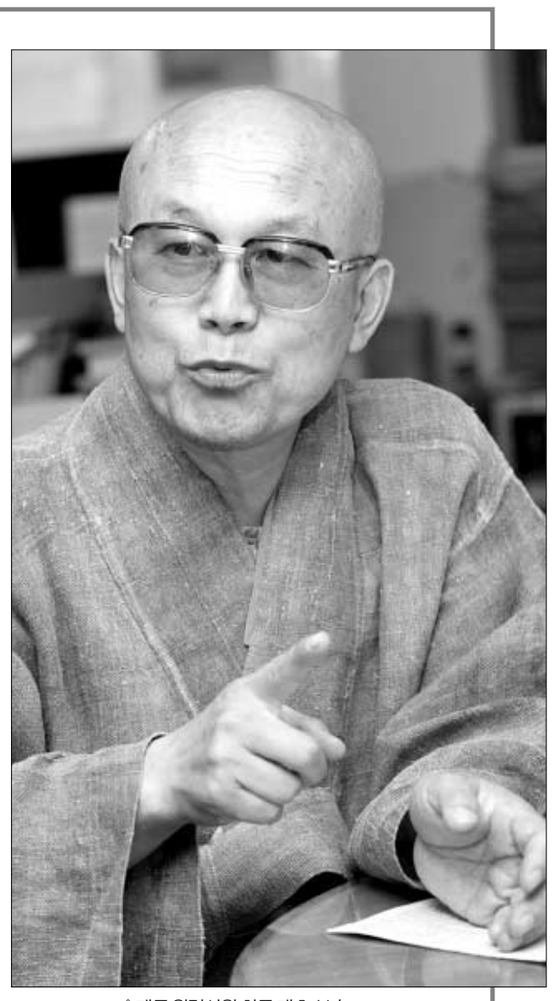
죽산에 대규모 수련원 설립준비

늘어나 '생활 참선인들의 모임'도 생겼다.

몇 년전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에 임야 2만5천평을 기증받은 대효 스님은 현재 수련원 설립을 위한 터닦기 공사에 한창이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의 제자인 대효스님은 "수행이란 인위적인 닦음이 아니라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오로지 진취적이고도 간절한 발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매체험 선수련회는 7월 23~27일, 7월 31일~8월4일, 8월 13~17일 세 차례 열린다. (064)755-3322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제주 원명선원 회주 대효스님.

지금 수련회동문회는 업그레이드 중



◇14~15일 화계사에서 철야 참선중인 '송사모' 회원들.

신행모임에서 수행단체로

평생 도반되어 철야정진도 예사 홈피 개설 등 외호 신장역할 수행

14~15일 서울 수유동 화계사에서 열린 '송사모(송광사를 사랑하는 모임)' 정기수련법회 현장. 토요일 저녁 전국에서 모인 회원 60명은 피곤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108배를 하고 가부좌를 틀면서 점차 편안한 얼굴로 변했다. 이날 저녁 9시부터 회원들은 장장 7시간에 달하는 철야참선을 무사히 회향했다.

이번 철야정진을 이끈 송사모 회장 이계복(32, 법명 장우)씨는 "대부분 사회인들이라 바쁜 시간을 쪼개 1박2일간 산사에서 함께 정진하며 평생 도반이 되어 가는 인연에 만족한다"며 "초심자들이 정기수련법회에 참석하면서 어느덧 구도자가 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01년 9월 결성돼 현재 5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송사모'를 비롯 해인사, 통도사, 수덕사, 월정사, 불회사, 미향사, 쌍계사 등의 수련회동문회들이 초보 신행모임의 성격에서 탈바꿈해 전문 수행단체로 정착되고 있다.

지난 96년 발족된 수련생 모임의 시초인 해인사수련생동문회는 500여 회원이 매월 둘째 토요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1박2일간의 수련법회를 열고 있다. 지난 14일 78회 정기법회를 연 이 모임은 수시로 3천배를 할 정도로 용맹정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창립된 통도사수련회총동문회는 매달 철야 참선법회를 갖는다. 이와 별도로 활동하는 통사모(통도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7월13일부터 8월9일까지 6차에 걸쳐 열리는 통도사수련회에 자원봉사자를 보낼 계획이다.

2001년 11월 결성된 나주 불회사 '수불회(수행하는 불자들의 모임)'는 매달 셋째 주 토~일요일 수련법회를 열며, 소식지까지 발간하고 있다. 월정사 '선우회'는 2001년 9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홀수 달 둘째 토요일 정기법회를 갖는다. '미사모(미향사를 사랑하는사람들)'는 매달 첫째 토요일 철야 참선법회를 열고 있다. '수사모(수덕사를 사랑하는 모임)'도 매달 정기법회를 열고 좌선, 108참회정진, 참선법문 등의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사찰 수련회를 경험한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자신들의 수행을 점검하거나 사찰 외호신장의 역할을 하는 사이버 동호회도 늘고 있다. 이들 동호회는 '화엄사의 향기', 실상사수련동문회를 비롯 백련암, 부석사, 수덕사, 백양사, 축서사, 마곡사, 대흥사, 선운사, 정토수련회, 내소사, 구룡사, 대원사 수련동문회 등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매년 수련회를 거쳐가는 인원은 2만여명. 자생적인 수련회 동문회들이 늘어나고 있어 재가자 수행 풍토 조성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재경 기자

삼매체험 선 수련회 안내

— 참선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

문답식 법문으로 현상에 대한 이해와 발심을 촉발시킨다. 진취적인 수행관을 세우고 참선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를 주는 기회(중도 공해탈 열반 깨달음 등의 관점을 접근한다)

▼ 5일동안 수행으로(특징)

1)직관수행의 길로 바로 들어간다
2)불교와 선 수행의 기초가 확립된다.
3)모든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맹목적인 미혹한 삶에서 탈피하다.
4)불교가 나아가고자 하는 깨달음과 해탈의 삶이 보인다.
5)기복과 타력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6)그릇된 불교관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난다.
7)실생활에서 수행본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틀에 접근한다.
8)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극기훈련식 수련이 아니다.

홈 페 이 지 www.wmsonwon.net(wm선원닷넷)

대상및인원 · 20 ~ 60세 남 · 녀 일반인 70명

수련일정(4박5일) · 1차 : 2003년 7월 23일 ~ 27일 · 2차 : 7월 31일 ~ 8월 4일 · 3차 : 8월 13일 ~ 17일

접수서(선착순마감) · 7월 5일 선착순 마감. 접수후 개별 통지함. 항공편 이용자는 속히 신청하여 항공편을 예약하여야 함. (항공편 이용자는 우선적으로 접수 통지합니다)
※항공사 예약전화 :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신청및서류 · 아래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세요.
1.성명(한글.한자) 2.주민등록번호 3.주소(자택,직장) 4.전화(자택,직장,휴대전화) 5.종교 6.직업-학교(과)반 7.참가동기 8.수련회 참가경험 유 · 무(유경험자는 순서별, 언제 어디서 기간) 9.원하는 차수

문의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를 해주세요.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통화 가능합니다.

접 수 처 · 제주시 화북1동 4684번지 조계종 원명선원 ☎ 064-755-3322
팩스 064-755-0880(팩스 신청후 꼭 전화로 확인하세요)

권 열린도량 한라산 원명선원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불행하게 합니까! 그 모든 고통의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늘 땅 맑은 기운이 머무는곳!

계룡산 천왕봉의 정기가 머무는 도량!

도학사 산중 수련회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니다
지금 까지 모든 수행법을 통해서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치 못하신 분들만 특별히 모십니다.

1. 수행과정소개
개인 및 단체가 또는 가족 단위로 주말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성명쌍수의 수행과정입니다.
각 신행단체, 직장단체, 각종 사회단체, 체육선수 내 외국인 단체 등 진정한 수행법을 알고 싶은 모든분들 모심.
※ 단체(20인 이상 기준회비) 조정

2. 참가회비 ◆ 2박 3일 : 10만원 ◆ 3박 4일 : 12만원 ◆ 4박 5일 : 15만원 ◆ 1 개 월 : 60만원

3. 수행일과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오후 2시	불교기초교리
5시	선체조 및 참선	오후 3시	무술수련
7시	아침공양	오후 5시30분	저녁예불
8시30분	운력	오후 6시	저녁공양
10시	무술수련(태극선공)	오후 7시	(대체의학강의)
11시	위빠사나 수행	오후 9시	취 침
12시30분	점심공양		

4. 개 강 일 : 2003년 6월 17일 이후 년중무휴
5. 참고사항
(가) 매주토요일 주지스님의 면담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 입과 후 개인외출 및 술 담배는 일체허락지 않습니다.
(다) 규칙을 어길 경우 일정제재나 퇴소조치됩니다.
6. 접 수 처 : 041)857-0830, 019-538-0830
7. 준 비 물 : 필기구, 세면도구, 운동화
8. 신청기간 : 단체는 3일전에 예약 개인은 수시접수
9. 입 금 처 : 국민은행 479-21-0198-177 (예금주 : 권민주)

찾아오시는 길
충남 공주 터미널 하차 하시면 참선, 윗빠사나, 실전무술(태극선공) 전문수행도량 차량운행

※ 공양주 모집 : 00명
대우 : 80만원 한달 2회 휴무
한의학, 대체의학, 마음공부하실분 특히환영
※부전스님도 모십니다.
※종무소에서 일하실 경리사무원(1명) 구합니다.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86-1번지
도학사 도학선원 주지 光明 道眼



◇상담 자원봉사자 윤화란씨가 한 청소년의 고민을 듣고 위로하며,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다.

진학, 왕따, 청소년 고민

걱정말고 전화주세요!

'마음의 전화' 상담봉사자들

한달 평균 20~30건, 길게는 3~6개월 상담

자비, 인연 사상 기반아래 선 심리치료 병행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는 성적과 진로에 대한 갈등을 겪게 마련이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불교계의 '핫라인'이 바로 '마음의 전화'다.

12일 찾아간 서울 마포구 창전동 달마선원 내 마음의전화 사무실에는 대표 도각 스님과 자원봉사자 고창영(45), 윤화란(36) 씨가 전화 상담을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4년째 상담봉사를 하고 있는 고창영 씨는 선심리치료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바로 '실전'에 뛰어들었다. 개인사업을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일주일에 세 번은 꼭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하고 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기도 한 고 씨는 "청소년들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이 상담자의 기본자세"라며 "상담은 단순히 배운 것을 전하는 과정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고 말한다.

상담봉사 경력 6개월의 '신참' 봉사자 윤화란 씨는 요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마음의 전화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서원을 세웠던 '초발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전화로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고민들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담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라는 윤 씨는 "고민에 휩싸여 있던 청소년들이 밝게 웃으며 다시 상담소를 찾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마음의전화에 걸려오는 상담 전화는 한달 평균 20~30건. 일반 상담전화에 비하면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한 번 상담소를 찾은 청소년들과는 짧게는 한달에서부터 길게는 3~6개월에 걸쳐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동안 매년 1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광명보육원 등 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펼쳐 온 마음의 전화 자원봉사자들은 매년 청소년 예술대전이나 팔관재 같은 행사도 열어 청소년들과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98년에는 문화관광부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1995년 3월 1일 문을 연 마음의전화가 일반 청소년 상담전화와 다른 점은 '선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 선 심리상담 양성과정을 거친 상담원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인연사상에 기반을 둔 상담과 선 수행을 통한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전화는 상담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02)738-1275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마음의 눈으로 보면 온세상이 밝아요"

부광 맹인불자회의 하루 찻집

법회차량, 점자 경전 마련위해 열어

침·뜸등 무료봉사, 도움 받은 것 회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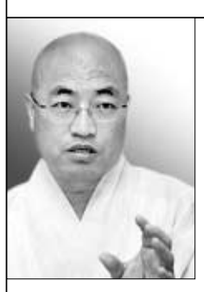
15일 통도사부산포교원에서 뜻깊은 하루찻집이 열렸다. 부광맹인불자회(회장 배홍만)가 시각장애인들의 마음을 밝혀줄 점자경전과 컴퓨터, 법회지원 차량 마련을 위해 펼친 자리였다.

행사 준비, 손님맞이 등의 일은 회원들 자력으로 불가능해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도왔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정기법회와 연 2회 야외 법회를 열고 있는 부광맹인불자회의 등록 회원은 133명.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법회 참석이 어렵다 보니 참석인원은 고작 30~40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법회 날 법회장소까지 회원들을 이동시킬 차량과 차량운전 봉사자가 절실하다. 그러나 이들이 장애인이라고 도움만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매월 첫째 주 법회에 앞서 회원들은 통도사 부산포교원 신도 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침, 뜸, 안마, 지압 등의 봉사 활동을 통해 도움 받은 것을 다시 회향하며 정진하고 있다.

배홍만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일반불자님들의 관심과 도움은 빛과 지팡이와 같다"며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했다. (019)511-6611

부산=천미희 기자



interview

마음의 전화 대표 도각스님

"전국 어디서나 청소년 곁에 다가갈 터"

"전화기 두 대로 시작한 '사랑의 전화'가 오늘날 전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듯이 마음의전화도 전국 어디서나 청소년의 곁에 있는 단체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선 심리치료학 개론>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한 도각 스님(마음의전화 대표)은 카운슬러 교육 자격증과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춘 '청소년 전문 상담가'다. 1995년 2월 26일 청소년 상담연구원을 개원한 후 3월 1일 마음의전화를 개통함으로써 청소년 상담 일선에 뛰어든 스님은 "선 심리상담은 인간 삶의 고통과 번뇌 망상을 참선을 통해 없애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인한 수행의지와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며 "몸과 마음이 모두 불안정한 청소년들에게 특히 선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올해 가을 쯤 새 단장해 선보일 마음의전화 홈페이지는 그동안의 상담사례와 자료를 볼 수 있는 청소년 상담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아웅산 수지 (下)

평화지도자이자 '세계적 양심'

아웅산 수지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군부 독재세력에 맞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이고 있는 평화지도자이자 인권을 대표하는 세계적 양심으로 존경받고 있다. 그녀는 가택연금 상태이던 1991년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것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녀를 대신해 두 아들이 오슬로에서 이 상을 수상할 때 노벨평화상위원회 위원장은 그녀를 "힘없는 자들의 진정한 힘을 보여준 최고의 사례"이며 "그녀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어느 권력도 그녀를 침묵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아웅산 수지는 언젠가 그들을 군부독재로부터 해방시켜 줄 최선이자 유일한 희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45년 6월 19일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미얀마의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로 출생한 아웅산 수지는 60년 어머니 킨 지(Khin Kyi) 여사가 미얀마의 인도 주재 대사로 부임하게 되자 어머니를 따라 인도로 갔다. 4년 후 아웅산 수지는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교 세인트 휴즈 대학에 진학하여 철학,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여 67년 학사 학위를 받았다. 69년부터 71년까지 유엔사무국의 행정 및 예산문제 자문위원회 비서로 근무했고, 72년에는 부탄 외무부 연구원으로 일했다. 72년 옥스퍼드 시절 동창이었던 마이클 아이리스(Michael Aris)박사와 결혼했고, 두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다.

그러나 고국 미얀마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88년 3월 어머니의 병환이 위독해 지자 조국 땅을 다시 밟은 그는 88년 8월 8일 시작된 소위 '8-8-88 민주화'의 한 복판에 서게 된다. 8월 8일 수만 명의 학생들과 노동자, 농민 그리고 스님들은 62년부터 미얀마를 고립시킨 사회주의로 인해 병들게 만든 네 윈(Ne Win)과 그의 군부독재세력을 규탄하고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이 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군부는 무제한 발포로 대응하면서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마침내 88년 8월 26일 양곤의 유명한 불교사원인 쉐다곤 파고다 앞에 모인 50만 명의 군중 앞에서 수지 여사는 "나는 나의 아버지 아웅산의 딸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태에 무관심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제2의 독립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88년 9월 친위 쿠데타로 다시 권력을 확보한 군부는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라는 군사정권을 만들었다. 이에 아웅산 수지는 같은 달 전국민주연맹(NLD)을 창설하고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몇 차례의 암살위기를 모면하고 수지 여사가 이끄는 전국민주연맹(NLD) 당원들은 90년 총선에서 전체 485석 중 80%인 39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현재의 군사정권(SLORC)은 이러한 선거결과를 무시하고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민주세력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다.

그녀는 지난 해 자택 구금에서 벗어났지만 군사독재에 대한 비판을 포기하지 않아 지난 5월 31일 다시 구금되었다. 수지 여사는 또다시 구금되었지만, 어떠한 위협도 그녀와 미얀마 불자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꺾을 수 없을 것이다. 온갖 더러움과 고난을 이기고 활짝 피는 진흙속에 피는 연꽃처럼.

김재경 기자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지.

91년 민주화 노력 인정 노벨평화상 수상

암살위기에 총선 압승, 군사독재 비판 구금

명가의 명향 - 석씨향방

울향, 침향, 단향, 유향, 감송향, 사향, 육계, 안식향, 용뇌, 목향, 뢰향 외 기타 등등의 최고급 순수 향약재만을 사용합니다.

석씨향방은 최고의 제품만을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세균번식 억제)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눈이 맵거나 목이 아프지 않으며
- 마음을 편한하게 해준다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고
- 건강에 도움을 주며
- 불쾌한 냄새, 흡연실 담배냄새 제거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였으며, 화공약품은 0.1%도 안넣은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 석씨향방의 캠페인 - 건강을 위해 천연향을 애용합시다 ☆

☎ 02)538-7161 http// : www.hyangga.com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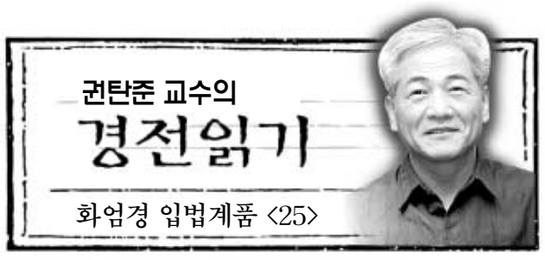
-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제14기)
-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후 6시~8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제출 (현재 접수중)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개강일시 : 7월 4일 (금) 오후 6시, 본 대학 강의실(목탁, 필기구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지도와 편의 제공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해당 비구의 법문

선재동자는 해탈장자의 가르침대로 해당(海幢)비구를 찾아 점차 남방으로 나아갔다. 염부제 경계선인 마리(摩利)마을에 이르러 해당비구를 찾아보니, 그는 경행(經行)하는 길가에서 가부좌하고 삼매에 들어 있었다. 숨도 쉬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깊은 삼매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선재동자가 이러한 해당비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부사의한 광경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해당비구의 발바닥에서 수없이 많은 장자 거사 바라문들이 나오는데, 갖가지 장신구로 장엄하고 시방의 모든 세계로 가서, 여러 가지 보배 의복 음식 꽃 향 등을 베풀어서 여러 곳에서 빈궁한 중생을 구제하여 주고, 또 마음을 청정히 하여 깨달음의 도를 성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두 무릎에서는 수없는 찰제리와 바라문들이 나와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쾌락하게 하며 또 방편을 써서 나쁜 짓을 버리고 선한 법에 머물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허리에서는 수없는 신선들이, 두 옆구리에서는 부사의한 용과 부사의한 용녀를, 가슴에서는 수없는 아수라왕을, 등에서는 무수한 성문과 독각을, 두 여래에서는 수없는 야차왕과 나찰왕을, 배에서는 수없는 긴나라왕을, 얼굴에서는 수없는 전륜성왕을, 두 눈에서는 수없는 해를, 미간백호에서는 수없는 제석을, 이마에서는 수없는 범천(梵天)을, 머리 위에서는 무수한 보살대중을, 정수리로부터는 수없는 여래의 몸이 나와 제각기 법계를 장엄하며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고 이롭게 하였다.

반야의 지혜 얻어 증득된 경지 드러내

자비, 공덕 충만 장애없이 자유자재 활동

이렇게 하여 해당비구는 그 몸에 있는 모든 털구멍마다 각각 무수한 광명 그물을 내고, 낱낱 광명 그물마다 셀 수도 없는 빛깔, 장엄, 경계, 사업을 갖추어서 시방의 모든 법계에 가득하였다. 해당비구가 깊은 삼매에 들어 있으면서 이러한 광경들을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부사의하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해당비구가 나타내 보인 광경들은 반야의 지혜를 얻어서 비로소 증득된 삼매의 경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당비구는 깊은 선정 삼매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번뇌도 없고 지혜가 밝아 일체의 것을 아무런 장애가 없이 보고 알 수 있다. 지혜를 갖춘 해당비구의 마음은 무량한 자비심과 공덕으로 충만해 있어서, 그 마음으로부터 아무런 막힘이나 장애가 없이 자유자재하게 중생들을 위한 자비로운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삼매 속에 들어가 있는 해당비구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온 몸에서 무수한 인간의 무리와 호법신중 그리고 불보살이 나와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교화하였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비구가 그 몸에 있는 모든 털구멍마다 낱낱이 무수한 광명 그물을 내고, 낱낱 광명 그물마다 무수한 빛깔, 장엄, 경계, 사업을 갖추어서 시방의 모든 법계에 가득하였다고 한 것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재동자는 일심으로 해당비구를 관찰하면서 그 삼매의 해탈을 생각하고, 그 부사의하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방편바다를 생각하고, 법계를 장엄하는 청정한 지혜를 생각하였다. 선재동자가 이렇게 서서 관찰하기를 여섯 달을 지내고 또 엿새를 지낸 뒤에 해당비구는 삼매에서 나왔다.

선재동자는 해당비구의 삼매를 찬탄하며 그 삼매의 이름을 물었다. 그러자 해당비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삼매의 이름은 '보안사득(普眼捨得: 모든 것을 두루 널리 관찰하매 아무런 장애가 없이 모든 이치를 증득함)'이라고도 하고, '청정광명반야바라밀경계'(청정한 지혜 광명에 의해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음)이라고도 하며, '청정장엄보문'(일체의 경계에서 두루 널리 덕을 베풀어 법계를 장엄함)이라고도 한다. 나는 반야바라밀을 닦았기 때문에 이 삼매를 얻었는데, 이 삼매를 얻을 때는 곧 백만 아승지 삼매를 얻게 되느니라."

이러한 해당비구의 대답을 통해서도 이 삼매의 경지가 반야의 지혜를 얻어서 증득된 경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비구는 다시 선재동자에게 말한다.

"선남자여, 이 삼매에 들 때에는 모든 세계를 아는, 모든 세계에 가는, 모든 세계를 초과하는, 모든 세계를 장엄하는, 모든 부처님을 보는, 모든 부처님의 공덕바다에 들어가는 데에 등등 아무런 장애가 없다."

자기를 찾아온 선재동자에게 삼매의 부사의한 경계를 보이고, 또 이렇게 삼매의 한량없는 공덕을 설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삼매는 바로 지혜의 경계이다. 그러므로 부사의한 경계를 나타내고 무량한 공덕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이다. 해당비구는 일체의 선법(善法)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 때문이며, 진실한 지혜만이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⑳

화두 하나면 충분한가

간화선의 이론적인 기초는 돈교로 대표되는 부정과, 화엄에서 강조한 긍정이 변증법을 이룬다. 물론 여기서 부정은 돈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 뿐만 아니라 생각을 끊는다는 기도마저 부정됨을 의미한다. 있음과 없음 뿐만 아니라, 있고 없고를 떠난 절대의 없음도 상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화두는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점이 여기에 속한다. 화두에서 말하는 긍정은 화엄의 법계연기를 가리킨다. 그러나 역시 화엄의 법계연기 그대로는 아니다. 대부분 화엄법계를 의식과 지적인 이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시에 깨닫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부정과 긍정의 과정을 '점차'가 아닌 일시에 발생시키는 간화선의 길은 그 자체로 충분한가? 이런 질문은 보조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질문의 배경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내부의 문제이다. 전통적인 교학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은 많은 세월을 거쳐서 노력한 끝에 수많은 법문과 공덕이 점차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다.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제기한다. 현대 사회는 다양성이 중요한데, 오직 화두 하나로서 모든 근기에게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들은 사회적인 분위기와 어울러져서 점차로 세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보조는 '간화선이 모든 근기에 해당되는 유일한 길이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선사들도 이점은 공통된 견해이다. 당시는 다양한 종파가 존재했었고, 그 만큼 다양한 근기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었다. 오히려 보조는 다양한 근기를 인정하면서 간화선이 상근기에게 해당되는 수승한 길이다고 주장한다. 또한 점차로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라, 일시에 한량없는 법문과 수많은 미묘한 뜻을 얻는 길임을 말한다. 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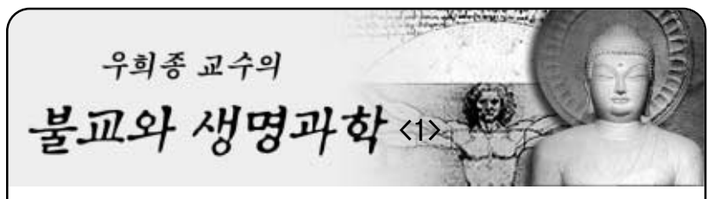
일시에 한량없는 법문과 뜻 얻는 길

수료화상이 등나무를 캐는 곳에서 마조(馬祖)선사를 만나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조사(祖師)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마조가 말하였다. "가까이 오라. 너에게 말해주마." 수료가 바로 다가오자, 마조는 그의 가슴을 잡고 한번 걷어차 넘어뜨렸다. 그때 수료는 곧장 일어나 손뼉을 치며 깔깔 크게 웃었다. 마조가 물었다. "너는 무슨 이치를 보았길래 웃는가?" 수료는 말하였다. "수많은 법문(法門)과 한량없이 많은 미묘한 뜻을, 오늘 한 터럭의 끝에서 모두 그 근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조는 더 이상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중국 선종의 대표적인 화두이다. 마치 대승불교도가 '부처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과 같다. 다만 대승불교도는 대승경전을 통해서 그것에 응답하였고, 동북아 선종은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실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 뜻은 무엇인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수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뜻이 일시에 드러난다는 수료화상의 대답은 간화선의 이상을 잘 대변하고 있다. 마조는 결코 언어와 언설로서 대답하지 않았고, 바로 이점 때문에 수료화상은 일시에 온갖 법문과 묘용을 깨달았던 것이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생명과학의 불교적 모습

생명과학과 불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히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생명이란 무엇인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여 생명과학은 생명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이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개체성을 지닌 생명체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생명이란 생명체를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것을 가리켜 불교에서는 진리, 법, 마음, 도(道), 참나, 한물건 등으로 부르고 기독교에서도 길(道), 진리, 생명 등으로 부른다.

부처님 말씀처럼 무릇 태어난 것은 늙고 병들어 죽는다고 하지만,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태어난 생명체가 소실된다는 것이지 결코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본디 생명이란 <반야심경>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늘거나 주는 것도 아니며,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또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온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죽음·늙음·병 그 소멸과정 다룬 학문에 불과

생·사 연연말고 심안의 지혜 키워 나가야

그렇기에 생명과학이란 생명 자체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고 죽음이라 불리우는 개체의 소멸과 더불어 늙음이나 병이라고 불리우는 그 소멸 과정을 다루는 학문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과학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과학인 것이다.

그나마 요즘 항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생명복제라는 것도 잘 들여다보면 진정한 생명 복제가 아니라 생명체 복제라고 해야 옳으며, 그렇기에 지식체계로서의 생명과학은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마치 정신과학이 실제로는 비정상적인 정신병 연구로부터 시작되었기에, 병적인 정신 상태에 대한 정의는 쉬워도 정작 무엇을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볼 것이냐고 할 때 결코 그 정의가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원래 과학은 과학자 간의 기본적인 약속(가설)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하나의 지식체계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에 의한 생명체 조작 역시 불교에서 말하는 사대(四大)와 오온(五蘊)을 조작하는 이 시대의 한 방법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작금에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인간복제라는 것도 불자들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 역시 단지 사대의 변화, 변용(變容)이라는 연기적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끊임없이 그 모습을 바꾸며 시작도 끝도 없이 변화하는 흐름으로서만 파악된다. 이 흐름 속에서 생명이 단속적인 개체로서 사대를 취해 그 모양을 나타낼 때 생명체로 불리우며 육근(六根)의 인식 대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불자들은 소위 현대의 생명과학이란 것은 단지 유한한 겉모양을 다루는 지식임을 알아, 심안(心眼)의 지혜를 키워 진정한 나를 찾아 나아가야할 것이다.

우희종 교수는 1981년 서울대 수의과대를 졸업하고 87년 일본 동경대 대학원 생명약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하바드 메디컬스쿨 강사, 보스톤 대학교 의과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수의과대 수의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당신에게 행운을... 발명특허 출원제품



소원성취 행운의 부적양말

본제품은 氣를 발산하고 액운을 막아주는 경명주사 부적이 자수된 제품입니다.
※ 경명주사 부적은 옛날부터 악귀가 침범하지 못하고 재앙을 막아주며 왕성한 기(氣)가 형출되어 심신을 안정케 하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취급품목
행운의 양말, 방석, 속옷, 손수건, 넥타이, 지갑
차량안전운행 방석, 부부화합의 이불,
가정화목의 카페트, 맑은정신의 베게
학업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을...
수험생에게 합격의 선물로...
부모님에게 효도의 선물로...
어려운이에게 희망의 선물로...
모든이에게 행운의 선물로...

▶ 수입금 중 일부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출현함 ◀
www.bujuk shop.com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천룡정사 복지원 문의 : 053)986-1355, 017-533-1356 Fax 053)986-1356 대구 불로동 매장 053)986-1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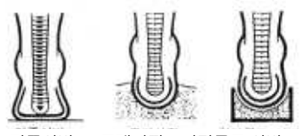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권行"

권行 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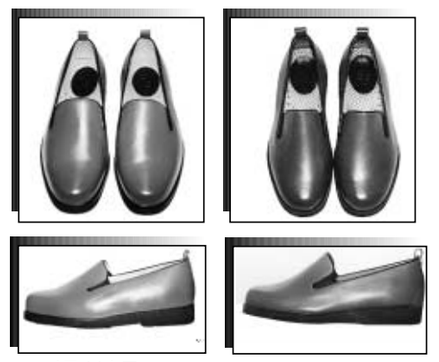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건강콜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 신발 - 권行만행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정맥·모세혈관의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건강신발 권行의 특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되었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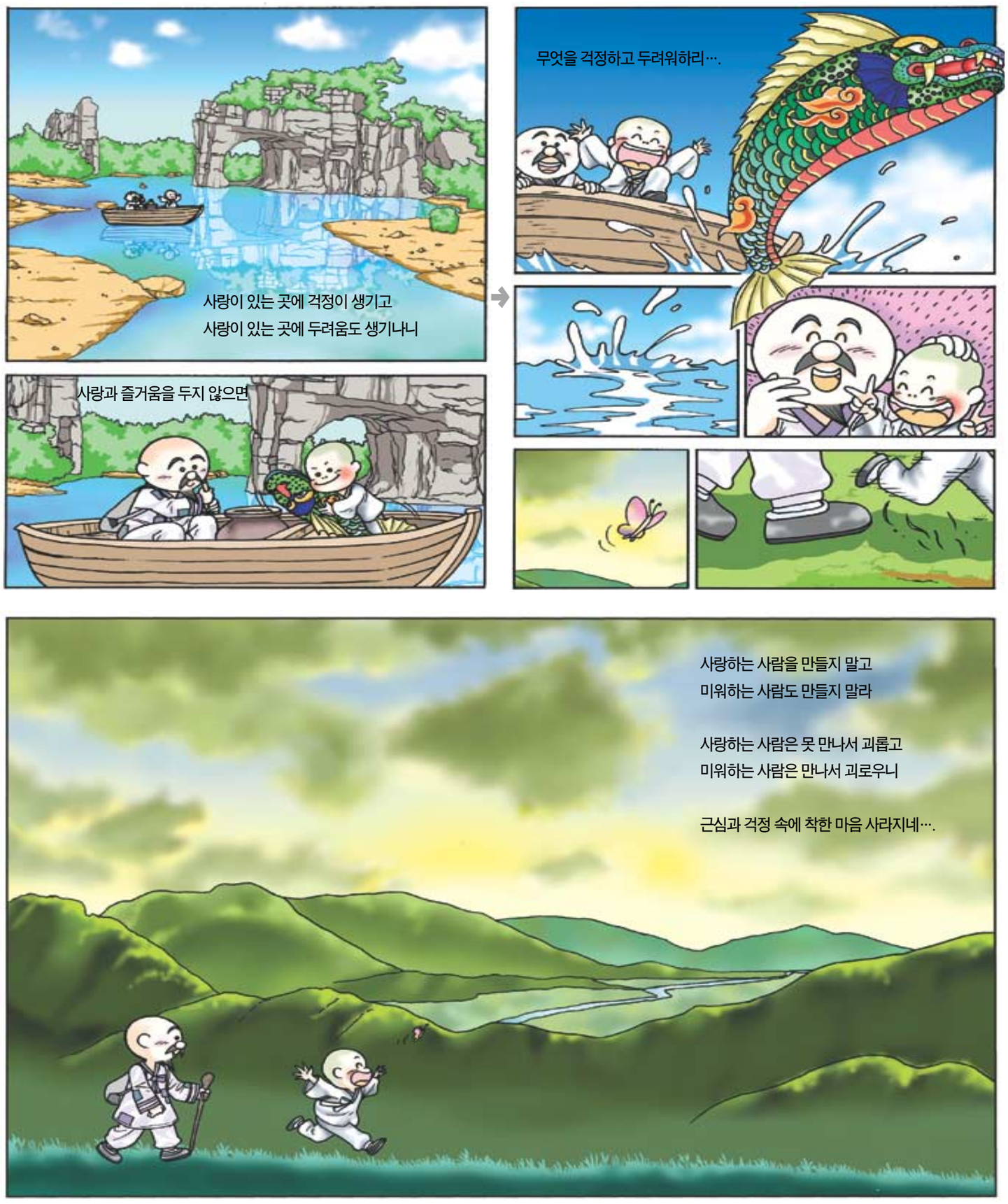
구입문의 031)742-0296.742-0297
권行합장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 1동 661번지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25화)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도 있다"

〈출전 : 제법요송경 제1: 애락품: 4-799〉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바라이, 단두(斷頭)

불성 빠진(?) 이류(異類)

불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율장〉에는 바라이(Pārājikā)죄라는 것이 있다. '단두(斷頭)'의 뜻을 갖는 이 말은 여기에 규정된 잘못을 저지르면 승단에 함께 살 수 없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계율이다. 스님들에 해당하는 이 규정은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과 '깨닫지 않고 깨달았다고 하는 커다란 거짓말'의 네 가지이다. 한편 재가인들이 지켜야 할 5계는 이 네 가지 바라이에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계가 덧붙여 있다. 물론 '음계'는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정도로 약화되었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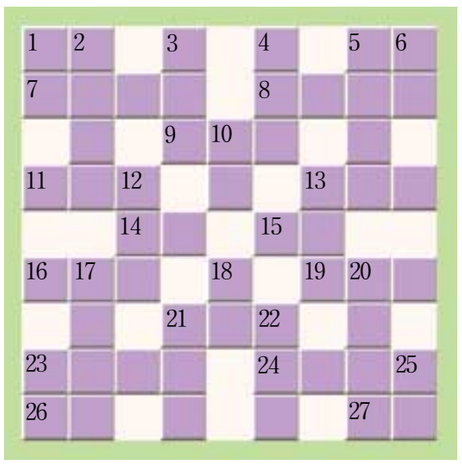
10여년 간 처제를 성폭행한 어느 '남성'이 구속되었다. 그 '생존자'의 나이가 이제 27세이니 17세 때부터 못된 짓을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의 나이 46세이니 무려 스무 살이나 어린 미성년자를 괴롭혔다는 이야기이다. 선재가 더 흥분했던 것은 그 세월 동안 가족들은(심지어 아내인 생존자의 언니마저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었다. 고등학교 때 이후로 여섯 번이나 낙태수술을 했다는 대목에서는 욕이 다 나올 지경이었다.

짐승만도 못한 이 사람은 5계의 모든 것을 어겼다. 태어나지도 못한 아기를 여섯이나 죽게 했고 처제의 모든 인생을 빼앗아버렸으며 해서는 안 될 음행을 저질렀고 가족 모두를 속였다. 거기에다 매번 술이라도 마셨을 것 아닌가. 같이 살도록 하기로 한 약속을 모조리 어겼는데 같이 살 수 있을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축출의 처분을 하는 바라이처럼 이런 중생에게는 그런 형벌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망설임이 생긴다.

모든 것에는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선재가 머뭇거리는 것은 바로 같은 불성을 가진 중생을 중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이류(異類)들 때문이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가로

1.마른 인삼 5.내장의 여러 기관 7.일곱 가지 보물로 장엄된 극락의 숲 8.움직이고 머물고 앉고 누움 9.돌로 만든 불상 11.보통의 2배의 염색체를 갖는 생물체 13.우리나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건물 14.조사의 말을 기록한 책이나 문서 15.종파의 가장 높은 어른 16.보살의 자리이타가 원만한 행 19.남의 부탁을 받아 해주는 일 21.도둑질 하지 아니 함 23.부처님 재세시 남인도의 왕국. 한자로 교살라(僑薩羅) 24.앞장서서 하여 모범을 보임 26.사람이 만듦 27.교법에 따라 행동함

〈426호 「교리퍼즐」 정답〉



세로

1.옻나무 즙을 말린 약재 2.세번 걷고 한번 절하기 3.일의 진행을 가로막는 것 4.수행 하는 곳 5.오래 눕지 않음 6.일어남과 누움, 생활함 10.팔기고 부탁함 12.분명하고 명백한 말, 십선행의 하나 13.맑은 마음 17.부처와 조사를 죽임 18.서로 싸움 20.종지를 받들어 교단을 지킴 21.부처님의 국토(극락) 22.욕계 6천의 네 번째, 다음에 성불할 보처보살이 머무는 곳 23.동전 25.음욕을 여읜 청정한 행동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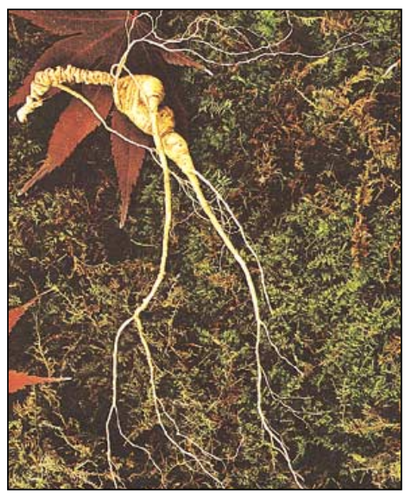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법화경, 이것이 불교다 상·하'

무비 스님 지음

불광 / 각 8천원

"법화경, 행복의 가르침"



◇무비 스님

"<법화경>은 모든 경전의 요체이자, 대중불교운동의 사상적 모체입니다."

<법화경, 이것이 불교다>를 펴낸 무비 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은 <법화경>이야말로 모든 불교경전들의 요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스님은 주저없이 제목을 '법화경, 이것이 불교다'라고 지었다. 특히 스님이 <법화경>을 이렇게 극찬하는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법화경>에서 하신 부처님 말씀 때문. 부처님은 "내가 설한 모든 경전들중에서 이 <법화경>이 제일이며, 경(經)중에서 왕(王)"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화경>은 부처님이 열반하기전 남긴 마지막 비장의 설법들인 셈이다.

총 28품으로 구성된 <법화경>중 이 경을 설한 근본취지가 담겨 있는 것은 '방편품'과 '여래수량품'. 무비 스님은 "'방편품'에는 갖가지 인연과 비유로써 여러 가지 교법을 널리 말하며, 수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해 온갖 집착을 떠나게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라고 소개한다. 특히 이 경전중에서 스님이 불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또 있다. 바로 '제바달다품'이다. "'제바달다품'에는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잔인한 '제바달다'를 오히려 나의 스승이었으며, 나의 성불은 그의 공덕에서 비롯됐다고 한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이 담겨 있습니다. 수행자인 저에게 더 없는 큰 가르침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스님은 <법화경>을 접한 사람도 행복하지만, '제바달다품'을 만난 사람은 더 행복하다고 평한다.

부처님 열반하시기전에 남긴 마지막 비장의 설법

이번에 내놓은 <법화경>외에도 무비 스님은 그동안 활발한 경전연구와 번역서 출간에 매진해왔다. <화엄경 완역(전 10권)>을 비롯해 <범망경>, <금강경 오가해>, <금강경 강의>, <화엄경 강의>, <지장경 강의>, <무비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사람이 부처님이다> 등 다수의 저서가 그 증거물들이다.

"동진출가해 절에서 경전을 접하고 공부하면서 번역본을 얻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나도 대중들이 경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은사이신 탄허 스님을 보필하면서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일을 시키면서도 항상 매일 1시간씩 경전을 가르쳐 주셨지요. 이것이 제가 30여년간 역경 작업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스님의 역경 작업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현재 <임제록>과 <육조단경>에 심취해 있어 조만간 불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서와 강의서를 출간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낙산사 홍련암의 일출 광경.

백련암 등 50 암자 순례 회향

'길 끝나는 곳에…회향편'

정찬주 지음

해들누리 / 9천5백원

"지금은 입적하고 안계신 혜암 종정 스님께서 수행하셨던 곳이었다. 예전에 갔던 산길이 생각나지 않아 다른 산길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겨우 겨우 암자에 다다를 수 있었다. 문경 희양산 백련암…."

소설가 정찬주 씨가 내놓은 <길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회향편>은 문경 희양산 백련암 일주문에 발을 내디디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필자는 '영화 동승'의 촬영지인 안동 봉정사 영산암을 거쳐 장성, 산청, 지리산 법계사에 이르기까지 18곳의 암자를 찾는다.

거제도 총명사에서는 남도의 봄기운을, 동백 꽃망울에 둘러싸인 향일암에서는 무심한 바다를 가슴에 담고 싶은 상념에 빠진다.

저자가 이번 출간을 위해 4년여 동안

18개 암자 소개…나머지는 내년 후속편에

찾아간 암자는 50여 곳. 30여 곳이 책에서 빠져 있다. 그래서 내년에 <암자로 가는길>의 후속편을 낼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번개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

'금강경'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2만원



전재성 박사가 펴낸 <금강경>은 산스크리트본 금강경들을 교열해 티베트본과 한문본을 대조 번역하고 현대어역인 영역, 독역, 불역본을 참고해 이해하기 쉬운 일상어로 옮겼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금강경>은 산스크리트본, 티베트본, 한문본 2종, 영역, 독역, 불역과 한글본 등 8종으로 구성돼 있다.

한글로 번역한 제 1장 '우리말 금강경'은 금강경이 성립한 당시의 언어로 부처님과 제자 사이에서 나눈 시대적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제 2장 '우리말 금강경 주해'에서는 가능한 한 상세한 주석을 달려고 노력했다. 빠알리 니까야

이해하기 쉽게 일상어로 옮겨

처럼 각 단락에 번호를 부여하면서 오늘날의 대화체 문장으로 엮어 냈다. 또 제 3장 '梵(범)·藏(장)·漢(한) 금강경 주해'는 우리말 티베트본과 한역본을 병기해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제 4장 '영·불·독 금강경 주해'는 오늘날의 일상용어로 번역하기 위해 서양의 번역본들을 수록해 놓았다. 콘즈(Conz)의 영어본을 중심으로 하레즈(Harlez)의 불어본, 발레서(Walleser)의 독어본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5장 '금강반야바라밀경 논송'은 <금강경> 해석의 이정표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석으로 평가되는 아쌍가와 바쑤반두의 주석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제 6장 '금강경 해제'는 범본 금강경의 판본을 비롯한 금강경의 사상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금강경 문헌을 안내해 준다. 김주일 기자

새로나온 책



불교초심자 위한 안내서

'아름다운 인연 불교를 찾아서'

조계종 포교원 지음

도서출판 조계종 / 2천원

불교와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자 하는 초심자들에게 도움이 될 이 책은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수행과 신행생활, 지혜와 자비의 길 등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육바라밀과 사성제, 연기법, 참회 등에 대한 교리를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아 참된 나를 찾아가고 진리를 향해 정진하고자 하는 불자들을 지혜와 자비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 또 부록에서는 사찰을 처음 찾는 사람이라도 그 곳에 깃든 의미를 알게끔 사찰의 의미와 구조, 예절을 쉽게 풀이해 놓았다.



엄마·아빠가 쓰고 그린 '삶'

'맴돌집 이야기'

그림·오세춘 / 글·김미향

화니북스 / 9천원

아트카 디자이너 아빠, 들꽃 전문가인 엄마 그리고 연년생 아들 둘. 평범해 보이는 네 식구는 '맴돌집'이라 불리는 5평짜리 단독주택에서 산다.

<맴돌집 이야기>는 바로 그곳에 사는 가족의 삶의 모습을 엄마의 글과 아빠의 그림으로 조명한 책이다. 둘째가 자폐증인 '장애인 가족'이지만 평범한 가족조차 쉽게 실천할 수 없는 사랑을 집안 곳곳 가득 채워가며 살아간다는 내용이다. 이 책의 제목 '맴돌집'은 건축해준 디자이너가 붙여준 것으로 '맴맴 맴도는 집'이라는 뜻이다.



출가하며 느낀 갈등 담아

'아름다운 향기만 남을때까지'

현원 스님 지음

느낌이 있는 책 / 8천5백원

저자인 현원 스님(연화사 주지)이 출가 하면서 느낀 세상의 번뇌와 우주의 이치에 대한 관조적인 단상이 담긴 수행 에세이 <아름다운 향기만 남을때까지>.

'배려하는 마음은 인연을 낳는다', '여백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행복을 위하여 박수한 번 칠까요', '타인을 위한 기도' 등 한 번 읽으면 답답했던 마음이 훤히 뚤릴 인생의 지혜 60편이 실려 있다.

솔직 담백하게 써 내려간 스님의 글들을 대하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갈등과 고통에 대해 한번쯤 다시 생각하게 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영원한 대자유인	강정진	궁리
2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스님	시공사
3	유식 30송	서광스님	불광
4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	나무심는사람
5	왕생론주강설	이태원	운주사
6	소리없는 소리	사임스님 시자엮음	시월
7	화	틱낫한	명진
8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스님	효림
9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10	사람이 그리운 산골이야기	법장 스님	바보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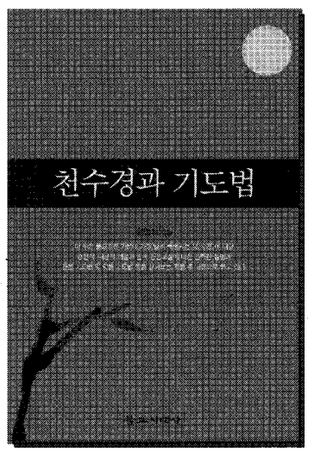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불교시대사 전화(02)730-2500 팩스(02)723-5961 www.buddhistbook.co.kr 법보시하기 좋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최고의 경전, 천수경 해설!
평안한 마음과 불보살의 가피력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 가는
관음·백중·염불 기도법!!

천수경과 기도법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천수경과의 만남!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기도
무한한 눈길과 손길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엄청나게 크고 원만하시며 걸림이 없는 대자대비한 마음과 위대한 주문을 담고 있는 이 경전을 올바로 이해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과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통해 오늘도 새로움으로 가득 찬 희망을 일구어 갑니다.

윤영해 지음 / 값 7,500원

불교의 공동체윤리

불교에서 바라본 가정윤리, 경제윤리, 사회윤리, 승가공동체의 윤리 지침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 즉 공동체적 존재이다
본질적으로 개인적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면 불교는 지혜보다 오히려 자비를 더 궁극적으로 여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불교가 공동체의 삶에 무관심하여 자비의 실천을 등한시한다면 불교 역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윤영해 지음 / 값 5,000원

소원성취 영험도량 한국불교기도성지 "한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
불보살의 원력은 중생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는다.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감응을 하신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한 관음·지장·약사·문수·나한 기도성지 36곳을 소개하고 있다.



정성운 외 지음 / 값 7,000원

"꿈 다스리면 삶·수행 큰 힘"



◇중국 우밍(五明)불학원 부원장 단정쟈춰 스님.



'꿈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티베트 사람들의 지혜'

단정쟈춰 지음 / 성진용 옮김

호미 / 8천원

"인생이란 그저 깊고 단단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꿈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할까? 눈앞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이, 꿈으로 나타나는 무의식이나 내면의 동기와 얽혀있음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꿈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티베트 사람들의 지혜>(호미)는 삶과 꿈의 뜻, 꿈 현상의 수수께끼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꿈을 다스려서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고, 사는 동안 겪는 갖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며, 궁극의 경지인 해탈에 이르게 하는 수련방법을 싣고 있는 이 책은 '꿈을 다스리면 삶과 수행에 큰 힘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저자인 단정쟈춰(丹增嘉措) 스님(중국 오대산 우밍불학원 부원장)은 이 책에서 꿈을 중심으로 티베트 불교의 세계관이 녹아있는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특히 여기에 소개된 티베트 역대 고승들의 꿈 체험담은 삶과 꿈, 그리고 죽음이 따로 있지 않다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잠들고 깨는 것, 죽고 살아나는 것을

삶·꿈·죽음이 하나임을 알면

생사 윤회벗고 해탈에 이른다

하나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큰스님들의 통찰력이 곳곳에서 빛난다. 수행을 통해 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밖에서 볼 때는 자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밝고 텅 비어 아무 분별이 없는 경지에 있다고 한다. 삶과 꿈과 죽음이 하나임을 제대로 알면, 생사 윤회를 끊어버리고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티베트 불교의 진귀한 가르침이다.

저자는 꿈 수련이 여러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꿈 수련을 이용해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잠재해 있는 생명의 원동력을 불러일으키며, 전생과 현생의 부족함을 개선하고, 생명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등 응용 범위가 넓고도 깊다는 것. 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꿈을 어떻게 다스릴까, 꿈을 통해 전생 알기, 앞일 내다보기, 마음 모아 기도하기 등 꿈의 원리와 응용분야를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다.

작고 얇되,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이 책은 두세 번 읽다 보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꿈과 삶과 죽음을 한자리에 놓고 바라보는 티베트 불교의 지혜가 정신의학자들이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다. 오늘날, 꿈을 연구하는 세계의 과학자들이 앞다투어 티베트 불교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파드마 삼바바 대사의 <티베트 사자의 서>가 그렇듯, 이 책 또한 티베트 불교가 오랫동안 쌓아 온 수행력을 잘 보여주는 오롯한 전통의 산물이다.

저자인 단정쟈춰 스님은 롱친 라오장(無垢光) 존자의 화신인 쒀룬공뿌(索倫貢布)의 환생자로 알려져 있다. 밀종을 깊이 연구해 젊은 나이(36)에도 설법과 저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 활불(活佛)로 추앙받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우리 선생님은요 친구도, 아빠도 돼요"

'산골마을 작은 학교'

김은주 · 박경화 · 이혜영 지음

소나무 / 8천원



◇소중한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세상에서 시골의 작은 학교는 더욱 아련한 그리움의 공동체다.

"산골마을의 모든 꼬마들은 작은 학교에서 친구가 되고 자연을 교과서 삼아 저절로 배운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아빠가 되며 마을의 대소사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기도 한다."

먼지 풀풀 날리는 황토길 따라 걷던 등교 길. 선생님 · 친구들과 오순도순 둘러앉아 먹던 도시락, 높던 하늘에 만국기가 휘날리던 가을 운동회, 난로가에 둘러앉아 고구마며 감자를 구워 먹던 교실. 지금은 낡은 흑백 영화처럼 기억되지만 금산의 시골학교, 강원도의 산골학교, 푸른 섬 제주도의 작은 학교에선 여전히 이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이다.

<산골마을 작은 학교>(소나무)에는 10개의 작은 학교가 실려있다. 그러나 몇몇은 책이 엮어지는 사이 사라져 버렸다. 지난 1999년 한 해 동안 없어진 학교 수가 무려 927개. 그러나 이처럼 작은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산골 마을에서, 섬 마을에서 햇살처럼 울려나던 아이들의 웃음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채워주던 삶의 여백이 '편리함'과 '효율성' 앞에서 무참히 도려내지는 것이다. 또한 우리 유년의 기억마저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골마을의 작은 학교는 그 마을의 문화중심체이며, 구심점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존재 이유가 있다.

책을 읽다보면 문득문득 어린 시절로 돌아가, 동심이 된다. 결국에는 고향이 그립고 친구들도 보고 싶어진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바쁜 도심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리라. 이 책은 월간 환경잡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기자였던 김은주, 박경화, 이혜영씨가 지난 1999년 한 해 동안 찾아다닌 시골 분교의 이야기다. 저자들의 희망처럼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김재경 기자

전문가 서평

눈먼 어부가 낚아 올리는 '행복'

'아버지의 바다'

글/사진 김연용

휴먼 앤 북스 / 9천8백원





◇눈먼 아버지에게 바다는 '파도 소리'일 뿐이다.

경운기를 몰고 아버지를 마중 나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무심코 경운기 뒤쪽을 돌아보았는데, 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앉아 계셨다.

"아버지 뭐하세요?"

"기도해."

"무슨 기도?"

"경운기 사고 없이 무사히 데려다 달라고 말이야."

난 지금까지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 없이 다니는 줄로만 알았다. 이제 보니 순전히 내 착각이었다.

부친 손·발 노릇하며 漁場일 카메라에

아름답고 감동적 생활 담은 사진 에세이

아마추어 사진 작가이자 아마추어 시인인 저자의 이 글 옆에는 흑백 사진이 하나 있다. 밀짚모자를 쓴 채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아버지의 등뒤로 갯벌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다. 말뚝에 그물이 쳐진 어장도 어렴풋이 보인다. 경운기가 지나온 그 갯벌 위로 아버지의 주름살 같은 바퀴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그 S자 선은 힘든 굽이를 헤쳐온 아버지의 굴곡 같은 삶을 그려놓은 듯도 했다. 그러나 실명한 아버지는 아무 것도 볼 수가 없다. 역광으로 찍은 사진 속의 얼굴은 어둠 속을 꿰뚫는 그림자처럼 보인다. 그렇다. 그 그림자 전체가 바로 아버지의 눈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한 장의 흑백사진은 이 책의 갈피를 여는 열쇠이자 마지막 장을 덮는 자물통인 것이다.

선재도라는 곳이 있다. 인천의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다. 그 섬에는 고기를 보지 않고도 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다. 그는 이마에 닿는 햇빛만으로 시간을 정확히 재고, 뺨에 스치는 바람만으로 집과 어장의 방향을 가늠하고, 손끝만으로 찢어진 그물을 능숙하게 깁고, 파도소리만으로 고기떼의 이동을 감지한다. 그는 어부이면서 바다도 고기도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책의 저자)이 있다. 병으로 실명한 아버지의 눈과 발이 되어주기 위해 도시의 화려함을 내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20대의 혈기방장한 청년이 왜 도시가 미친 듯 그립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는 아버지 모르게 바다에 나가 찢어진 그물을 손질하고, 아버지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집에서 어장까지 길게 '생명줄'을 연결하고, 자꾸 빗나가는 수저가 안타까워 아버지 가까운 쪽으로 반찬을 옮기고, 어릴 때 아버지가 즐겨 불어주었던 하모니카를 선물하고, 날마다 바다로 나가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몰래 눈물짓는다.

그 아들은 어느 날부터 고통과 절망을 딛고 일어선 아버지의 삶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다. 카메라는 눈이다. 그 눈은 아버지의 분신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바다를 통해 삶의 파도를 서로 확인하고 생명줄을 통해 탯줄을 다시 연결하고 카메라를 통해 서로의 눈을 맞춘다.

바다에 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감동적인 '사진 에세이집'은 요즘 보기 드문 아름다운 책이다. 아버지를 부모처럼 섬기며 따르는 3마리 개 '바다'와 '소리'와 '향기'의 사진과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선재도의 풍광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 격조 있는 '사진 여행서'로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림을 전공했다는 저자 김연용 씨의 간결하면서도 진솔한 시적 에세이가 눈먼 아버지의 슬픈 사연을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도록 만든다. 삶의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라면 누구나 감동 받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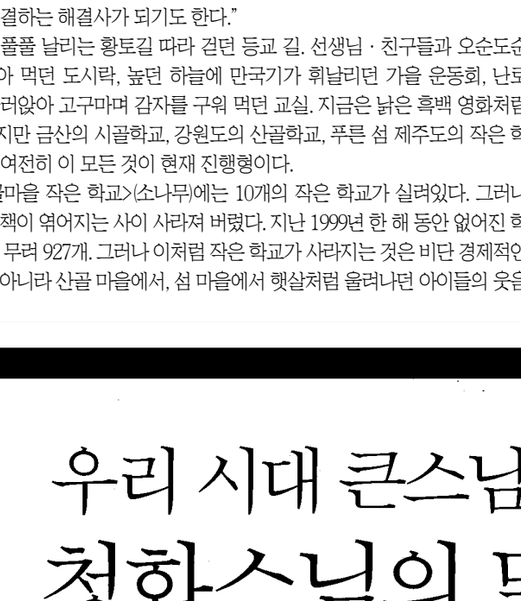
'아버지의 바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산하 / 시인

<아버지의 바다>는 경향신문 '매거진X'에 처음 소개되며 숱한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단숨에 읽고도 또 읽고픈 '노인과 바다'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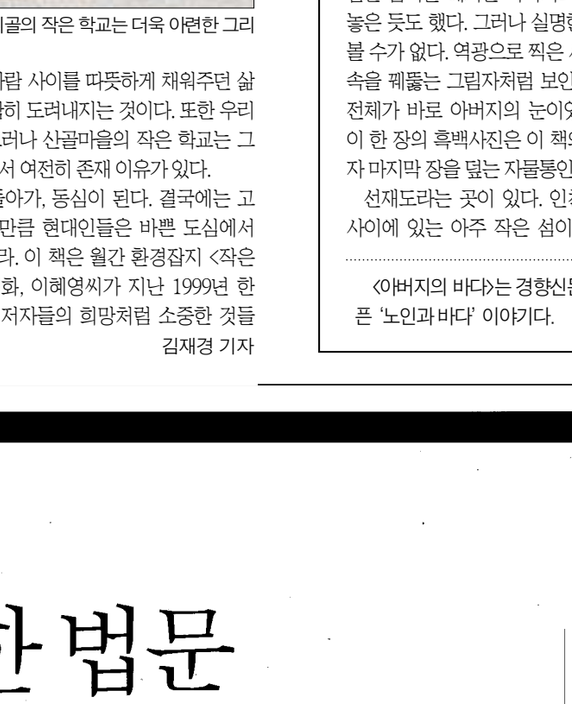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www.sigongsa.com 시공사

우리 시대 큰스님,
청화스님의 맑고 깨끗한 법문



40년간 하루도 바닥에 등을 대고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수행,
하루 한 끼만의 식사,
그리고 철저한 계행(戒行)의 삶……
불교계의 큰어른 청화 스님이 전하는
행복한 마음 공부

참선을 잘 하면 내가 없고 네가 없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도 없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날이 좋은 날이고 때때로 좋은 때입니다.
우리 마음은 나다, 너다, 좋다, 궂다, 시비를 다 떠나서 천지우주의 순수 에너지,
순수 정기인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이 참선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것이고, 염불도 그 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늘 좋은 날 모두 좋은 사람" 중에서(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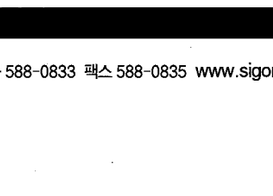


● 청화스님 말씀 | 신국판 | 269쪽(컬러 화보 포함) | 값 9,000원

청담스님의 딸, 성철스님의 제자인 묘엄스님 이야기

회색 고무신

낡은 걸망·하나, 기워 입은 옷 한 벌,
그리고 고무신 한 켤레가 가진 것의 전부였던 시절.
묘엄스님이 추억하는 이야기 속에는
맑은 가난을 즐기던 청빈한 수행자들의 삶이 가득합니다.



● 묘엄스님 구술, 윤청광 엮음 | 신국판 | 356쪽 | 값 9,000원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드



삼보이야기(3)-법

우리는 법을 등불로 삼아야 하며, 자신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법을 등불로 삼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어떻게 법에 의지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 될 수 있는가? <대반열반경>에 이러한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이 나오고 있다. 이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의 사라 숲에 계실 때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즉 이 때 갑자기 사라쌍수에 꽃이 피어나 부처님께 떨어졌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된다.

"아난아, 너는 저 나무가 때 아닌 때에 꽃을 피워서 나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과 용과 귀신 등 8부중들이 허공에서 미묘한 꽃비를 내리면서 풍악을 울리게 된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너는 저 하늘 등 8부중이 나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았느냐?"

"예, 이미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에게 공양하며,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꽃과 향, 풍악 등으로 할 필요가 없느니라.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경전을 읽고 외우며 법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공양하는 것이니라."

이상은 부처님에 대한 찬양이 초목이나 팔부신중에 의해서도 행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대목은 당나라의 시인인 이태백의 "양인대작산화개(兩人對酌山花開)"라는 시를 연상시킨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정경이 너무 아름다우므로 산에 있는 꽃조차 저절로 피어나 분위기를 돋운다는 의미인데 초목을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함께 호흡하고 어울리는 주체로 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 사고무친한 세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으며, 고독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녕 커다란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살아가면서 슬하게 느끼게 되는 죽음보다 깊은 병이라는 절망의 늪을 헤치고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그분이 가르쳐준 자비가 아니면 안 되기에 그분에 대한 연모의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을 익히 알고 받아들이지만 그 방법에서 사뭇 우리들의 상식을 벗어난다. 그것은 꽃, 향, 풍악 등의 물질이나 소리로 공양하지 말고,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외우며, 경전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물질이나 입바른 아부나 찬탄이 아니다. 설사 말은 없을지라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세상은 무상한 것이며, 무아인 것이며, 그래서 고뇌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현실이다. 현실은 늘 변하고, 어느 것도 고정된 실체를 지니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그래서 우리들은 불만과 고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은 맑은 물처럼 담담해질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의지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절망하지도 않는다. 세상의 이치가 인연 따라 생멸을 거듭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우리들의 마음이나 일체의 사물이 예외일 수 없다. 그렇기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뿐이며, 그래서 세상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자비의 눈이란 의미의 자안(慈眼) 또는 자비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의 자관(慈觀)이라 한다.

현실직시하는 慈觀능력 키워
평화로운 사회건설의 길잡이

동시에 가르침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법도 무상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논한다는 것은 토끼에게 뿔이 있는가 없는가를 논하는 것처럼 무익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남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견해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저속하며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세상에는 진리를 인식하려는 마음 이외에는 영원한 진리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고집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서 반목과 논쟁이 사라지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데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요즘의 한국사회를 빗댄 이야기 같지만 <경집>이란 책에 나오는 말씀이다.

법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무익한 논쟁을 없애고 상대를 이해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다. 고집에 의한 절대주의가 아니라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상대주의적 시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지상 백고좌

혜 정 스님

(법주사 회주)



◇최근 불교TV 무상사 개원 및 사옥이전 특별 법회에서 대중법문을 하고 있는 혜정 스님.

항상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세요

오늘은 '인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 교리의 큰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을 들여야만 하겠습니다.

불교는 어느 신을 전제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요, 마음을 찾아서 깨쳐가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한 마디로 말해서 '마음'입니다. 이 마음 하나만을 주장하는

불교는 인강중심 마음의 종교
운명·숙명 산산히 때려부셔
다시 창조하고 개조해 나가죠

종교가 불교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이다, 숙명이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운명과 숙명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요, 우리는 그 속에서 꼼짝달싹 못 하고 늘 거기에 구속받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만 되는 운명적인 존재인가?

그러한 사상과 생각을 확 바꿔야 합니다. 운명론을 능히 부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교 교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기에 길들어져서 질질 끌려 다니고, 눈물을 흘리고,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자기 일생을 그와 같이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불교는 운명과 숙명을 끌어안고, 산산이 때려 부셔서 다시 창조하고, 또 개조하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이 마음 하나로써 모든 것을 다 이룩할

기자가 본 혜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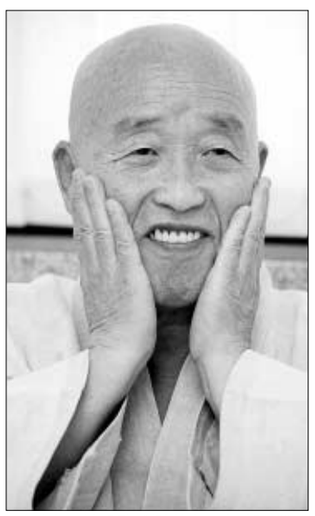
"내가 있는 속리산에는 미륵부처님이 계십니다. 매달 16일은 미륵재일이라 철야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법당에 가봤더니 그 모습이 가관이라.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서서 기도하는 사람, 벽에 기대 염주 돌리고 있는 사람, 책을 펼치고 있는 사람. 이게 기도하는 것인지 놀러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눈에서 불이 번쩍 나도록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따위로 기도해서 뭘 성취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이야. 정성을 다해서 해도 이뤄질 듯 말 듯한데…."

혜정 스님의 엄격한 수행 가풍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스님은 출가자들에게는 오직 견성성불을 위해 24시간 화두를 놓지 말라 이르고 신도들에게는 참선, 간경, 염불 등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정진할 것을 당부하신다. 그 어느 쪽이나 뼈를 깎고 피 눈물을 흘리는 간절함과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수행 가풍은 일상에서도 드러난다. 30여년 주석하고 계시는 법주사 사리각에는 지금도 전화가 없다. 그래서 스님을 만나려면 사리각이나 스님이 정하는 법문 장소를 찾거나 시봉하고 있는 상좌 스님께 전화를 드려야만 겨우 약속을 잡을 수 있다. 아직도 법문을 위해 외출할 일이 생길 때는 혼자 걸망 하나 메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견성성불위해 24시간 화두 놓지말라"
산문 나설땐 시자없이 대중교통 이용

1933년 전라북도 정읍의 선비 집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19살 때 수덕사로 출가했다. 1953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1962~83년 1~8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1972년 중앙종회 부의장, 1977년 총무원장을 역임하셨다. 법주사 주지와 율주 소임을 거쳐 지금은 법주사 회주로 계신다.



◇혜정 스님은 불자들에게 참선, 주력, 염불, 108배, 간경 등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꾸준히 할 것을 당부한다.

天一氣功

세계최초로 발명특허 받은 건강법

◆ 단체강의한곳 : 국립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육군73사단, 삼성종합화학(주), 한국중공업외 다수

道家, 佛家에 비밀리에 전해져온 신비의 氣 치료법 공개!
누구나 5박 6일이면 氣 치료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천일기공 연구회에서는 가정에서 자기 스스로 척추교정 운동을 하여 백병을 다스리는 건강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균성 질환을 제외한 모든 만성병은 100%가 골반, 척추의 변형으로 인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국민의 99%가 골반과 척추가 변형되어 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골반, 척추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모든 만성 질환자의 경우 백가지의 치료법보다 먼저 골반, 척추를 바로 잡는 것이 병을 고치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천일기공 <정기10,000원>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만성 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 요통, 좌골신경통, 목의통증, 만성두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요실금, 생리통, 수족냉증, 심장병, 위장병, 간장병, 비만, 불면증, 고혈압, 안짱다리, 허리굽은분, 만성피로, 발기불능 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주말 무료체험 교실 운영 www.chgg.co.kr

-척추교정운동법, 오장육부 氣 치유법, 통증해소법, 비만감량법등을 무료로 가르쳐드립니다.[선착순 20명한] T. 02-3436-3206

※ 책신청방법 : 아래계좌로 우송료 2000원을 입금시키고 전화주시면 책(370페이지)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체국 : 013094-02-213631 주문옥]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책신청 전화 : 1544-3246

홍보관 운영하실분, 즉석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발명특허 받은 의료용구 T. 02-3436-3207

무료체험실 부산 525-4849, 제주 712-9001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 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동승복 직원일동 -



춘추복 ●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동방,바지 ₩160,000 ● 두루막 ₩140,000 조끼·몸배 ● ₩60,000
◆ 모직(울 50%) ◆ 광목 ◆ 순면(무늬있는 먹물)
하복 적삼·조끼·바지 ● 구김이 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A. ₩130,000 B. ₩160,000 ● 마 ₩160,000 ● 모직 ₩160,000
셔츠 라운드형 차이나형 칠부 ● ₩20,000 ~ 35,000원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중앙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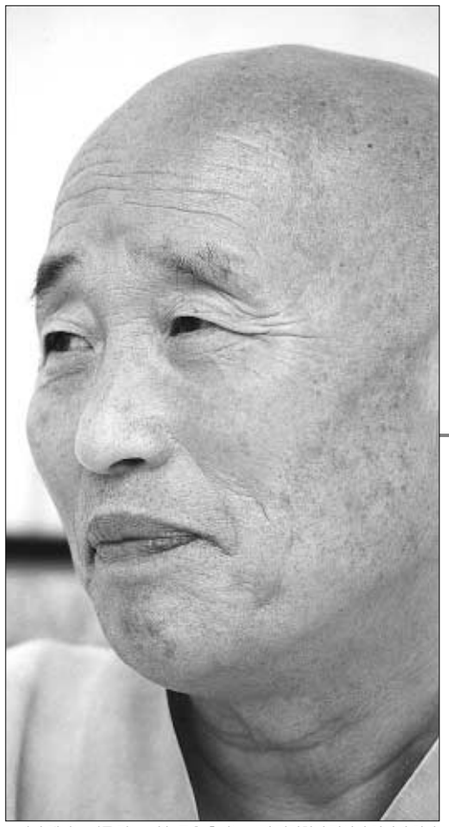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 / 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수행에는 뼈를 깎고, 피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간절함과 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혜정 스님.

참선·주력·108배·간경도 기도 뼈깎고 살을 에는 마음으로 온 정성 기울여 간절히 올려야

수행의 가장 무서운 적은 게으름 자신을 담금질해 늘 깨어있길…

부처님은 우리를 늘 안고 계십시다. 부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어기고,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는 청개구리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전부 안아서 끝까지, 이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그 대자비심을 발휘해서 고통이 다 없어지고 행복하게 살 때까지, 성불할 때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부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소용없다' 하고 맙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2500년 전 이 세상에 출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선언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화엄경>에는 '일체유심소조'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중생계는 인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때문에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인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인연이요, 하나는 좋지 않은 인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인연을 맺되 좋은 인연을 맺고 살아야만 마음도 편하고 서로 도움도 받고, 고민도 없고, 고통도 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좋지 않은 인연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가야만 되느냐? 운명론을 믿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악한 인연, 좋지 않은 인연을 확 때려 부셔서 창조하고, 또 바꾸고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정립해서 회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신이 노력하면 됩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인색한 게 보통 우리 업 많은 중생들의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냉엄하게 사정없이 비판을 하고 다른 이에게는 관대하게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내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하심하고, 내가 조금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능히 좋지 않은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슬~슬 뚫려서 좋은 인연이 됩니다. 이게 바로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는 작업의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어기고,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는 청개구리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전부 안아서 끝까지, 이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그 대자비심을 발휘해서 고통이 다 없어지고 행복하게 살 때까지, 성불할 때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부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소용없다' 하고 맙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잡념망상으로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신심과 원력과 정성을 다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살을 에는 마음으로 피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데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것, 이 게으름을 망치로 때려 부셔서 다 내쫓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부단히 담금질하는 것. 이것을 '절차'하고 '탁마'한다고 합니다. 담금질해서 아직 미완성 자리를 완성되게 만드는 것도 자기 마음입니다.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옛날 스님들은 공부하다 졸음이 오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멍이 들어서 피가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그와 같이 졸음을 떨치면서 부처님 말씀을 한 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그 정신, 그 신심. 이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뭔가를 갈구하고, 소원할 때 그것을 이룩케 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도, 주력도, 108배도, 간경도 모두가 기도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한 포괄적인 기도, 수행 전체를 개념으로 하는 기도를 지금 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에 맞는 것을 하나 잡아가지고 꾸준히 하되 게으르지 말고, 정성을 다 해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꼭 성취됩니다.

여러분, 두견새가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두견새는 모든 새들이 다 잠이 들고, 모든 짐승들이 잠이 들고, 사람마저 잠이 들고, 천지가 적막하고 오직 달빛만이 밝은 야삼경, 열두시나 한 시경 그 때 웁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어 보면 너무나 애절하고 너무나 간절합니다. 무슨 원이 있어서 무슨 한이 있어서, 모든 것이 잠든 적막한 이런 밤중에 홀로 저렇게 우는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을 울다가 또 흐느끼며 웁니다. 울다가 목에서 피가 맺히고 그 피가 올라왔다가 다시 넘어 갑니다. 피 맺힌 한이 있어서 그렇게 밤새도록 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 두견새와 같이 한번 해보세요.

간절하게 두견새가 우는 그 마음으로, 낭떠러지에서 밑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생사를 걸고 선방에서 일주일, 한 달, 석 달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 하는 마음으로, 철야기도를 일주일 또는 열흘 쉬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좌불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배가 부르면 나태해지니까 밥을 한 끼만 먹고 그 졸음을 쫓아가면서 일일일식으로 기도하는 마음, 공부하는 마음. 그런 지극한 마음으로, 그런 정성스런 마음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극치가 뭐냐. 바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일체종지를 다 얻고, 깨쳐서 모든 것을 다, 아무 구애 없이,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해서 성인이 될 수 있는데, 하물며 돈이나 건강, 애들 입학하는 것 같은 소소한 것들은 조금만 하면 다 이뤄집니다. 그 대신 기도할 때 아주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어느 스님이 운문 문언(雲門文偃, ?~949)선사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왜 마른 똥막대기라고 대답했느냐, 여러분은 그 도리를 한번 깊이깊이 참구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서 이뤄지고, 불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덕혜스님의
스님이야기
성광스님

올해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동자승들의 절 생활 모습이 TV에서 방영되었다. 예불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서툰 솜씨로 승복을 입는 앙증맞은 모습이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동자승의 해맑은 순수함으로 포교와 복지의 길을 걸어가는 스님이 성광스님이다.

성광을 처음 만난 것은 내가 송탄 지산사 주지로 있을 때인 93년 가을이다. 부잣집 도련님 같은 단아한 인상의 젊은 스님이 찾아왔다.

"오산 공군기지 군법사 성광입니다. 군법당을 새로 짓고 낙성법회를 봉행하려 하니 참석해 주십시오."

미군기지내 나즈막한 언덕에 지어진 절은 100평 정도의 큰법당과 어린이 법회용 작은법당, 그리고 80평 규모의 요사채로 이뤄져 있었다. 낙성법회 후 의기투합한 성광과 나는 지산사와 공군기지 불자들의 합동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하게 되었다.



그림·문병성

이때부터 나는 성광을 '조계종의 꿈나무'라 부르며 가장 아끼는 후배로 삼게 되었다. 어느 날 기지 앞을 걸어가는데 경적소리가 나기에 돌아보니 성광이다. 평소 승복만을 고집하던 그가 그날은 군복 정장차림이었다.

"덕혜스님, 나 오늘 대위로 진급했어요."

진급 후 성광은 진주교육사령부 군법당으로 내려가고 나도 목포 유달산 달성사 주지로 부임하게 되어 목포와 진주를 오가며 우리의 만남은 이어졌다.

훈련병 수계식을 해달라는 성광의 전화를 받고, 군법당에 들어서니 육백여명의 장병들이 법당 뒤 통로까지 빼꼭히 앉거나 서 있다. 인례를 따라 삼보에 귀의할 것을 서약한 장병 한 사람 한사람에게 연비를 해 주는데, 이들이 성광스님의 '포교원력'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난 불법의 새싹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왔다. 어느 큰 스님인들 수백명의 젊은이를 단숨에 불법에 귀의시키기가 쉬운 일이겠는가.

흔히 군대를 '포교의 황금어장'이라 말하면서도 종단과 불자들의 관심부족은 여전한 것 같다. 포교는 원력과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장기적 투자다. 근래 조계종 포교원에서 의욕적으로 군 포교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도 여건은 척박하기만 하다.

120여명의 군법사들이 350개가 넘는 군법당을 관리하며 헌신적으로 뛰고 있음을 생각할 때, 종단과 스님들이 군포교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했으면 한다. 가령 분담금에 사찰 규모에 맞춰 군불교 진흥기금을 포함시킨다거나, 군법사가 부족한 전방의 법당은 인근 스님들에게 법회를 주관토록 하거나, 사찰과 군법당의 자매결연 확대, 제대하는 군불자를 조계종 청년회나 신도회를 끌어들이는 시스템 만들기 등이 그것이다.

서울 보라매법당 주지법사로 부임한 후부터의 성광은 어머니 장보살님과의 합동작전을 펼치게 된다. 보라매공원을 배회하는 노숙자와 노인들에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급식을 실시한 것이다. 포교에서 복지로 시선이 옮겨간 것이다.

이후 성광과 장보살님은 제기동 집을 '보문선

공군법당 낙성식 참석서 첫인연
보문선원 세우고 무료급식 봉사

원'이라 이름붙이고 본격적으로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된다. 무료급식을 위해 이백여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하고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의 지원하에 하루 2~3백명의 홈리스족,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이웃, 독거 노인들에게 점심공양을 드리게 된다. 몇 년동안 꾸준히 이어오던 무료급식이 장보살님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근래 중단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빨리 건강해지시기를 부처님전에 축원드린다.

성광은 명예도 재물도 지위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권위도 가식도 없는 본래의 편안한 모습속에 스스로 즐거워 한다.

어느날 그런 성광이 걱정되어 한마디 했다. "남들은 중노릇 몇 년 하면 벌써부터 주지 할 생각을 하는 등 자기 살 궁리를 하는데 스님도 힘있을 때 머물 곳이라도 하나 장만해. 그렇게 살다 늙으면 어떡할거야?"

그러자 성광은 피식 웃었다.

<금강경>에 보면 '무아(無我)의 진리에 통달한 사람을 참된 보살이라 부른다.'는 구절이 있다. 성광은 자신을 철저히 비움으로 무욕(無慾)의 순수함에 이른 보살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서울 정법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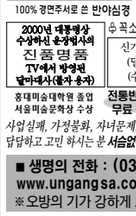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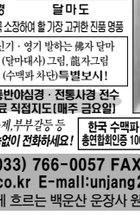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위주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알칼리밸런스를 조절해 준다.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평균혈 자신합니다.
자연식 활무원 원장
제일의사(천학사) 박종원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50,000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부종,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종합라이프 Co.
(구)한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일요일 아침 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 (저녁7시~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리고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2003년 6월 28일 토요일
조계사앞 (4시)출발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국전력 앞(5시) 경유하여 법왕정사 도착
◉ 차량 예약 문의 : 양 헌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망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빙의된 중생에게 영가가 왜 왔으며,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또 제3자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중생들의 가정에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악연만 되풀이 되는것이 영가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고, 또한 영가의 원하는 바를 물어봐서 그 소원을 들어 천도해주면 영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가위눌림이나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제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
◆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
◆ 지옥의 문이 열리고 영가가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 고통받는분 특별 상담
무병 · 신병으로 고생하는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 못이루는 분,
빙의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분
지상의 그 어떤 악령도 즉시 단 한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대 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 일 시 : 인원 수시 접수
02)556-5590, 5542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서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갈자 용자)
순 곡 소장하여 활기찬 고귀한 진품 영품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 (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백파 차단)특별보시!
홍대미술대학원 졸업 서울미술문학상 수상
전통반야심경 · 전통사경 전수 무료 직접지도(매주 금요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현협회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ungangsa.co.kr E-mail:unjang21@kornet21.net
※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백운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백운산 운장사
韓國佛敎藝術文化院



힙합거리에서 차 한잔 어때?

압구정, 종로… 눈길끄는 퓨전찻집 속속 등장

차(茶)가 젊음이 있는 거리로 나왔다. 손님을 접대하거나 의례를 치르는데 사용됐던 차가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젊음의 거리'로 상징되는 종로와 압구정동 일대에는 이미 대중화된 녹차는 물론 영국식 홍차와 인도, 동남아, 중국산 차를 즐길 수 있는 '티 카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압구정동에 문을 연 '티 뮤지움'(Tea Museum)은 대표적인 티 카페. 이곳에서는 중국과 일본, 대만, 인도를 비롯해 영국과 이집트, 남아프리카, 미국 등에서 생산된 100여 종류의 차를 만날 수 있다. 10여 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벽면 가득히 진열된 차보관함(Tea Caddy)과 각양각색의 다구들에서, 20여년 간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차에 관한 자료들과 각국의 차를 수집했다는 최금옥 사장의 부지런함을 눈치 챌 수 있다.

이곳의 주 고객은 처음 차를 접하는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 때문에 티뮤지움에서는 두 명의 티 어드바이저(tea adviser)가 자신에게 잘 맞는 차를 권해주고 차를 우리는 온도와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언니 대신 티뮤지엄을 운영하고 있는 최병주 씨는 "흔히 차라고 하면 '녹차'만 떠올리기 쉽지만 이곳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차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티뮤지움은 차의 종류와 보관법, 차에 대한 궁금증 등을 담은 홈페이지(www.teamuseum.co.kr)를 운영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하지 않는다. "차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야기 하며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라고.(02-515-2350)

번잡한 종로 거리에 들어선 조금은 색다른 카페 '티 포 투(Tea for Two)'는 이미 차 애호가들 사이에 동호회까지 결성되어 있는 명소. 동호회 회원만도 벌써 300명을 헤아린다.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종로의 특성상 대학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때문에 티포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기모임과 '말차 강의' 같은 특강을 열어 일반인들이 쉽게 차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곳의 최대 자랑거리는 무엇보다 질 높은 차. 뉴욕의 유명한 카페와 레스토랑에 차 재료를 공급하는 차전문 도매상 '세렌디피티'로부터 독점 공급받고 있다. 덕분에 이곳에서는 아삼, 블랙밸벳 등의 홍차와 우롱차, 녹차 등 40여 종류의 다양한 차를 맛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이곳에서 차를 주문하려면 일단 종업원이 건네주는 나무상자를 열어봐야 한다. 상자에 들어있는 15종류의 작은 유리병 안의 향을 일일이 확인해 보고 나서 마시고 싶은 차를 고르는 것.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면 각자 1인용 주전자에 차가 담겨져 나온다. 작은 모래시계로 시간을 맞춰 찻물을 우려 마시는 것도 젊은 고객을 사로잡는 아이디어다.(02-735-5437)

이밖에 이화여대 정문입구에 자리 잡은 동남아시아 차 전문점 '티앙팡'(02-364-4196)에서는 200여 종의 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서울 신촌의 카페 '리데'(02-392-0836)는 홍차를 전문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제 차문화는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젊은이들의 여가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젊은이들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만큼이나 다양한 차를 선보이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 '티 뮤지움'에서는 100여 가지 차를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다.

한국차문화협회 제주도서 헌다식

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귀례)는 27~29일 '추사 김정희 선생 · 마라도 지신께 드리는 헌다식' 봉행을 위한 제주도 답사를 떠난다.

해상왕 장보고의 얼이 서린 제주 법화사에서 듣는 주지 시몽 스님의 차문화 특강, 오설록 차(茶)박물관 탐방, 추사 김정희 적거지 헌다식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답사 안내는 이형석 '차문화' 편집주간이 맡는다. 참가비 28만원.

(02)733-8818

김창배 화백<차한잔의 인연>

인사동 담원 갤러리를 운영하는 김창배 화백이 지난해 선보인 <차 한잔의 풍경>에 이은 두 번째 책 <차 한잔의 인연>을 펴냈다. '차만 마시며 그림을 그리는 화가'란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그동안 그려온 다화 작품 140여 점과 글이 담겨 있다.

"차 한잔 속엔 우주 만상의 진리가 담겨있다"는 김 화백은 "차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담았다"고 말한다.



우리차

옥로우전

40년 역사의 화개제다(대표 홍소술)의 '옥로우전'은 매년 4월 곡우 전에 나오는 지리산 순수 야생차의 어린 순을 전통 제다법으로 만든 대표작으로, 야생차의 맛과 향이 살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화개제다는 2001년 한국차인연합회가 주최한 '올해의 명차'에 선정됐으며 '2001 세계명차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값 10만원. (02)871-2845

차맥 지킴이



이귀례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가천문화재단 부이사장, 가천박물관장, 길병원 행정원장, 가천 · 경인문화대학 학장….

그를 수식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74) 이사장은 자신을 '차(茶)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한다.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인 규방다례(閨房茶禮) 기능보유자이자 40여 년간 우리 차문화 보급에 앞장 서 온 이력에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읽을 수 있다. 22일 '제4회 인설 차문화전'을 성황리에 치른 이 이사장을 만나 우리 차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얼마 전 차문화 보급에 앞장 서 온 공로로 '제35대 신사임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감은?

"불과 20~3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차산업은 눈부시게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2000억 원 대에 이르는 거대한 차시장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차문화를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지역도 많습니다. 때문에 차문화협회에서는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차문화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우리 전통 차향을 찾아서'란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12만 어린이들에게 차예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점을 높게 평가해 준 것인만큼 이 상은 저 혼자만의 상이 아니라 우리 단체가 받아야 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차문화협회의 그동안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교육통해 2천여 다도사범 배출
진정한 차인 정신 봉사로 승화

"한국차문화협회는 1979년 설립된 '한국 차인회'를 시작으로 다신계를 거쳐 1989년 지금의 단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980년대 초반, '우리 차 마시기' 운동을 펼친 후 차인들의 화합과 차문화 보급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현재 전국 15개 지부와 미국 미네소타, 인도네시아에 해외지부를 두고 있는 명실상부한 차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2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2천여 명의 다도 사범을 배출해 차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기능보유자이십니다. 규방다례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규방다례는 '부녀자들이 방에서 행하는 차를 다루는 법과 제반 다반사(茶飯事)'를 말합니다. 즉, 손님을 초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를 내고 다담을 나누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 것이지요. 이러한 규방다례는 전통과 예절을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청결을 중시하는 다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차문화협회의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차문화협회가 차문화 대중화에 앞장섰다면 이제는 올바른 '차인 정신'을 담아가야할 때입니다. 저는 진정한 차인의 정신은 '봉사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마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를 낮추게 되고 남을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때문에 차문화협회에서는 차의 멋과 맛을 즐길 줄 아는 진정한 의미의 차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봉사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수령 기자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화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의 강력한 氣기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氣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 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금강염주사 문의 (02)723-0909
전화로주소성명을알려주시면우체국등기소포로전해드립니다.별이잔분소들하고사용하실수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 불경 룸비니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규격 8.5x5.2x2.0cm) 가격58,000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독경 : 효동선각스님



테이프: 8ea set
가격: 20,000원

CD: 2ea set
가격: 10,000원

1주년 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하만 TSI에서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예견한 바와 같이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다.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1주년 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로
• 팩키지 Ⅰ 디지털불경 룸비니 + 테이프 8개 + CD2개 특별가 58.000원
• 팩키지 Ⅱ 디지털불경 룸비니 + CD 1개를 특별가 39.000원
특별할인판매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02)722-0880
입금구좌 농협(170-12-056037 정애영)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10일부터

인기 불교영화 다시 보세요

35개국서 190여편 출품

'볼리우드' 영화 관심 많아

'동승', '보리울의 여름', '오세암'을 비롯한 한국 불교영화와 인도의 대중영화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사랑, 환상, 모험'을 주제로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제 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바로 그것. 지난해보다 20여 편 늘어난 35개국서 출품된 190여 편(장편 100여 편, 단편 90여 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찾는다. 상영관도 지난해까지 운영돼온 시민회관 대강당, 부천시청 대강당, 복사골 문화센터, 소사구청 소향관 외에 씨네울의 3개관이 추가됐다.

뚜렷한 불교색을 띠는 불교영화는 많지 않지만 자아를 향한 사랑과 생명존중, 인도문화 등을 소재로한 영화들이 몇 편 눈에 띈다.

이중 폐막작으로 선정된 '여고괴담 세 번째 이야기 · 여우계단'(감독 · 윤재연)은 가부장제 사회를 통렬히 풍자한 단편 '사이코 드라마'로 주목을 끈 작품. 인간의 불안심리 묘사를 탁월하게 표현한 이 영화는 소녀들의 자아를 향한 사랑, 우정을 세심한 드라마로 빚어냈다.

특별전 '매혹과 열정의 볼리우드', '홍콩영화의 전성시대:쇼 브라더스 회고전' 등도 기대되는 프로그램들이다.

특히 '볼리우드'는 봄베이와 헐리우드를 합친 말로 뮤지컬이 섞인 인도의 상업영화를 가리킨다. '데브다스', '컴퍼니' 등 이번에 소개되는 볼리우드 영화들은 인도에서 큰 인기를 모은 작품과 최고 감독들의 최근 작들이다.

이외에도 '후카사쿠 긴지 추모전'과 특별상영으로 '카시 삼부작:생명과 문명의 불협화음', '나이박이 들고 온 오래된 영화상자:길, 뮤지컬, 카툰' 도 눈길이 가는 영화들이다.

김홍준 집행위원장은 "이번 영화제는 특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장르가 아니라 가족 모두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패밀리섹션을 강화했다"며 "온 가족이 한데 모여 팬터스틱의 참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설명한다.

한편 일반상영작 예매는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된다. www.pifan.com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보리울의 여름 상영:7월12일 20:00



시골마을 보리울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신부와 수녀, 그리고 스님과 그 마을 아이들의 이야기. 보리울 아이들이 단결하여 읍내의 초등학교 축구부 아이들과 시합을 벌인다. 수녀와 신부, 스님은 이를 둘러싸고 견해 차이를 드러내지만 영화가 진행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화합과 관용의 정신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우화적으로 풀어낸 영화.

동승 상영:7월13일 20:00



조그만 산사에 사는 세 명의 스님. 꼬마 스님 도념과 총각 스님 정심, 그리고 큰 스님인 노스님이다.

영화는 세 명의 스님을 통해 캐릭터별로 테마를 보여주는데, 꼬마 스님인 도념의 경우에는 성장 과정, 정심을 통해서는 종교적 의무와 개인적 욕망의 갈등, 노스님을 통해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도와 이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세암 상영:7월14일 20:00



다섯살 길손이가 엄마를 만나는 애틋한 마음에 관한 이야기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된 명작동화이다. 특히 한국형 가족 애니메이션을 표방하며 화려함과 일시적 재미를 추구하는 기존 애니메이션과 차별화해 따뜻한 동심을 느낄 수 있다.

이 작품은 평면기술(2D)임에도 컴퓨터그래픽을 덧입혀 시냇가의 반짝이는 돌의 빛과 질감까지 정교하게 살려냈다.

찬불동요집 '풍경소리 16'

불교TV 프로 주제곡도



좋은 벗 풍경소리'의 열여섯번째 창작 찬불동요 모음집 '풍경소리 16'이 새로 나왔다. 이번에 선보인 노래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찬불동요, 창작 찬불가 등 음악장르가 다양해진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불교TV 어린이 프로그램 주제곡과 법회나 의식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반주음악이 실려 있다.

이번 음반에서는 타이틀곡인 '어디서 왔을까요', '신나는 여름', '축제', '마음이 고운아이', '등불보살', '돌탑' 등 어린이법회 행사 분위기에 맞는 경쾌한 창작 찬불동요와 '팡! 팡! 룸비니동산', '야! 부처님이다'와 같은 불교TV 어린이 프로 주제곡을 합친 12곡이 수록돼 있다. 또 이 노래들의 반주 음악도 부록으로 들어 있다. www.budsori.or.kr.

새로나온 음반

'명창' 한데 모은 CD출반

조상현씨의 해설 곁들여



무형문화재 김소희 명창과 조상현, 성창순, 신영희, 조통달 등 명창들의 소리를 한데 모은 CD가 출반됐다. 사운드스페이스가 제작한 이 음반은 1970년대 초에 녹음돼 6장의 LP음반과 5개의 카세트 테이프로 출반된 적은 있으나, CD 음반으로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금 반주와 함께 조상현 명창이 박력있는 목소리로 흥보가이 구성과 내용을 해설 하면 김소희 명창을 비롯한 안향년, 성창순, 박송희, 한농선, 김경희, 강종철, 성우향, 박옥진, 신영희, 조남희, 조통달, 남해성, 박봉술, 박춘경, 김동애 명창들이 자연스런 연기와 생동감 있는 소리로 신명나게 부른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소희 명창의 생전에 소리를 담은 몇 개 안되는 음반중 하나라서 더 기대가 된다.(02)307-2030.

수묵담채로 표현한 禪

김양수 초대전, 공화랑서

꺾어진 갈대, 들꽃, 폭포의 물, 바람 등 자연의 세계가 거친 수묵 덩어리로 표현됐다.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인사동 공화랑에서 '고삐 풀린 감성의 만행'을 주제로 열리는 김양수 초대전에서는 농담과 여백의 미가 짙게 배어나온 수묵담채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울산 불영사와 신계사, 광릉 봉선사 등 사찰 주변의 계곡을 담았기 때문일까. 김화백의 그림은 자연을 그렸으면서도 제목 자체가 바로 선(禪)이다. '하늘을 안고', '깊은 침묵', '바람이 춤을 추는지, 내가 춤을 추는지', '바람의 향기', '본디 내자리는'과 같은 식이다. 11월의 봉선사 '연지(蓮池)'를 그린 '깊은 침묵'은 꺾이고 시들어 있는 연못의 형상을 그렸고, '본디 내자리는'은 자연속에 있어야 할 꽃들이 화분에 매달려 있어 본디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을 표현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총 25점이 선보인다. (02)735-9938.

김주일기자



◇김양수作, '바람이 춤을 추는지, 내가 춤을 추는지'.

가볼만한 전시회 2題

국·한문·영문 서예 80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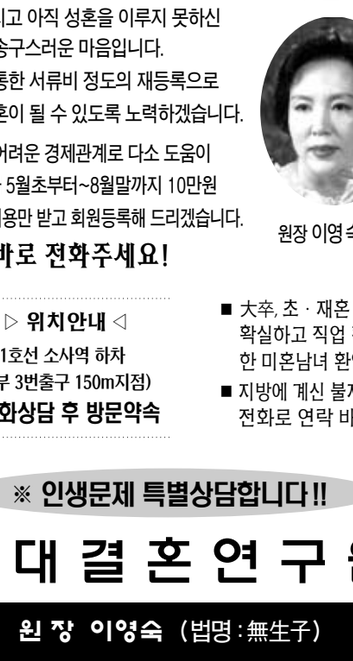
이순단씨, 26일부터 전시회

서예가 이순단씨 개인전이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인사동 백악예원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대통령상 수상기념으로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이씨는 해서, 초서, 행서 등 각 서체별 국한문과 영문체 80여점을 선보인다.

종류도 다양하다. '불심(佛心)', '나옹선사시', '사자소학', '오우가', '천리마' 등 불교와 유교적 내용들이 많다.

그림도 있다. 가는 붓으로 넉넉한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표현한 '관세음보살도'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합장하게 만들정도로 경외심이 든다. 또 일필휘지로 힘차게 내려친 작품 '불심(佛心)'에서는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흔들림 없는 필력이 느껴진다.

이외에도 '청산은 나를 보고'로 시작되는 '나옹선사시'는 크기가 일정한 정자체로 쓰여져 있어 글 내용과 함께 반듯한 인상을 준다.(02)565-6772. 김주일기자



◇이순단씨의 '불심'.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텔레비전 <ch 32>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06:30 아침저널
10:00 라디오 법회(일)
11:00 뉴스
14:45 고승열전
16:45 룸비니동산
20:05 다시 듣고싶은노래

26일 09:05 최완수의 불교문화 바로알기
27일 12:30 이화숙의 노래교실 '오 해피데이'
28일 14:10 명사 초청특강- 설용수
29일 16:05 포살법회
30일 13:20 덕신 스님의 사찰 문화여행
7월 1일 23:35 혜봉 스님의 차와 선 이야기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김병조의 다시 듣고 싶은 노래(27일 20:05~21:00)-금요일 코너는 청취자들이 참여하는 '배추머리 노래방'으로 꾸며진다. 전화로 자신의 노래실력을 뽐내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02)705-5114

■불교텔레비전

▷최완수의 불교문화 바로알기(26일 09:05~10:00)-제 10강에서는 중국 강남파 불상양식에 대해 알아본다. 이 불상은 온화하고 맑고 깨끗하며 기품 있는 귀족적 풍채가 엿보이며 얼굴의 윤곽과 이목구비는 더할 나위 없는 중국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먹물, 마직 적삼 · 바지 : 150,000 / 동방 · 바지 : 180,000 / 두 루 막 : 150,000
2. 무 명 수재 · 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 · 바지 : 180,000 / 동방 · 바지 : 220,000 / 두 루 막 : 180,000
3. 모 시 론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50,000 / 동방 · 바지 : 180,000 / 두 루 막 : 150,000
4. 면 래푸사 특 징 - 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30,000 / 동방 · 바지 : 160,000 / 두 루 막 : 130,000
5. 장 삼 특 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 썸머쿨 : 200,000
6. 신 도 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 · 바지(모직회색) : 60,000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겉망 · 손가방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초여름의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1) 등록하시고 아직 성혼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상담을 통한 서류비 정도의 재등록으로 다시 성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요즈음 어려운 경제관계로 다소 도움이 되시고자 5월초부터~8월말까지 10만원 정도의 비용만 받고 회원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원장 이영숙 합장
▷ 위치안내 ◁
1호선 소사역 하차
(북부 3번출구 150m지점)
전화상담 후 방문약속
■ 大幸,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중풍(뇌졸증)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증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증(중풍), 동맹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흥채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새한빛약국(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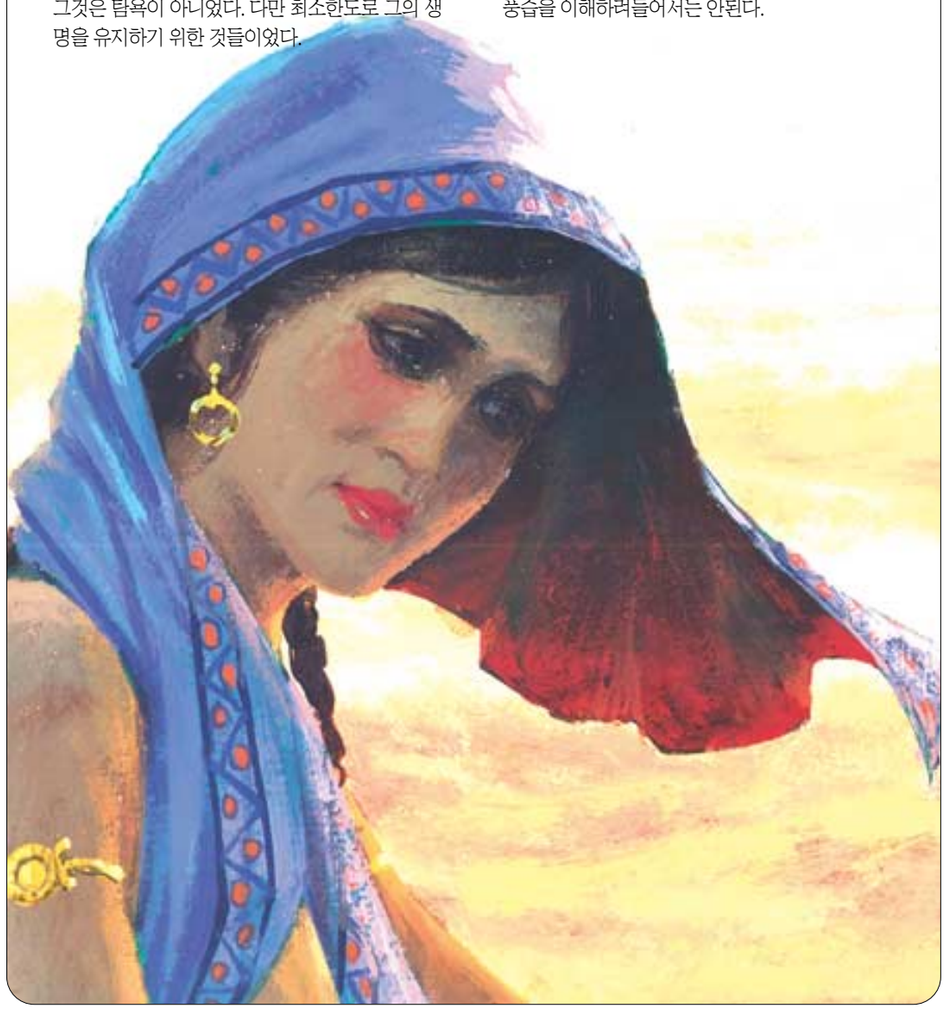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 16화 선정(禪定)에 든 싯다르타

이때 수자타는 아버지인 우루빌라 마을 촌장의 명령으로 숲의 수신(樹神)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한 제물(祭物)을 가지고 있었다. 수자타는 수신을 위하여 준비했던 제물들을 싯다르타 앞에 공손히 내밀었다. 앞뒤 분별없이 목욕을 하겠다는 마음 하나 만으로 강물에 뛰어 들었던 싯다르타가 극도의 영양부족으로 지금 불어오는 미풍도 이기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것이다. 싯다르타는 그 소녀의 정성을 받기로 했다. 그것은 탐욕이 아니었다. 다만 최소한도로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2500년전 인도의 생활풍습에 나체의 부끄러움 따위는 없었다. 옷은 다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나 전쟁 중 적의 화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만 필요했던 것이다. 무더위 속의 인도에서 여자까지도 꼭 필요한 부분을 가리는 정도 외엔 옷을 입지 않았고 더욱이 수도자들에겐 옷은 사람에게 사치와 탐욕을 일으키며 악의 구렁텅이로 유혹하는 물질로 판단됐던 것이다. 육체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기에, 현대적인 개념으로 당시 인도의 풍습을 이해하려들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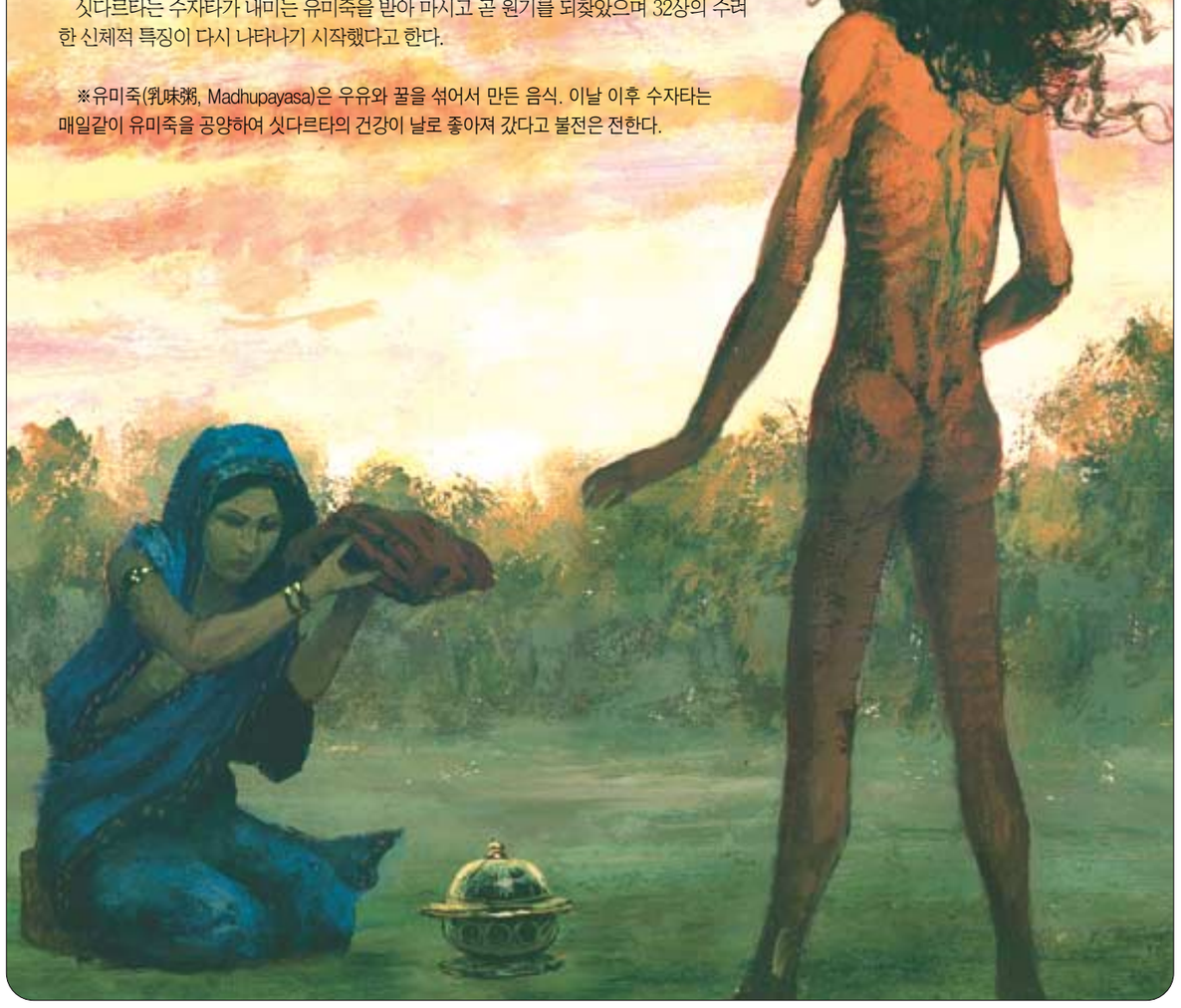
수자타가 내민 카샤(Kasaya)로 싯다르타의 몸이 따뜻하게 보호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배고픔이 엄습해 왔다. 그것 역시 싯다르타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이었다. 그때 수자타는 역시 수신을 위하여 준비했던 유미죽을 내밀었다.

"만약 어른께서 숲속의 수신이시면 이 유미죽은 어차피 어른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니 기꺼이 받으소서. 만약 어른께서 숲속의 수신이 아니시라면 고행을 위한 출가 도인으로서 지금 그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오니 사양 마시고 받으소서."

"내 그 유미죽으로 몸을 지탱하고 수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양 않고 받을 것이로다. 나는 이미 새롭게 가야할 길을 알고 있으므로 더 이상 내 몸을 학대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싯다르타는 수자타가 내미는 유미죽을 받아 마시고 곧 원기를 되찾았으며 32상의 수려한 신체적 특징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유미죽(乳味粥, Madhupayasa)은 우유와 꿀을 섞어서 만든 음식. 이날 이후 수자타는 매일같이 유미죽을 공양하여 싯다르타의 건강이 날로 좋아져 갔다고 불전은 전한다.



바로 이때, 마을로 탁발 나갔던 5명의 수행자들이 되돌아 오다가 싯다르타가 수자타로부터 유미죽을 받아먹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비록 적은 음식이라도 싯다르타를 위하여 준비하여 왔는데 그토록 거룩해 보이던 싯다르타가 역시 배고픔을 견뎌내지 못하고 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지난 2년간의 수행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아아 이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5인의 수행자들은 참으로 경악하여 서로 말문을 열지 못하고 서있었다.

"샤카족의 왕자여, 어찌하여 그동안 피나는 고행을 그리 쉽게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그토록 갈망하던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어 보였는데 끝내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낱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이제부터는 어찌 하리오.

우리 모두는 그동안 왕자님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도 왕자의 수행법을 흉내 내어 왔는데 오늘날 모든 것을 내버리고 우리 5인의 친구들마저 버렸으니 하늘 쳐다보기가 부끄러워 왕자와 같이 있을 수 없게 됐소. 이제부터는 왕자님 홀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오."

"내 이미 불과 불빛을 예로 들어 금식의 고행으로 뜻을 이룰 수가 없음을 설명하였소. 지금까지 나의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검증해 내었소.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수행의 길을 갈 것이오. 여러분들도 내 말을 듣는 것이 좋을 듯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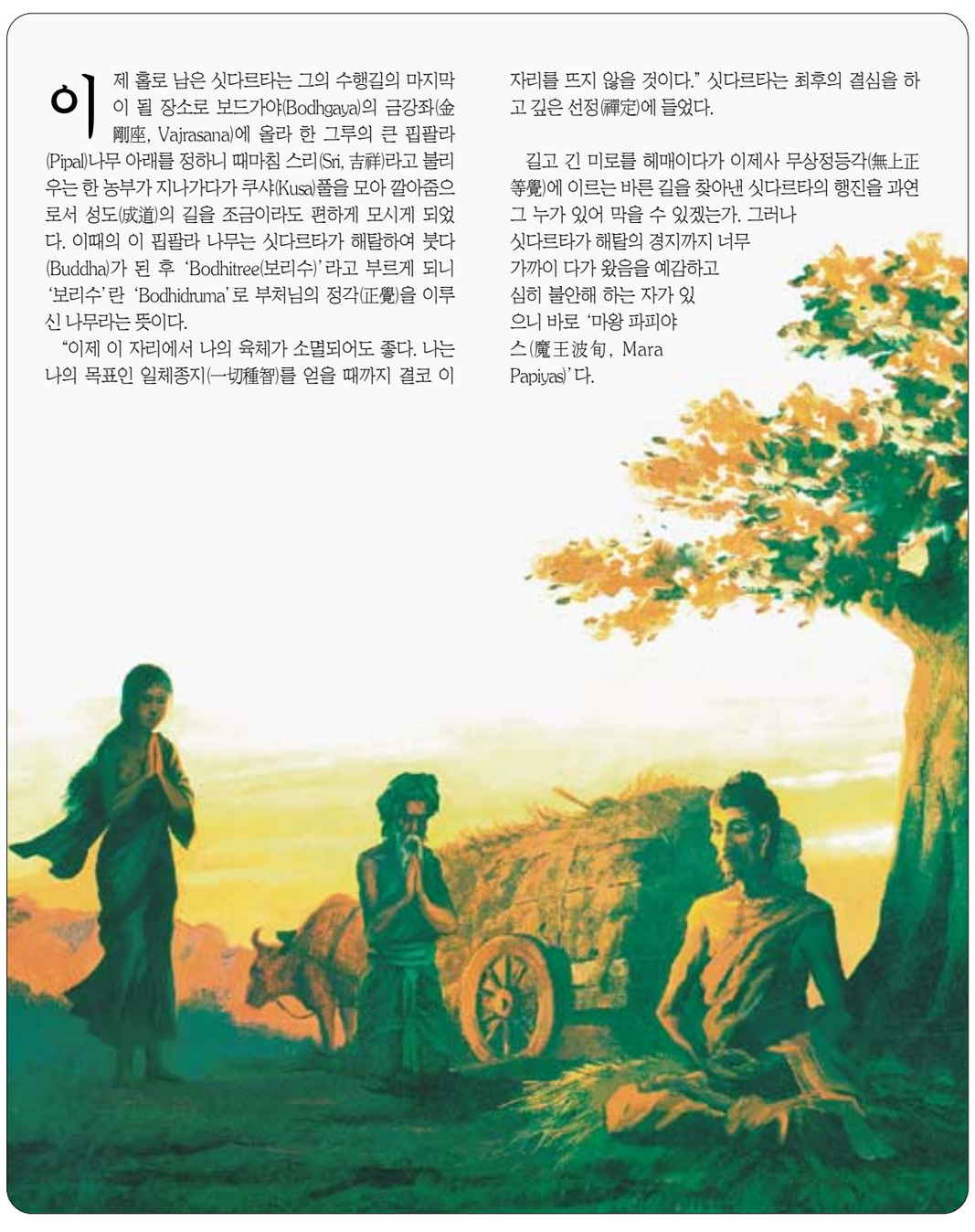
"이제 샤카의 왕자는 완전히 타락하였다. 더 이상 이곳에서 그의 타락한 모습을 볼 이유가 없다." 크게 실망한 5인의 고행자들은 카운틴냐(Kaundinya, 橋陣如)를 앞세워 모두가 그곳 고행림(苦行林, Tapovana)을 떠나 바라나시의 녹야원(鹿野苑, Mrgadava)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이제 홀로 남은 싯다르타는 그의 수행길의 마지막이 될 장소로 보드가야(Bodhgaya)의 금강좌(金剛座, Vajrasana)에 올라 한 그루의 큰 핍팔라(Pipal)나무 아래를 정하니 때마침 스리(Sri, 吉祥)라고 불리우는 한 농부가 지나가다가 쿠샤(Kusa)풀을 모아 깔아줌으로서 성도(成道)의 길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모시게 되었다. 이때의 이 핍팔라 나무는 싯다르타가 해탈하여 붓다(Buddha)가 된 후 'Bodhitree(보리수)'라고 부르게 되니 '보리수'란 'Bodhidruma'로 부처님의 정각(正覺)을 이루신 나무라는 뜻이다.

"이제 이 자리에서 나의 육체가 소멸되어도 좋다. 나는 나의 목표인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얻을 때까지 결코 이 자리를 뜨지 않을 것이다." 싯다르타는 최후의 결심을 하고 깊은 선정(禪定)에 들었다.

길고 긴 미로를 헤매이다가 이제사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에 이르는 바른 길을 찾아낸 싯다르타의 행진을 과연 그 누가 있어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싯다르타가 해탈의 경지까지 너무 가까이 다가 왔음을 예감하고 심히 불안해 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마왕 파피야스(魔王波旬, Mara Papiyas)'다.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자유인이 될 자격 가지고 있어

보이는 집을 짓는다 해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집을 짓고 있는 중에도 금이 가고 무너지는 수가 있듯이 여러분 마음의 기초도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내가 무엇을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항상 말씀드려온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태어나 살면서 얼마나 쫓고 쫓기면서 몸이 바뀌고 마음이 진화되면서 이렇게 인간까지 왔나 하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누이 하는 말이라 여러분 모두 너무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을 하고 금방 다른 말을 했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벌써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불법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경구(經口)에만 매달리고 글자풀이에만 매달린다면 마음공부와는 천리만리 멀어지고 말게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중세계의 쫓고 쫓기는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억겁을 통하고 또는 끌간 데 없이 그 차원에서 끼리끼리 모여 살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인과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없다면 바깥경계의 보고 듣는 대로만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겉만 볼 뿐이지 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데 하나도 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쪽 두뇌는 물질세계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하고 왼쪽 두뇌는 깊은 속의 모든 것을 넣을 수 있는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의학적인 전문인들도 계시겠지만,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이고 내는 것도 거기서 점검을 해서 들이고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모른다면 그대로 물질에 끄달리고 정신에 끄달리게 됩니다. 아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집을 짓는 중에도 금이 가고 무너지는 수가 있다고 했듯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아니, 육신 속에 인과로 인해 악업 선업이 뭉쳐 있으면서 좋고 나쁜 것이 수없이 나오는데 좋은 것은 잠시 잠깐이고 언짢은 것, 화나게 하는 것, 술 먹고 아수라장을 만들고 하는 모든 일체를 일으키는 그 놈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 속에 그러한 의식들이 인연으로 뭉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서 헤아릴 수 없이 수만 개가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하나가 뽑히는 것이 부모에게 육(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자기가 과거에 살던 악업 선업을 짊어진 채 거기에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삼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뭉쳐진 악업 선업이 과거의 것은 현실로 모이고 미래는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없으니 현재 여러분이 모두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강요하고 강요당해서 악업 선업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식들은 좋고 나쁘고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의식이 나쁘고 좋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중심을 지키면서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들이는 것도 다스려서 들이고, 내는 것도 다스려서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통해서 두뇌에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게 우리 마음 속에서 두뇌로 올라가면 두뇌에서 사대로 통신을 해서 그렇게 다스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 분수를 잘 지키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을 리드할 수 있어서 홀연히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중용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조금도 어긋남이 없을 겁니다. 상대를 들로 보고 남의 탓을 하며 상대를 원망하면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우선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불제자라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풀포기 하나도 불교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항상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들은 사이가 없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이등은 없이 일등이어야 살 수 있다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데도 둘째는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 되면 일체제불과 일체중생, 하다 못해 진드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섭류해서 한마음으로써 들이 아닌 도리를 알면 그때에 비로소 부처님은 부처님이요, 중생은 중생이요, 풀은 풀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거기 놓지 않는다면 하나도 얻을 바가 없고, 그 얻는 것조차도 일등으로 이겨서 나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일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구성이 되고 한마음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속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악업 선업이 과보가 되어 가지고 인과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이 모두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팔자 운명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다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서 녹여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부터 알아야 바깥세계를 알 수 있지 내면의 세계를 모르고야 어찌 바깥세계를 바로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중생들이 한마음으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로부터 인연 지어 온 모든 것들이 세포 하나하나에, 위장이나 척추, 콩팥, 그리고 심장과 위, 간장, 식도, 소장, 대장 등에 모두 집을 짓고 소임을 맡아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악은 악으로만 나가는 반면, 선한 일을 하는 소임자에게는 돈을 아무리 주고 악하게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 악이 많고 선이 적으면 여러분 마음 속이나 몸 속에서 악의적인 문제가 수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는 일을 안되게 한다든지 남을 증오하게 하고 남을 싫어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악행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꼭 죽여서만이 악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건 상대를 나와 둘로 보면서 항상 남에게 원망을 하고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남의 탓을 하면서 바로바로 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 마음도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상대가 어찌 있으며,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세상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그때 내 탓으로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이 마음공부 하는 데는 여간 지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온 자리에다 다시 말겨 놓는다면 마음의 눈과 또 육안을 겸해서 우리가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자재로 들이고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보고 들일 때 점검을 해서 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으로 들여야만이 모두 통신이 되고 또 안으로 들이는 그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전부 보살로 화한다 이 말입니다.

악업 선업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서,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가니 끝간 데 없는 진리이자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천백억화신이 되고 천백억화신 속에서, 즉 말하자면 중생들이 응해달라는 대로 응해주시는 것입니다. 천만 가지 만만 가지로 모습을 바꿔가면서 한 찰나에 응해 주시니 그것이 바로 천백억화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안에서부터 제도를 해야지 바깥에 끄달리면서 제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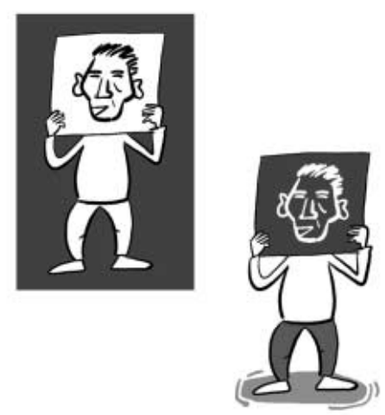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든 것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삼아 나온 자리에 다시 돌려놓으면서 직접 체험하고 그 맛을 보세요

항상 이 마음이 그렇게 충족되고 내가 그 이치를 완전히 알아야만 의학적이기도 하고, 천문학적이기도 하고, 지리학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며, 천체물리학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 되는 겁니다. 일체가 다 한마음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자체가 어떻게 해야만이 자기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으며, 그 마음이 중심에서 양면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다스리는 마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들이는 것도 맡겨서 들이고 내는 것도 맡겨서 낼 수 있어야

안에서 벌어지는 경계가 팥죽 솥이라면 팥죽이 끓을 때 방울방울이 끓어 올라오는 대로 이것도 문수, 저것도 문수 하고 주걱으로 쳤다고 하듯이,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몸 속의 어느 한 기능에서 만약에 파워를 일으키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가야만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지혜로워서 부자 부럽지 않게 마음이 부자가 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정말 대장부의 살림살이어서 조금도 가난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렇게 당당한 것이며,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면 어디서든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묘한 도리를 모른다면 늘 가난하기에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뿐만 아니라 재난이 들어와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또는 병고가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렁이 같은 미물들을 볼 때 보기 싫고 징그럽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속에는 똥통도 들어있고, 구더기도 있고 진드기도 있으며, 거위도 있고, 촌쟁이도 있고, 벼룩 같은 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서 없는 말이지만 잘 참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들의 몸 속에 여러 모습들이 들어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바로 모두 자기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역사를 볼 때에 미생물의 시대가 있었고, 곤충의 시대가 있었고, 그 뒤에는 수많은 공룡시대도 있었죠. 우리 사람이 나기 이전에 미리미리들 그렇게 진화되어서 올라오기 위한 수련으로 수많은 모습으로 바꿔가면서 세대를 따라서 이렇게 인간까지 온 것이 바로 정신수행입니다. 자연적으로 지수화풍이 바탕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쫓고 쫓기면서 마음이 그렇게 진화돼 가지고 모습을 바꾸면서 이렇게 인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말해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지금 현재의 나, 참나의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없는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인간이 되어 가지고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된대서야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남의 탓을 하면서 상대를 원망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면서 온통 부서지게 하고 남을 해롭게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미래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지금 자기 현실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더 잘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아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 속에 그러한 모든 악업 선업으로 뭉쳐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입력이 되었다가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니 거기에 속지 마시고 누가 되는 일은 하지 말며, 들이는 것도 맡겨서 들이고 내는 것도 맡겨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가 모두 여러분에게 본래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말했지만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세계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물질세계의 노예가 되고, 그것은 끌간 데 없는 길을 고통스럽게 걸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 있으면서 죽지 않는다면 참다운 열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이 도리를 알고 죽어야 열반이지,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르고 육신이 죽은 것은 그냥 그대로, 그 고통 속에서 죽는다 산다도 없이 끝없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백 가지 천 가지를 알고 있지만 한 가지도 행을 못하면 하나를 알고 하나를 행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싶다는 생각이 난다고 해서 남이야 어찌 되건 상관없이 생각 일어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데, 안의 의식들은 나쁘고 좋고를 모르고 자기가 생각내는 대로 그냥 따라줍니다. 그럴 때 사람에 따라서 악한 마음이 더 강하느냐 선한 마음이 더 강하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은 살기 좋은 시대를 살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사는데도 악행만을 일삼는 사람이 있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먹는다면 그건 독이 될 것이고 약초가 먹는다면 약이 돼서 인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나름입니다. 똑같은 칼이라 해도 의사가 칼을 들고 일을 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만 만약에 강도가 칼을 든다면 그건 곧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본다면 한마디도 할 게 없고, 한마디도 한 게 없는가 하면 한생각도 한 것이 없고, 행동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터득해야 합니다. 실생활 속에도가 있는 것이지 실생활 빼놓고 도가 따로 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참나를 발견했을 때 안에서 나오는 대로 행을 한다면 그건 정신계에 끄달리는 것입니다. 또 처음에 이렇게 믿고 거기다 놓고 갈 때 물질을 보고 남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서 내 중심을 세우지 못하고 산다면 그거는 바로 물질계에 끄달리는 겁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라고 했습니다. 저 언덕을 넘어서야만이 우리들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죠. 고해의 강을 건너서 만납시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편 언덕 뒤에는 항상 밝음이 있고 감로수가 있으니 그리 건너가자는 말입니다. 끝없는 밝음이 있기 때문에 컴컴하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물질세계에 끄달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째는, 만약에 거위, 지렁이들이 그냥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벌써 징그럽다고 생각하고 귀신들이 있다면 무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모두 징그럽게만 보이고 무섭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대가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몸은 없어지고 영혼만이 남는데 이 도리를 모르는 영혼이라면 거길 못 건너가는 거죠. 살아있을 때의 의식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둘째는, 기독교 카톨릭교에서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했고, 우리는 강을 건너고 저 언덕을 넘어서 같이 한자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물질세계의 의식이 꽉 차여 있기 때문에 이 도리를 모르면 자기가 죽어서도 몸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니 아무리 기다린다 할지라도 배가 옵니까? 의식적으로 강에 들어가면 물이 깊어서 빠져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오지 않으니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생각 끄덕하면 찰나에 건너갈 것을 한생각을 돌리지 못해 그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금 과학적으로 본다면 블랙홀이라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불바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바퀴가 세 번째 단계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넘어갈 때 타 죽을까봐 못 들어가고 뜨겁다고 못 들어갑니다. 물질세계의 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몸이 있는 줄 알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나 아닌 나'는 없습니다. 뜨거워서 죽을 필요도 없고, 어디를 들어가도 들어간 사이가 없고, 나온다 하여도 나오는 사이가 없어서 그대로 뚫리고 그대로 여여하건만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첫번에 벌써 내 이 몸 속에 있는 그 의식들이 전부 모습을 그렇게 해 가지고 보이니 그 길을 못 간다는 얘기죠. 그게 딴 데서 와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몸뚱이가 사대로 흩어지니 내 몸 속의 그 의식들이 앞을 가리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고, '허!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하고 딱 한생각을 넘기면 그냥 보살로 화할 텐데 그 한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넘지 못하는 겁니다. 재차 말하지만 빠져 죽을까봐 배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타 죽을까봐 불바퀴 속을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빼놓고는 부처를 이룰 수가 없고 내 마음 빼놓고는 도저히 앞뒤 뚫린 용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본래는 열려있는데 자기 소견으로 닫아 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미운 걸 보면 보기 싫어하고, 또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식지간도 그렇고 일일이 잘못하는 걸 보면 자꾸 상대방 탓을 합니다. 속이야 어떻든지 누가 좋은 말을 해주면 좋다고 하고, 진실로 너는 이렇고 이렇다고 지적을 해주면 그게 듣기 싫어서 왈칵 화를 내면서 너 두고 보자고 한다면 이러한 마음이 결국 자기를 깎아 먹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내가 없으면 아무 것도 없고 내가 있기에 일어나는 것이니 모두 내 탓으로 돌리는 반면에 바로 내가 공해서 없다는 그 뜻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본래 자성불은 누구에게나 있는데도 자기 불성은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 자리 능력으로 인해 나고 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당에 계신 부처님을 믿고

☞30면으로 계속

☞29면에서 계속

경구와 글자풀이에 매달리지 말고 마음의 눈 밝혀 인과 굴레 벗어나야

'부처님, 나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한다면 그건 기복이지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한마음으로 돌아가야 공덕이 됩니다. 일체가 내가 아님이 없기에 내가 하지 않는 일이 없고, 내 아님이 없기에 내 아픔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몸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그게 공덕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일체제불과 일체보살, 역대조사, 수많은 중생들,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전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마음마저 없다는 사실은 한마음이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부처님께서 한마음을 내실 때에 보살로서 화해서, 법신으로 화하시고, 그래서 납이 원하는 대로 응해주시는, 한마음이 돼주시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백정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부처님께 귀의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넣고 끊어지지 않는 그 마음이면 그대로 한마음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일을 할 적에나 똥을 눌 적에나 잠을 잘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설 때나 그것이 바로 내 부처, 즉 한마음 주인공의 작용이라 생각하고 뭐든지 거기다 놓고 아주 잔잔하게 한생각 일으킨다면 그게 바로 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묘한 도리의 무심도법을 어떻게 우리들이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기만 하면 또 뭘 합니까. 아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안다고 해도 행하는 게 문제입니다. 백 가지 천 가지를 알고 있지만 한 가지도 행을 못하면 하나를 알고 하나를 행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이 세상에 모두 살고 있는 자체가 팔만대장경의 증거입니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던 그때 시절에는 그때 시절대로의 용어가 달랐고, 지금 시대에는 현실에 맞는 용어로 바꿔 써야 해요. 뜻도 같고 사는 도리도 같습니다만 시대가 자꾸 변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옛날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용어를 가지고 인용한다면 요즘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음 자체가 부처님의 뜻을 저버려서가 아니라 진짜로 부처님의 뜻, 골수를 알아서 한마음으로 내 마음 속에 지닌다면 구태여 염주를 목에 걸고 다니지 않아도 되겠죠. 백팔염주를 걸고 다니는데 백팔염주가 바로 표현입니다. 백팔 번뇌 망상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번뇌 망상이 아니라면 어찌 공부하겠습니까?

백팔이라는 건 뭐냐하면 백은 무입니다. 무! 팔은 사무 사유가 한데 합쳐져서 무의 세계 유의 세계가 같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생각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그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번뇌망상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이 부처를 이룰 수 있고 법신을 이룰 수 있는 수련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나를 수련시키는 채찍이라고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 나온다 해도 허허 웃고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해라 하고 믿고 놓으면 끄달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나를 둥글게 다스리기 위해서 정으로 치는 것이며, 상대를 통해서 어떤 경계가 닥쳐와도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돌아가서 상대를 통해서 나를 치니 참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맡긴다면 남 탓할 것도 없고, 남을 증오할 것도 없고, 배신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으니 얼굴에 웃음을 머금으면서 환희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면 뭐 남는 게 있어서 정복하겠습니까? 더럽다고 버리고 밉다고 버리고 또 괴로운 건 버리고 즐거운 것만 들인다면 하나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귀결해서 넣고 보니까, 나중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서 다 나 아님이 없더라 할 때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이나 병고, 또는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등 모든 경계가 언짢고 고통스럽다고만 알지 말고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삼아서



그림 · 최주현

모든 걸 나온 자리에 다시 돌려놓으면서 하나하나 실험을 하면서 체험을 해 보세요. 직접 체험을 해 보고 그 맛을 알면 홀연히 참 자기가 밝아집니다. 홀연히 밝아지면 '아하! 이게 모두가 독불장군이 없구나. 회사에도 직원이 있으니 사장이 있고 사장이 있으니 직원이 있구나.' 하고 웃어지죠. 바로 이것이 보는 대로 느껴지고 보는 대로 알아지고, 보는 대로 생각나면은 그냥 제도가 되는 것이고, 육의 조상이 따로 있고 부처님의 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 뿌리임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면 부처님께서 해골더미에 큰절을 하신 이유도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윤회해서 돌아가니 모두가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이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해서 알고 보면, 수억겁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면서 돌아가면서,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면 다른 구름과 또 모였다 흩어지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세월을 걸어왔다는 그 자체를 가르쳐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건만도 부처님께서는 한번도 행하신 예가 없고, 한마디도 말씀하신 예가 없고, 한번도 생각해 본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 없는 말씀으로 수없는 나날을 가르치셨습니다. 꽃을 한 송이 들어서 가르치셨고, 또는 다자탑에서 자리의 반을 내주시어 가르치셨고, 또 관 밖에 두 발을 내놓으셔서 평발을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그 평발의 도리가 어떠한 것입니까? 발이 납작해서요? 발이 뭉툭하게 평지같아서 평발이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 벌레로서 아니,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모두가 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진드기 발 하나도 이 땅에 딛지 않는 게 없어요. 풀포기 하나, 지렁이 한 마리도 이 땅을 딛지 않음이 없으니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은 게 평발이다 이 소리입니다. 뜻으로 알아야지 말귀로만 알아듣고서 그대로 그걸 반복해서 외운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 공부는 지식이 많고, 학식이 좋고, 위대하고 부자이어야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누구나가 본래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기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높고 낮고 가난하고 부자고도 없이 그대로 평등한 것입니다. 늙고 젊고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는 자리입니다. 여자 빼놓고 남자만 제일이라고 하고, 또 비구스님만 제일이라고 해서 비구니를 우습게 안다면 자기가 나온 곳을 모르는 것이죠. 나온 곳을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봐야 알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산하대지는 어머니의 젖줄과 같고 저 태양계는 아버지와 같아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원기를 주고 공기를 주어서 생명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우리들은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없어도 안 될 것이며, 불이 없어도 안 되고, 물이 없어도 안 되고, 흙이 없어도 안 되고, 바람이 없어도 안 되고, 물과 불 바람과 흙, 사람, 우주개공을 바로 한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벌레 하나라도 나올 자격이 있으니까 나온 것이지 자격이 없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끌간 데 없이 지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화되면서 자꾸자꾸, 별성도 자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대성 원리가 아닌 것이 없는 거를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성 원리를 하나로 해서 그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재차 말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의식은 나쁘고 좋고를 모르기 때문에 두서 없이 나옵니다. 망하든지, 흥하든지, 좋게 보이든지, 나쁘게 보이든지, 밉게 보이든지 두서 없이 나오는데 나쁘고 좋고를 알고 있는 현재의식이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하기 때문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 했습니다. 위로는 한 마음을 갖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제도해야 하는 거죠. 내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천백억화신이 화하지 못해서 털구멍을 통해 나고 들면서 중생을 제도 못하니 그건 보살이 아니니라 한 겁니다. 아무리 보살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부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한 큰스님이라 할지라도 그건 이름일 뿐입니다.

내가 여러분 대신 밥을 먹어 주어서 여러분 배도 불렀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 먹으면 여러분은 굶어죽어요. 어떤 신도들은 개가 아프고 소가 아프고 젖소가 아프다는 등 별 소리를 다 합니다. 돼지를 기르는데 그 돼지들이 다 죽는다면 살림을 망쳐버리게 되어서 아이들을 기를 수 없다고 했을 때, 부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보살로 화해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되었을 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독사를 건지기 위해 독사 속에 들어갔을 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구리 하나, 진드기 하나 안 돼보시는 게 없는 그 마음 자체의 무한량, 광대무변한 이 법을 어찌 말로 다 하리까?"라고 한 말씀 하신 겁니다.

근본에 모든 것을 되돌려 놓고 녹여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를 떠나서 여러분은 기복으로 믿지 마시고 바깥으로 찾지 마세요.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바깥으로 찾는다면 부처님께서 '너는 고깃덩어리만 아는구나. 내 가죽과 내 뼈다귀만 알지, 내 골수를 모르는구나.' 하시고는 눈을 감으실 겁니다, 아마. 모두 알아야 '저 형상은 내 형상이요, 저 몸은 내 몸이요' 이렇게 되는 거고 내 마음 내 생명과 둘이 아닌 게 되죠. 우리 법당에도 부처님을 모셨지만 다 알고 난 뒤에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으로 보이고, 부처님으로 보이는 그 부처가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그것까지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공부가 익을 때까지는 누구의 탓도 하지 마시고 일체를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고 하심(下心)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남이 다 해놓은 것을 자기가 먹기도 하지만 먹는 반면에 바로 또 자기가 해서 남을 대접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내 스승이자 바로 부처이며 법신이며 화신입니다.

산중에서 컴컴할 때나 또는 밝았을 때나, 분패도 번지수도 없는 그 끝없는 길을 한번 걸어보자고 걸었을 때, 돌부리를 차서 발톱이 빠졌어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돌부리를 차게 한 것도 바로 내 스승이로구나.' 한 것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한자리인 것을 모르고 어딜 그렇게 다니느냐는 것이죠.

돌이 발톱을 빼놓고 한다는 소리가요, '네 발이 어디가 좋을까 하고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는 그런 발이라면 한 발은 못 돼. 그러니 발톱이 빠져도 싸지! 아니 전체가 한 도량이건만 도량을 어디 가서 또 찾아?' 하고 그 돌이 나한테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허, 이 돌이 바로 돌부처로구나! 요만한 돌 하나도 부처 아닌 게 없으니 그 돌부처 속에서 희한한 밝음이 나오고 돌부처 속에서 감로수가 수없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니, 그것들을 먹고 악하면 악한대로 독이 되고, 선하면 선한대로 사람을 살리는 약물이 되니 그거 참 희한하구나.' 그랬다구요. 그러니 '어디 따로 정해 놓은 데도 없고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것도 그냥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말하고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아니면 제가 질문할까요?

욕심 안 부리고 분수 지키는 그 마음이 바로 나를 리드할 수 있어서 홀연히 밝아지게 돼

▲질문자1: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스님: 깨닫게 해달라구요? 좋지요. 깨닫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모두가 스승 아닌 게 없으니 여러분, 스승 찾아서 돌아다닐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 대신 밥을 먹으면 여러분 배도 불렀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먹은들 여러분은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밥을 해다가 상을 차려서 여러분한테 드리기는 하나 먹는 건 여러분이 먹어야 배가 부를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의 도를 깨우쳐줍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질문 하나 할까요? "쥐가 고양이를 쫓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쫓는 겁니까?" 한마디 대답해 보시렵니까? 걸리지 마시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모두 도인들이 되고 부처들이 다 되었군요. 사실을 알고 보면 한마디도 할 게 없습니다.

▲질문자2: 전 이곳에 세 번 왔으나 오늘 처음으로 뵙는군요.

▲스님: 실컷 보세요. 실컷 봐도 거죽만 보시지 마세요. 이 고깃덩이는 아무리 봐도 흩어지면 송장이니 보시려면 아주 진짜로 잘 보세요. 그래 기껏 그 대답이에요? 그러니 "쥐가 고양이를 쫓느냐 고양이가 쥐를 쫓느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도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고 부모님을 모시고 젊은 분들이 살아나가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몸만 흩어졌다 뿐이지 다시 태어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저 한생각을 잘하면 위로는 묵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제자라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 알아야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종지라면 나도 종지입니다. 사람이 손을 폈다가 오그릴 줄 알고 오그렸다가 펼 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그게 한쪽만 끊어져도 송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람 콧구멍은 내려뚫리고, 소 콧구멍은 치켜뚫려서는 바람이나 비, 흙, 먼지가 전부 날려서 꽉 막혀버렸대요. 사람은 비바람으로 인해서 먼지가 끼면 그냥 막힐테니까 아래로 뚫어놨거든요. 왜 그렇게 소 콧구멍은 치켜뚫렸고, 사람의 콧구멍은 내려뚫렸는지 그 이치를 여러분은 잘 알아보세요. 온통 거기에 매달려서 붙잡고 걸리지는 마시고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걸릴 것도 없고 걸리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앞뒤 없는 피리소리, 이 온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하면서 요리를 한답니다.

▲질문자3: 포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스님: 외국이나 지방이나 안양이나 멀고 가깝고가 없습니다. 이 공부를 하려는 마음에 달려있을 뿐 멀고 가까운 곳이 없는 공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같이 도반으로서 한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46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쁘든 언덕을 넘듯 그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대불련 40년, 동문 찾기 캠페인

공동주관: 대불련 총동문회 · 대불련 · 현대불교신문사

'대불련 파이팅'

열정은 식지 않았다



◇70년대 대불련 활동의 주역이었던 동덕여고 불교반 동문들. 김재영 지도법사(왼쪽에서 세 번째)와 손경옥, 유정애, 홍경희(왼쪽부터) 동문이 '대불련 파이팅!' 을 외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성신여대 등 10여개 불교학생회 결성 주역

창립 당시의 '순수한 정열' 다시 후배에게

열정은 식지 않았다. 벌써 중년이 됐어도 대학 내에서 불교동아리를 만들며 젊음을 불태웠던 정열만큼은 그대로였다. 12일, 서울 사간동 갤러리 현대에서 만난 동덕여고 불교반 동문들. 70년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의 주춧돌이다.

"순수와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청년불교운동의 선구자라는 자부심은 법우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밤새우며 구도열정도 지폈고, 작은 깨달음에도 환희심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야말로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던 젊은 날이었습니다."

유정애(51 · 동덕여대 71학번), 홍경희(48 · 서울대 74학번), 손경옥(48 · 중앙대 75학번) 씨. 이들은 고교 시절부터 국사 교사였던 김재영 선생(현 청보리회 법사)의 지도로 불심을 키웠다. 김재영 선생은 특히 이들에게 실천 중심의 보살행 제일주의를 강조했다. 불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현실 속에서 깨달음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김 선생의 주문은 곧바로 이들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당시만해도 생소했던 찬불가 보급 및 창작 운동을 벌였고, 매년 '연꽃들의 행진' 이란 불교축제를 손수 기획할 만큼 당찬 소녀들로 키우게 했다. 또 대학을 진학한 후에는 대불련 조직을 늘리는 핵심 일꾼으로 활약했다. 유 씨는 동덕여대 불교학생회를 만들었고, 홍 씨는 서울대 음대에 불교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또 손 씨는 75년 동덕여고와 서울고 졸업생으로 구성된 '청보리회' 를 창립, 청년불교운동을 이끌었다. 창립시킨 불교학생회만 성신여대, 서울간호대 등 10곳이 넘는다.

"동덕여고 불교반 동문들은 개척시기에 있던 대불련에 동력을 제공하는 '파이프라인' 역할과 같았습니다. 이뿐인가요? 기존 불교학생회에서는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때 함께 활동하며 대불련의 기반을 다진 도반들만 해도 성신여대 어순아 교수(73학번), 동국대 김복순 교수(72학번), 원광대 심선경 교수(77학번) 등 대단히 많다. 이들은 매달 한번씩 모임을 갖고 대불련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과 동문 찾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찾고 싶은 분, 사연 등 보내세요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고 싶은 분은 사연과 연락처를 본지나 대불련 총동문회로 보내 주십시오.

연 락 처 : 현 대 불 교 신 문 사 www.buddhanews.com / 대불련 총동문회 www.daebul.or.kr

●대불련 후원회원 됩시다

불자학생들을 돕고, 대학생 포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자 및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참여방법: 일시 후원- 1구좌(1만원 이상) / 정기 후원- 월1구좌 자동이체

▶ 문 의 : 한 국 대 학 생 불 교 연 합 회 (02)732-0239, 739-0913

▶ 계 좌 번 호 : 국 민 은 행 023-01-0565993, 농 협 053-01-252868, 조흥은행 390-01-071917 (예금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후원금 내신 분(총동문회) ◆

〈10구좌〉 명호근(명예회장) 성기태(총동문회장) 백효흠(수석부회장) 전창렬 (상임고문) 김윤권(〃) 신호철(〃) 이영치(〃)

〈5구좌〉 박세일(상임고문) 김규칠(〃) 이채영(〃) 이용부 (〃) 황귀철(부의장) 윤제철(〃) 여익구(〃) 전보삼(〃)박문숙(〃) 임동주(〃) 어순아(〃)

이상 6월 18일까지 접수 명단입니다.

'참여하는 불청, 행동하는 청년'

평화문화제, 삼보일배 등 행사 다양

대불청 청년대회 성료

전국의 청년불자들이 남북 화해와 세계평화를 염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옥, 이하 대불청)는 6월 14, 15일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입구 잔디광장에서 제 22차 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참여하는 불청, 행동하는 청년' 을 주제로 열린 이번 불청대회에서는 전국 13개 지부 1천여 청년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신임 총재로 추대됐다. 또한 불청대상 시상식에서는 부산지구 류상영씨가 대상을, 강원지구 탁정일씨가 총무원장상을, 경남지구 박동근씨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불교청년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프로그램은 6 · 15 남북공동성명 발표 3주년을 맞아 열린 '대불청 평화문화축제' 와 '평화와 생명 보전을 위한 삼보일배' .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평화문화축제에서는 이라크 전쟁과 대구지하철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과 영령, 자연파괴로 생명을 잃은 중생을 애도하는 발원문이 봉독됐다. 또한 청년불자들의 참회와 결의를 담은 촛불의식과 평화기원 탑 쌓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15일에는 잔디광장에서 법주사 청동대불 앞까지 1천여 청년불자들이 6 · 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촉구하는 '평화와 생명 보전을 위한 삼보일배' (사진)를 봉행, 평화를 염원하는 청년불자들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대불청 정상옥 회장은 "이번 대불청대회는 청년불자들에게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서로 교류하는 장이 된 것 같다"며 "특히 남북 화해와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프로그램들은 불교의 대 사회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포교 뿐만 아니라 민족 통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법사단 창설 58주년 기념법회

전국교법사단(단장 김형중)은 28일 오후 3시 동국대학교 대각전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 창설 5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기념법회에서는 조영채(금산중), 최성희(은석초), 박혜정(광동고), 배영일(정광고) 등 4명의 신임 교법사에 대한 품수식과 청소년을 위한 경전말씀 모음집 〈빨리 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거야〉의 봉헌식도 함께 열린다.

파라미타 광주지부 창립식 개최

파라미타 광주지부는 6월 21일 광주 무각사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을 비롯해 파라미타 지도자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개최한다. 특히 광주지부는 지역 불자 교사들과 사찰, 그리고 불교학생회들간의 자발적 동참으로 창립되는 것이어서 아직 창립되지 않은 인근 전남지역 창립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03 '세계 물의 해'

물맛

순수한 물 분자인 H_2O로만 이루어진 증류수의 경우 무색, 무취, 무미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고 있는 물에는 미네럴 성분이 들어있어 독특한 맛을 낸다.

물 맛을 좋게하는 미네럴 성분은 칼슘, 칼륨, 규산 등이다. 칼슘의 경우, 적당량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은 맛을 내지만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짠맛을 내기도 한다. 광천수나 지하수가 물 맛이 좋은 이유는 이들 광물질들이 녹아 있어서 독특한 맛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반

좋은 물맛은 칼슘 등 적당량 포함

수온은 13℃, 끓여 마시는 경우 70℃

대로 마그네슘과 황산, 이온, 염소 등은 물 맛을 나쁘게 한다. 소독을 심하게 한 염소가 다량으로 섞인 수돗물은 물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냄새가 난다.

수온 또한 물 맛에 많은 영향을 준다. 과학자들이 물 맛과 수온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물 맛이 가장 좋은 수온은 13℃ 전후다. 끓여 마시는 경우는 70℃ 정도. 반대로 물 맛이 시원치 않은 온도는 35~40℃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명작 비디오 파일

큐브 2



<아메리칸 사이코>와 <저수지의 개들> <펄프 픽션>을 촬영했던 안드레이 세큘라가 감독을 맡아 2003년 개봉한 큐브2. 왜 이 새하얀 큐브 속으로 왔는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8명의 사람들. 누가, 왜, 어떻게 우리를 가두었을까? 해결의 키워드는 무기연구소 '아이존'. 서서히 드러나는 아이존과 8명의 연결고리.

도형, 숫자, 죽은 물리학자의 시체. 모든 가능한 현실이,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내가 한자리에 모이면서 다시 죽고, 죽인다. 절대 통제불능지역. 하나의 시간대에 오직 하나의 현실만이 존재하는 그런 3차원 세상이 아니다. 여기는 여러 개의 시공간이 공존하는 4차원의 하이퍼큐브. 공간도 시간도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온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그 곳엔 진정한 '나' 가 없다. 말라죽은 내 모습을 보고 있는 '나' 는 과연 누구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에 녹아있는 '공' 사상은 눈앞에 있는 사물이나 사건을 부정하여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함이 없는 부정과 비판의 연속 끝에 그대로 긍정함으로써 해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이퍼큐브에서도 이러한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그것만이 살 길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2003.1.15 만우스님 파동명상수련으로 영통(靈通)을 이루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많은 스님, 법사님들이 파동명상을 통하여 경험하신 신묘하고 놀라운 경험담을 싣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에서 포교원 〈구룡사 052)298-9960, 017-521-9952〉을 운영하시는 만우스님(영통수련반 2기생)은 지난 2002년 10월말 경, 저희 연구소와 인연을 맺고 **파동명상수행**을 하시던 45일째 되던 날 새벽, 스님의 인당혈에서 평소와는 다른 감각(심한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날 이후 스님은 **영통靈通(숙명통)**이 열려 구룡사를 찾는 많은 신도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제도하는 힘과 능력이 생겼다. 만우스님은 평소에 방편으로 천문과 지리, 육임과 명리학 등에 관계된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그 공부들은 스님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 항상 답답해 하시다가 본 연구소의 **영통수련반**에 입문하시어 **파동명상수행**으로 **영통靈通**하게 되었다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왔다. 현재 숙명통을 이룬 스님의 소문을 듣고 구룡사로 밀려드는 많은 신도들(하루에 4-50명)의 일상사에 대한 친견 때문에 분주한 나날을 보낸다고 한다 또한 스님은 본 연구소와 인연을 맺은지 불과 6개월만에 신도수가 2000명으로 불어나 지금은 모처에 큰 불사를 일으키기 위한 제반 준비를 다 마쳤다는 말씀을 근간에 전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몸속에 있거나 장애를 주는 영가와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제주(祭主) 또는 신도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 원격명상제령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한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기법의 파동명상을 통해 靈痛을 열 수 있게 한다.(숙명통..)
◈ 파동명상수업외 :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일시 : 매월 2째주, 4째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可)
◈ 수련과정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전문반 수련후 상담후 등록(수련비 300만원)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거리의 만다라 (58×58cm).

강보에 싸인 아기의 잠은 미래를 꿈꾸는 인도의숨결

거리의 물결은 생명의 만다라

부사발역에서 보팔역으로

차량과 사람옷이 빚은 형태·빛깔은 지상의 파노라마
"짐 옮겨 주겠다" 달려드는 청년의 혈기는 삶의 열정

인도그림기행 8

그림·글 이호신

"지구촌 마지막 여행지가 바로 인도지요. 돌고 돌아서 다시 가보고픈 곳이 인도 땅이랍니다." 한 인생선배의 말이 떠오를 때 쯤 차창을 보던 스님은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 인도 여행이건만 삶의 감동은 여전하군요, 세상의 어느 나라를 다녀 봐도 이처럼 생명이 충만하고 또 변화가 많은 곳을 찾기는 어려워요" 하신다.

이제 버스에서 열차로 갈아타기 위해 부사발역으로 가는 길. 거리는 온통 뭇 생명으로 가득한 만다라의 세계가 펼쳐진다.

사람과 더불어 발 달린 짐승들은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소, 말, 개, 돼지, 염소, 양, 닭들이 난장을 치고, 차량은 동물들을 피해가느라 연신 크락숀 소리와 흙먼지로 뒤범벅이다. 또 건물과 차량, 우마차와 사람옷이 천태만상의 형태와 빛깔로 드러나니 가히 거리의 물결은 지상의 파노라마다.

침대칸 열차에 올라 목적지인 보팔역까지 7시간을 가야하는 여정에 돌입했는데 영하 5도의 날씨에 수 십 명이 얼어죽었다고 현지 신문이 전한다. 반대로 지금 한국에 돌아와 뵷을 든 이 순간(2003. 6. 5) 섭씨 4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3주째 120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인도 소식이 우울하게 들려온다.

이처럼 인도의 지리, 역사는 다양성의 문화로 공존한다. 수 백 개의 방언과 열여섯개의 공식언어,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 시크교, 기독교, 회교 등이 존재하는 종교의 천국이다. 또한 다양한 피부색의 종족이 모여 살며 풍습도 가지가지인 풍토는 자연 지리와 기후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다.

깊은 밤 대륙을 횡단하는 고단함과 지루함은 옆자리 동행인 칠순할머니의 인생드라마에서 길동무로 이어간다. 한시도 자기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영감을 떼어놓고 여생의 소원을 위해 한달간 산사기도를 다녀오겠다고 할아버지를 속였다는 할머니의 거짓말은 참으로 지혜로우시다.

"거시기 이 화백, 내가 혹 길을 잃어버리면 무애라고 남들에게 말해야 살 수 있을 텐가?" "네, 할머니 나마스테(안녕하세요) 바차-오 바차-오(도와 주세요) 하시지요" 여행사에서 나누어준 쪽지를 훔쳐보고 할머니를 안심시키자 할머니는 그새 눈감고 두 손 모은 채 "나마스테, 바차-오 바차-오"를 염불하듯 반복하고 또 되뇌이는게 아닌가. 하긴 할머니에게 지금 이 보다 더 간절한 주문은 없을 성싶다.

깜깜 밤길속에서 마침내 보팔역에 도착하자 싸늘한 냉기가 엄습하는데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서로 엉켜 이불을 포개며 뒹굴고 있다. 숲으로 가지 않고 사바세계에 머무는 눈빛만 빛나는 목숨들. 저들은 진정 걸인인가, 수행자인가.

한편 마차 주변이 웅성거려 살펴보자 어느 주검이 들것에 실려가고 있다. 조금 전 뉴스에서 동사(凍死)한 현실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밤새 저 냉한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자성(自性)을 찾고 뭇별을 찬탄하려는 사람들의 용맹인가. 아니면 현실의 패배자인가. 여행자의 의문은 등골이 오싹하고 인륜(人倫)은 애린(愛隣)의 슬픔으로 잦아든다.

자신 키만큼 쌓은 여행용 가방을 붉은 타올로 감싼 머리에 이고서 휘청거리며 역 계단을 오르는 흰수염의 늙은이. 가방을 먼저차지해 옮겨 주겠다고 밀치며 달려드는 청년의 혈기 속에 인도의 삶이 흐른다. 직시해야할 현실의 뜨거운 풍경이 일어선다.

집을 떠나오기 전 인도에 관한 참고서적, 여행기를 접했는데 다행이도 신간인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이옥순)은 적잖이 충격을 주었다.

"인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순진하지도 대등하지도 않다. 나는 19세기 제국주의자 영국에게 감염된 우리의 '인도 보기'를 '복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명명한다. 이미지는 모름지기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인식의 양태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인도는 부정해야할 '동양'이거나 지우고픈 아픈 기억의 다른 이름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서양이 구성한 인도, 인도에 대한 영국의 식민담론을 비판 없이 차용하고 복제하여 우리보다 발전하지 못한 인도를 우리의 '동양'과 타자로 바라보면서 한때 막강한 힘을 가졌던 대영제국의 공범이 되어 심리적 보상을 얻는 것이다."

이 무서운 지적은 잘 나가는 베스트 작가와 인도 여행기를 단숨에 벼랑으로 몰아 지상으로 번졌고, 나 또한 그녀의 애정 어린 인도 읽기에 공감하며 내심 마음의 준비를 다졌었다. "그렇지, 딴의 자료에 의지하지 말고 내 시각으로 살피자. 화폭을 거울 삼아 굴절 없이 역사의 흔적과 현실을 반영하자."

그러나 나 또한 나그네의 소회와 감상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때론 개인의 주관과 인류의 보편은 서로 망각과 감회의 강물을 바라보고 있음을. 하여 여행자는 지금 스산한 풍경에 젖어있다. 내 삶의 모순을 망각하고 인도라는 강물속의 조약돌을 보며 그곳에 손을 담그고 있다. 여기에서 '현상'이 곧 '본질'이라는 '직관'이 성립하고, '세계일화(世界一花)'의 동병상련(同病相憐)이 단지 합리화나 동정의 변은 아닌 것이다. 서글픔은 모름지기 웃음을 앗아가므로.

열차에서 내려 짐을 찾을 때까지 대합실에서 서성이는데 각색 문양과 빛깔로 빚은 여인들의 의상이 자꾸만 시선을 끈다. 어색한 눈맞춤에 가벼운 인사가 마침내 "나마스테"로 통한다. 그 중 아기를 강보에 싸안은 아낙은 내 눈길을 이해했는지 다가서자 잠자는 아기를 보여주며 웃음 짓는다. 눈썹사이에 검은 점이 또렷한 아기의 무구한 잠. 인도의 미래를 꿈꾸는 새 생명, 희망의 숨결! 거리의 물결은 다시 흐르고 만다라의 세계가 이어진다.

lhs1957@lycos.co.kr


◇강보의 빛(41×36cm).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국내최초 침대형 의료기기 허가획득
기념20%세일
『佛心同體』헬스라이프 침대는 의료기기입니다
스님과 불자님의 편안한 잠자리,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건강은 헬스라이프 의료기기 침대가 책임집니다
본 제품은 돌침대, 매트가 아닙니다
헬스700
w4,800,000 → w3,840,000
헬스600
w2,700,000 → w2,160,000
통증,근육통,혈액순환개선까지…
헬스라이프보료
▶ 스님께서는 보료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싱 글 : w 1,900,000 → w 1,560,000
● 더 블 : w 3,600,000 → w 2,880,000
천연 원료만을 사용한 헬스라이프 침대는 의료기기-
스님과 불자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헬스라이프 침대는 음전위효과, 온열효과를 동시에 느끼게 설계되어 최구토는 국내최초로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또 동종업계로서는 최초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를 받아 통증완화와 혈액개선의 효능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생활의 삼분의 일 가량을 잠자리 시간으로 할애한다고 할 때, 편안한 잠자리는 건강한 하루를 위해 헬스라이프가 제공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헬스라이프 의료기기침대
누워 주무시기만 하면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 책임보험 2억원 가입 (SAMSUNG 삼성화재)
구입문의 02-581-6011
※ 각종 은행신용카드 결재로 24개월까지 할부가능합니다.
※ 주문시 현장설치 및 1년간 무료 A/S 보장
● 의장등록 제0304137호
● 품목허가번호 제03-272호
● 벤처기업확인 제021627032-2-5232호
● 제조업허가 제937호
● KS A 9002:1998/ISO 9002:1994 인증
지사 및 대리점모집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77-6
TEL : (02) 581-6011~3
공장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1리 272